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2020 DIRECTORY BOOK

2020 서울국제도서전 디렉토리 북

1 도서전 소개 2

2 디지털 전시 참여사 11

3 책도시산책 참여서점 225

4 협력공간 255

5 협력기관 261

1 도서전 소개

XYZ : 얽힘

ENTANGLE-MENT

책과 책,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국내 최대의 책 축제 서울국제도서전이 올해는 〈XYZ : 얽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 감염병 공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심화로 파국의 상상력이 기승을 떨치고 있는 이 시기에, 책 축제의 자리를 빌려 얽힘의 미학과 공존의 윤리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뜻하지 않은 팬데믹 상황에서 서울국제도서전도 가을로 개막 시기를 옮기고,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불가피한 '언택트'의 조건을 단순히 전통적인 축제의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복합 경험의 기회로 바꾸어낼 수는 없을까? 이번 도서전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형식의 책 축제를 실험하고자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긴밀한 연결 아래 모든 참여자가 '책'을 매개로 두 세계를 오가는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패러다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의 키워드 '얽힘'은 무엇보다도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플랫폼이 서로 이어지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전에 없던 경험을 만들어가는, 코로나 시대 새로운 축제 양식의 실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독자들은 서울국제도서전과 참여 출판사가 큐레이팅 한 책을 읽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가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XYZ : 얽힘〉은 코로나 이후 한층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온/오프의 '병행 세계'와 그 복잡한 관계만을 가리키는 키워드가 아닙니다. 도서전의 독자들이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마주할 40여 편의 주제 관련 세미나(강연/대담)는 동시대의 다양한 현상과 이슈를 다루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다양한 존재가 서로 얼마나 깊이 얽혀있는지 새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를 초래한 인류세(Anthropocene)의 시대에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인간이 만들어낸 각종 위험 요소를 성찰하고, 인간과 비인간(동물, 사물, 기술, 자연 등)의 새로운 공존 공생을 꿈꾸어봅니다. 여성(XX), 남성(XY), 그리고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최근 몇 년 새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페미니즘과 퀴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X세대'와 'Y세대', 'Z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으로 이어지는 세대 구분을 넘어서,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자 세계 안의 존재로서 모든 세대가 공유할만한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탐색해봅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은 사람들 사이의 얽히고설킨 관계를 풀어나가며 인간 존재의 심연과 사회 현실의 모순을 예리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장르인 추리/미스터리/스릴러/호러 특집을 꾸밉니다. 독자들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크라임의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웹 기반의 특별 기획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이 장르에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전은 또 종말(XYZ)을 향해 가고 있다는 설이 오래전부터 무성했던 책의 미래를 재조명합니다. 종이책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을지 몰라도, 전자책, 오디오북이 출판 미디어의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각종 디지털 플랫폼, 모바일 미디어가 전통적인 종이의 대체물로 급속히 부상했습니다. 이 거대한 미디어 융합의 시대에 책은 장차 어떤 형태로 생존과 발전을 거듭해갈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책과 음악, 책과 요리, 책과 동물 등의 색다른 결합을 통해 책의 확장성 또한 모색할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서점과 문화공간을 여행하듯 다니며 책을 매개로 한 책 전시, 강연,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책도시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판사와 동네 책방이 협력하여 준비한 프로그램과 도서전에서 제안하는 책 읽기 좋은 장소를 찾아 산책을 하다 보면, 나만이 홀로 가을의 멋진 도시 여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는 한국-러시아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모스크바국제도서전 : 한국 주빈국 온라인 프로그램〉과 〈서울국제도서전 : 러시아 주빈국 온라인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예년과는 또 다른 의미와 재미로 가득 찬 새로운 형식의 2020 서울국제도서전에 여러분을 자신 있게 초대합니다!

2020년 10월 16일(금)-25일(일)

온라인
서울국제도서전 웹사이트
sibf.or.kr

오프라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서스테인어블 해빗,
보안여관, 라이너노트 외 동네서점 30여 곳

주빈국
러시아

홍보모델
손홍민, 송은이, 김초엽

주요 프로그램
참여사 디지털 책 전시
주제 전시 〈얽힘〉
강연, 대담 프로그램 "책캐스트"
서점-출판사 연계 프로그램 "책도시산책"
추리/미스터리/스릴러/호러 장르 특집
디지털 북 페어 코리아

주최	대한출판문화협회
주관	서울국제도서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YES24
협찬	네이버 오디오클립, 밀리의 서재
협력 기관	네이버, 러시아 언론매스커뮤니케이션청, 러시아도서협회, 주한독일문화원, KAIST 인류세연구센터, (주)놀공, 카카오 브런치, 에스프레소북, 와디즈, 서울환경영화제, 알라딘, 교보문고, 빅토리아 프로덕션, 주식회사 닷, 플라이북, 아이윙TV, 구일도시
공간 협력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Platform-P, 보안여관, 서스테인어블 해빗

The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SIBF) is Korea's biggest event of its kind, a forum facilitating encounters between various books and people. This year's event takes the theme "XYZ : Entanglement." At a time when visions of catastrophe are evoked by the global ecological crisis, the fear of infectious disease, and intensifying social conflict and division, this festival offers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 aesthetics of entanglement and the ethics of coexistence.

The unexpected onset of the COVID-19 pandemic forced us to delay the SIBF until this fall and give thought to the "new normal." But perhaps the need for social distancing can be regarded not merely as a crisis for the traditional festival but also as an opportunity for innovative and multifaceted experiences. With such ideas in mind, we want this year's fair to experiment with a format completely unprecedented on the global stage. We refer to a revolutionary paradigm under which all participants can share the experience of traveling between the closely linked online and offline worlds through the medium of the book. That ties this year's theme of "entanglement" to an experimental festival format in the COVID-19 era, a format in which interconnected online and offline platforms influence each other and produce previously nonexistent experiences.

After reading books selected by participating publishers, festivalgoers can take advantage of various ways to interact with the authors through our online platform. To be sure, the theme "XYZ : Entanglement" is not merely a reference to the parallel online and offline worlds (a parallelism that the pandemic has further entrenched in our daily lives) or to the complicated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 SIBF will also feature more than forty seminars related to that theme, some offline and some online, which will tackle a range of phenomena and issues in our contemporary world and bring festivalgoers a newfound awareness of the profound entanglement of the diverse creatures that exist in our world.

In these seminars, we will reflect, for example, upon the various risk factors that humans have created during the Anthropocene, such as particulate matter and microplastics, as well as the consequences of our actions, such as climate change and the ecological crisis. We will dream of new forms of coexistence and symbiosis between the human and nonhuman (a concept including animals, objects, technologies, and nature itself). We will talk about feminism and queer identity, issues that have prompted heated debate in Korean society over the past few years, and about the question of how women, men, and people of other genders can live together in harmony and equality. We will engage with matters of mutual interest to members of all generations—whether Generation X, Y, or Z—since we all belong to the same society and are all inhabitants of the same planet.

For this year's book fair, we have prepared a program focusing on the genres of detective, mystery, thriller, and horror, some of the best genres for untangling the knots of human relationships, plumbing the depths of human existence, and laying bare the contradictions of social reality. Our special web-based program will let festivalgoers experience and witness crime scenes in the real world, providing a tantalizing taste of genres that are currently in the spotlight.

The SIBF will also reexamine the future of books, considering that people have been saying for so long that the book is doomed to disappear, an era coming to a close like the "XYZ" in our theme. While paper books may be nearing an end, e-books and audiobooks point to new beginnings for the publishing and media industries. Various digital platforms and mobile devices have rapidly emerged as substitutes for the traditional medium of paper. In an era of massive media convergence, we will examine the forms in which books may both survive and continue to develop in years to come. We will also consider potential ways for books to expand through creative combinations with topics such as music, cooking, and animals.

An offline program called "Book-City-Stroll" consists of book exhibitions, lectures, author meetups, and other activities held at bookstores and cultural spaces. As visitors attend the events we have prepared in partnership with neighborhood bookstores and publishers and stroll through sites that the SIBF recommends as being great for reading, they will be making a fantastic journey through the city, a trip tailor-made for each of them this fall.

Since 2020 is the year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we have also organized “ The Moscow International Book Fair: Online Program for Korea, the Guest of Honor” and “ The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Online Program for Russia, the Guest of Honor.” Consider this our invitation to the 2020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we are sure you will enjoy the new format as we strike out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previous years.

Dates	Friday, October 16–Sunday, October 25
Online	https://rights-center.sibf.or.kr/
Offline	Community House Masil and 30 other local bookstores and culture centers
Guest of honor	Russia
Main programs	Digital book exhibitions by participating publishers Entanglement: feature exhibition “Bookcast”: lecture and seminar program “Book-City-Stroll”: program linked with bookstores and publishers Special program on the detective, mystery, thriller, and horror genres Digital book fair Korea
Promotional ambassadors	Kim Cho-Yeop (author) Son Heung-Min (football player) Song Eun-I (entertainer)

2 디지털 전시 참여사

PUBLISHERS PARTICIPATING IN DIGITAL EXHIBITIONS

서울국제도서전 웹사이트에서 각 출판사가 직접 큐레이팅한 디지털 책 전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The SIBF website will be hosting digital book exhibitions directly curated by each publisher.

개암나무 (주) 1

GAEAMNAMU PUBLISHING CO., LTD.

김보경 Kim Bokyung

04417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40길 19, 4층(한남동, JD빌딩)
4F, 19, Hannam-daero 40-gil,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6254-0601, FX 02-6254-0602
gaeam@gaeamnamu.co.kr
http://blog.naver.com/gaeamnamu

아동

개암나무 출판사는 어린이를 위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책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문학 감수성을 높여 주는 〈문학의 즐거움〉, 〈읽기의 즐거움〉시리즈 및 다양한 창작 동화와 그림책, 인문과 교양, 예술과 과학 등 교육과 성장에 필요한 지식을 폭넓게 함양할 수 있는 여러 도서들을 통해 어린이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We publish the world's most valuable and meaningful books for young readers. Our books such as <The Pleasure of Literature Series>, <Joy of Reading Series> encourage young readers to sustain literature sensibility. Furthermore, we contribute to provide knowledge regarding education and mental development by publishing books of Art, Science, Culture, Humanity, as well as Storybooks and Pictured books.

디지털 전시 참여사

경상대학교 출판부 2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ess

권순기 Kwon Sungi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501, Jinju-daero, Jinju-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T 055-772-0801~3, FX 055-772-0809
gspress@gns.ac.kr
http://gspress.gnu.ac.kr

사회과학 • 자연과학 • 기술과학 • 역사 • 교재

경상대학교출판부는 1988년 개관 이래 학술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학내의 연구 성과와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양교재, 교양총서, 전공교재, 학술도서 등을 개발·출판 하고 있으며, 지역적 다양함을 역사·인물·자연·환경·민속 등 전 분야에 걸쳐 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대학교 출판부에서는 기획도서를 발굴·출판하고 있습니다. 〈지앤유 로컬북스〉는 지식과 정신의 지역적 다양함을 표현합니다.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은 그 자체로 고유한 중심이라는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지앤유 로컬북스〉는 스스로를 확고히 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닌 존재들을 지역에서 발굴하여 담아내고자 합니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ess opened in 1988. Since then, based on academic contents, it has been working to discover research achievements in the school and local stories and to inform the world. It publishes excellent textbooks and academic books, and strives to capture regional diversity in books in all areas of history, character, nature, environment, and folklore. <GNU Local Books> also wants to identify itself and capture universally valued beings in the region.

고래뱃속 3

GORAEBAETSOK

김구경 Kim Gugyoung

04007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2길 24, 3층
3F, 24, Mangwon-ro 2-gil, Mapo-gu, Seoul, Korea

T 02-3141-9901, FX 82-2-3141-9927
drumbox1@goraein.com
www.goraein.com

문학 • 아동 • 학습참고

고래뱃속은 2012년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지는 상상 놀이터'를 모토로 설립된 어린이 책 전문 출판사입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창작 그림책을 만들고, 멋진 외국 그림책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림책뿐만 아니라 창작 동화, 어린이 교양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출간할 계획이 있습니다.

Established in 2012 with the concept of the "playground of imagination with never-ending stories," Goraebaetsok is a children's book publisher. The company creates new, original picture books and introduces well-made foreign picture books. Goraebaetsok plans to expand from picture books to various other genres for children.

디지털 전시 참여사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4

Korea University Press

정진택 Jin Taek Chung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145
145, Anam-ro, Seongbuk-gu, Seoul, korea

T 02-3290-4230, FX 02-923-6311
kupress@korea.ac.kr
www.kupress.com

사회과학 • 기술과학 • 언어 • 문학 • 역사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은 지난 1956년 설립 이래 그동안 1천여 종에 달하는 학술교양교재 출판을 통해 고려대학교 학술문화공동체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은 이제 지나온 60년의 전통을 디딤돌 삼아 "시대와 대중과 함께하는 출판문화의 혁신"을 기치로 새로운 60년을 열어 가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학술서적이나 교과서 개념의 도서뿐만 아니라, 일반 교양독자들까지 확보할 수 있는 도서들을 기획 출판하여 대학과 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56, the Korea University Press has been one of the pillars of Korea University's academic and cultural community through the publication of more than 1,000 kinds of academic cultural materials. The Korea University Press is aiming to open a new 60 years under the banner of ""Innovation of Publishing Culture with the Times and the Public,"" taking the 60-year-old tradition as a stepping stone. We will act as a bridge between universities and society by planning and publishing not only professional academic books or textbook concept books but also the books that can be secured by general cultural readers.

(사)고요한소리 5

CALM VOICE SOCIETY

하주락, 변영섭 Ha Ju Rak, Byun Young Sup

03145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7-5
47-5, Insadong-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739-6328, FX 02-723-9804
calmvs@daum.net
http://calmvoice.org

종교

사단법인 고요한소리는 붓다의 불교, 붓다 당신의 불교를 궁구하고, 실천하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붓다의 원음이 담긴 빠알리PALI 경전과 스리랑카불자협회Buddhist Publication Society에서 발간한 불교철학, 심리학, 수행법 등 실생활과 관련된 실천 불교 분야의 책들을 번역 소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회주이신 활성 스님의 법문집 '소리 시리즈'를 출간하고, 3회에 걸쳐 '중도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붓다의 명상' 프로그램, 빠알리 경전 및 불서 읽기 독서 모임을 진행하며 근본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Calm Voice Society (CVS) was established in 1987 with the aim of making a thorough investigation, practicing, and propagating of the Buddha's Buddhism. For the following 30 years, CVS has been engaged in translating into Korean the Pali canons as well as books related to practical aspects of Buddhism which the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in Sri Lanka has published. Recently CVS has published Sori series of Dhamma talks given by the Venerable Sunim Hwalsung, founder of the society, and developed various types of project including 'Forum on Middle Path', book clubs reading Pali canons and other related books, and 'Buddha's Meditation' program following the Buddha's original teachings.

디지털 전시 참여사

고즈넉이엔티 6

Gozknock ENT

배선아 Rita Bae

06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 6층, 601호
6F,221,Yeoksam-ro,Gangnam-gu, Seoul, korea

T 02-6269-8166, FX 02-6166-9199
gozknockent@naver.com
https://blog.naver.com/gozknock

문학 · 장르문학

고즈넉이엔티는 출판과 웹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원작 IP를 개발하는 스토리 회사입니다. 한국 유일의 스릴러 소설 브랜드 케이스릴러, 역사 등 사실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케이팩션, 드라마보다 더 설레는 로맨스 소설 브랜드 케이로맨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 SF 소설 등 다양한 장르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르소설 작가,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 웹툰 스토리 작가, 웹소설 작가 등 백여 명이 넘는 장르별, 분야별 전문작가들이 고즈넉이엔티와 함께하고 있으며 매해 30종 이상의 오리지널 소설 IP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즈넉이엔티는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제작사의 기획 및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영상에 최적화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다수의 작품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2차 사업화 판권 계약이 이뤄지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및 동남아시아 등 해외 수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글로벌 콘텐츠로서 역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Gozknock ENT is a diverse company that publishes more genres than any other novel publishers in Korea. From thriller and sci-fi to romance, non-fiction, drama, and even web-novels, experts of various genres are publishing their stories through Gozknock ENT. Currently, more than one hundred authors are working with us, and the number is rising constantly. Every year Gozknock ENT novels are adapted into movies, TV series, musicals, or web-comics. The intellectual properties of Gozknock ENT enjoy special recognition within the film industry. Gozknock ENT is a development company that creates original stories ready to be adapted into video, in addition to genre novels. Gozknock ENT's business model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publishing and serial uploading, secondary copyright contracts, and education for authors. Above all else, we are creating a professional original story for a video IP development company, and it is our mission to provide excellent content and educate new talent.

공앤박(주)

KONG & PARK, INC

공경용 Kyung-Yong Kong

05116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프라임센터 1518호
85, Gwangnaru-ro 56-gil, Prime-center #1518, Gwangjin-gu Seoul Korea

T 02-565-1531 FX +82-(0)2-3445-1080
info@kongnpark.com
www.kongnpark.com

언어 • 학습참고

2000년에 한국에서 설립된 공앤박㈜은 '어학 교재' 및 '영문 출판'에 특화된 출판사입니다. 미국, 칠레, 중국에 직영 유통망을 운영하여 있으며, 유럽, 캐나다, 싱가포르 등 현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도서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도서를 국제적으로 유통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약 60여 국가에 도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종한국어 회화 시리즈', 미국 대학용 한국어 교재인 'Anytime Korean Series'를 출판하였으며, 영문 출판을 시작한 이후로,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어 출판에 대한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번역가 네트워크, 출판에 적합한 스타일 에디팅, 현지화된 세련된 디자인, 세계적인 유통으로 완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NG & PARK, INC., established in Korea in 2000, is a publisher specialized in "language textbooks" and "English publications." We operate direct distribution networks in the United States, Chile, and China. We started distributing books internationally in 2012, "Sejong Korean Conversation Series" , "Anytime Korean Series," and we are currently selling books in over 60 countries. We offer a complete English Publication one-stop service with a network of translators in each field, style editing for publishing, refined local design, and global distribution.

구픽 8

GU-FIC

김지아 Jia Kim

04900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459 101동 1102호
#1102, 459, dongil-ro, gwangjin-gu, Seoul, korea

T 010-3283-4530, FX 02-6919-1351,
guzma@naver.com
www.gufic.co.kr

사회과학 • 기술과학 • 언어 • 문학 • 역사

구픽 출판사는 "재미있게 책을 만들고 재미있게 독자들에게 전달하자"는 목표로 2016년 초 첫 발을 내디딘 곳입니다. 구픽의 어떤 책을 선택하든 후회하지 않는 출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권 한 권 차근차근 책을 출간하며 독자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Established in 2016, Gu-Fic Publishing Company started to ""publish our books with pleasure and deliver them to our readers with pleasure."" Gu-Fic tries to put out books that our readers are satisfied with, whatever they choose, and publish books step by step to become intimate with our readers.

국립생태원 9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박용목 Yong Mok Park

33657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국립생태원
1210, Geumgang-ro, Maseo-myeon, Seocheon-gun,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T 041-950-5999, FX 041-950-6100
press@nie.re.kr
http://nie.re.kr

자연과학 • 문학 • 아동 • 생태

국립생태원은 한반도 생태계를 비롯하여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세계 5대 기후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한눈에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고품격 생태 연구·전시·교육의 공간입니다. 국립생태원 출판부는 소중한 생태정보와 이야기를 엮어 유아부터 성인, 전문가에 이르는 다양한 독자를 위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연구·교육·전시 사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대상이 읽을 수 있는 생태동화, 정보도서, 취미·실용서, 연구총서 및 뉴미디어 기술과 결합한 전자출판 등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을 제작, 보급함으로써 생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is a place for ecological research, exhibition and education where you can observe and experience the five major climates such as tropics, deserts, the Mediterranean, temperate zone and the polar and the animals and plants living in those climates. NIE PRESS create books for various readers throughout children, adults and experts with valuable ecological informations and stories. Contributing to the spread of eco-culture through production of various types of pub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education and exhibition projects of the NIE. Informative books, hobbies & how-tos and research series for diverse readers and e-books combined with new media technology.

글담출판사

10

Geuldam Publishing Co.

김종길 KIM JONG GIL

0402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8길 41
World Cup-ro 8-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998-7030, FX 02-998-7924
geuldam4u@naver.com
https://instagram.com/geuldam/
blog.naver.com/geuldam4u

사회과학 • 자연과학 • 예술 • 문학 • 아동

글담출판사는 '좋은 글로 쌓는 지혜의 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 자극을 받고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독자들의 삶에 지혜가 쌓이기를 희망합니다. 1999년 1월 단행본 출판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인문교양·에세이·자녀교육·청소년 분야를 중심으로 450종이 넘는 책을 출간하며 독자들에게 양서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독자에게 유용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Since 1998, Geuldam has continuously published books on child education, young adult, essay, and liberal arts through Geuldam, Indigo, Geuldam Kids, and Analogue. Publications amount up to an average of 25 per year. "Geuldam" means, a tower of wisdom built with literature.

글로연

11

Gloyeon

이희원 Lee, Heewon

07217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9-204
W1104 SK V1, Dangsanro 41gil 11, Youngdeungpogu, Seoul, Korea

T 070-8690-8558, FX 070-4850-8338
gloyeon@naver.com
www.gloyeon.com

그림책

글로연은 꽃과 나무들처럼 향기롭고 개성있는 작가들과 함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의 마음으로 그림책을 만듭니다. 글로연의 정원에서 독자들이 맘껏 웃고 위로 받으며 따뜻한 행복을 나눌 수 있기를 꿈꿉니다.

We focus on publishing picturebook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We publish picturebooks with the mind of a gardener who keeps a beautiful garden filled with trees and flowers. Glyeon thinks of our creators as these individual trees and flowers, each with their own unique talents, which make our garden so beautiful.

(사) 기독교문서선교회 12

Christian Literature Center

박영호 Young Ho Park

06704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68 4층
4F, 68 Bangbae-Ro, Seocho-Gu, Seoul Korea

T 02-586-8761, (fax)02-523-0131
clcpfr@gmail.com
http://clcbook.com

종교 • 역사 • 아동 • 학습참고

기독교문서선교회는 1941년 영국 콜체스터에서 켄 아담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국제 본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국제 CLC는 59개 나라에서 180개의 본부를 두고, 약 650명의 선교사들이 이동도서차량 40대를 이용하여 문서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이메일 주문을 통해 130여국으로 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CLC 는 청교도적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 서적을 출판하는 문서선교기관으로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길 소망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CLC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mmitted to the distribution of the Bible. Christian books and variety if Christian media. Our teams are drawn from many nations, denominations and backgrounds. All are dedicated to serving the Lord Jesus Christ and to the task of helping others to know Him better through the materials we distribute.

(주) 김영사 13

Gimm-Young Publishers, Inc

고세규 Segyu Ko

03052 경기 파주시 문발로 197
63-3, Bukchon-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763-2459, FX 02-745-4827
bestbook@gimmyoung.com
http://gimmyoung.com

총류 • 철학 • 사회과학 • 역사 • 아동

김영사는 1976년 출판을 통해 사람사는 바른 길, 행복한 삶의 길을 걷고, 실험하고, 널리 나누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김영사는 종합 출판미디어그룹을 지향합니다. '전문지식의 대중화, 대중지식의 고급화'를 모토로 문학, 인문, 교양, 과학, 경제·경영, 실용, 종교 등의 분야에서 총 4,000여 종의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국내 출판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부터 이원복의《먼나라 이웃나라 시리즈》, 유발 하라리의《사피엔스》, 한슬 로슬링의《팩트풀니스》등 해마다 '연간 베스트셀러 50'에 가장 많은 책을 올린 출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영사의 도서목록이 곧 양서목록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책,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Gimm-Young is one of the Korea's leading publishers, established in 1976. Gimm-Young's motto is satisfying our readers with high quality books of various fields: big idea, current affairs, business, self-improvement, history, religion, spirituality, popular science, philosophy, lifestyles and literary novels. Every year, Gimm-Young publishes approximately 200 books and has been published about 4,000 titles. We work with lots of leading authors around the world and highly recognized as the most powerful publisher, we have the longest million-seller list in Korea.

꼬레아우라

14

Koreaura Books

박창재 PARK CHANG JAIE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10 현대비전21 818호
#1001 Hyundai Vision21 Bldg., Dogok-dong Gangnam-gu, Seoul Korea

T 02-574-7300, FX 02-572-0816
ceo@epicsoft.co.kr
www.koreaura.net

철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출판 꼬레아우라는 역사 속 영웅들의 숭고한 애국 헌신정신과 자유평화 사상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여, 대한민국 국민 각자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스스로의 본분과 노력으로 자신은 물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남북이 하나되어 정신세계가 우수하고 국력이 융성한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에 우뚝 세워,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정진한다.

The book publisher Koreaura honored and developed the spirit of patriotic devotion and free peace of the heroes of history, so that the people could have pride and pride in the nation. Each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makes not only himself but also his country strong with his or her own duty and efforts. South and North Korea stand at the center of the world in a unified Korea with an excellent mental world and a prosperous national power. Korea has devoted itself to world peace with the spirit of Hongik Humanity, the founding ide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꿈꾼문고

15

kumkunbooks

채세진 Sejin Chai

0403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56-13, 502호
#502, 156-13, Donggyo-ro,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336-0237, FX 02-336-0238
kumkunbooks@gmail.com
http://blog.naver.com/kumkunbooks

철학 • 사회과학 • 문학

꿈꾼문고는 독자에게 가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전하겠다는 목표로 2017년 2월에 문을 연 출판사입니다. 유행을 뒤쫓기보다는 새로운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단단한 기획을 기초로 한 권 한 권 정성을 가득 담아 시간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는 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로 인문, 사회과학, 문학, 문화 분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부터는 페미니즘 총서 'ff(fine books × feminism) 시리즈'를 기획하여, 성차별과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의 폭력과 위선을 파헤치고 고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선언, 연설, 이론, 문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를 이루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기획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KUMKUNBOOKS is a Korean publishing company founded in February 2017, which aims to deliver valuable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readers. Our specialties are humanities, social sciences, literature and culture studies. The ff (fine books × feminism) series, launched in 2019, comprises manifestos, speeches, theories and fiction that expose, accuse or criticize sexism, violence and hypocrisy of male-centered patriarchy. Also on the way is a series of books that can promote diversity and support disadvantaged groups and minorities.

나무발전소 16

namuking plant publishing

김명숙 Kim myoungsook

04073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8길 31, 서정빌딩 7층 701호
7F, Seojeong BD, 31 Dokmak-ro 8road, Mapo-go Seoul, Korea

T 02-333-1967, FX 02-6499-1967
tpowerstation@hanmail.net
www.facebook.com/namuking
Instagram : @namubaljeonso

철학 • 문학 • 역사 • 아동

나무발전소는 2009년부터 '좋은 책은 좋은 생각을 이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문교양, 에세이, 문화예술 분야의 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동양 문명권의 형성, 발전에 뿌리가 되는 중국 관련 도서도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고유한 생각에 존재성을 부여하고 대중에게 읽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출판의 역할입니다. 나무발전소가 펴낸 책을 통해 재미와 지혜, 창의력과 용기, 위로와 사랑, 꿈과 비전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Namuking-plant publishing, with the motto "the story save the day!", is the publisher of essays and books about real life. Since 2009, Namuking-plant publishing has published books containing fun and wisdom, creativity and courage, comfort and love, dreams and visions. Every book has its destiny and the reason for existence. To help books light up their existence and survive is the virtue of publishing. We hope that our books would give wisdom and courage for the reader's life.

나무옆의자 17

Namu Bench

이수철 Lee Soo-chul

03970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1길 67 다산빌딩 3층
3F, 67, Seongmisan-ro 1-gil, Mapo-gu, Seoul, Korea

T 02-760-6630, FX 02-718-5752
namubench9@naver.com
http://facebook.com/namubench9

사회과학 • 예술 • 문학

나무옆의자는 출판인쇄그룹 현문의 자회사입니다. 2013년 1억 원 고료 '세계문학상'을 후원하며 문학출판을 시작하여 『망원동 브라더스』 『보헤미안 랩소디』 『저스티스맨』 『로야』 『도서관을 떠나는 책들을 위하여』 등의 세계문학상 수상작을 비롯해, 청소년문학 시리즈 〈소설BLUE〉, 고급 로맨스소설 시리즈 〈로망컬렉션〉, 〈테마시집〉 시리즈, 〈인문기행〉 에세이 시리즈 등을 출간해왔습니다. 외국문학 번역에도 힘을 쏟아 올해 출간 50주년을 맞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을 필두로, 해외 문학상 수상작과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분화하는 독자의 다양한 취향과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자기계발, 취미실용 분야로도 범위를 넓혀 양질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나비클럽

NABICLUB

이영은 Young-Eun Lee

0403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2길 49 2층
2F, 49, Donggyo-ro 22-gil, Mapo-gu, Seoul, Korea

T 070-7722-3751, FX 02-6008-3745
nabiclub17@gmail.com
www.nabiclub.net

문학

나비(Nabi)는 히브리어로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2007년에 출범한 나비클럽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출판을 꿈꾸며,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이야기에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세상과 인생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따뜻한 자극과 위로가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지어내고 들려주는 '이야기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 영화, 드라마, 웹툰화 계약이 체결되어 제작 중인 소설《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및 텀블벅에서 달성률 1600% 를 기록한《괴이한 미스터리》시리즈 등 다수의 소설과 에세이를 펴냈으며, 신인 미스터리 작가를 등용하는《계간 미스터리》를 새로운 감각으로 리뉴얼하여 출간했습니다.

'Nabi'means 'prophet' in Hebrew. Launched in 2017, the Nabiclub dreams of publishing a story that can change people's lives, and thinks about how to put various social messages into interesting stories. We want to be a story watchman who creates and tells meaningful stories that are warm and comforting. We has published a number of novels and essays, including *My Crazy Feminist Girlfriend* which is currently being produced after signing contracts for movies, dramas, and webtoons, and *The Bizarre Mystery* which has a 1600% achievement rate in the crowdfunding site, Tumblbuck.

Namu Bench is a subsidiary of the publication and printing group Hyunmun. In 2013, we began to publish literature by sponsoring Segye Literary Awards with 100 million won prize money. And then we began to publish world literature awards winning books like *Mangwon-dong Brothers, Bohemian Rhapsody, Justice Man, Roya* and *For Book Leaving the Library* and so on. We also published young people's literature series with the title Novel BLUE, high quality romance novel series with the title Roman-Collection, poetical works series with the title Thema Poetical works, and essay series with the title Humanities Trip. We has also devoted efforts to translate foreign literature, starting with Richard Bach's *Jonathan Livingston Seagull* which celebrates its 50th anniversary of publication in this year, and continues to show literature works such as foreign literature award-winner and unknown hidden gems. In addition, in order to meet various tastes and needs of the diversifying readers, we are planning to publish books of high-quality contents by expanding the range to the fields of self-improvement, hobbies, and practical uses.

(주) 난다

19

Inc. NANDA

김민정 KIM MIN JUNG

10881경기도 회동길 210, 2층(문발동)
210,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10881 Korea

T 031-955-8865, FX 031-955-8855
pocki@munhak.com
https://instagram.com/nandaisart/

예술 • 문학

난다는 '깊이 있는 이야기의 감각적 무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책 본연의 기능성과 가능성을 뛰어넘어 예술이 될 수 있는 책, 우리 문학과 문화의 동네에 역사로 남을 수 있는 책을 꿈꿉니다. 김민정 시인이 2011년 시작한 출판 브랜드 난다는 국내외 문인들의 다양한 작품에 예술적 감각을 가미하여 펴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난다가 펴낸 백여 권의 책 중에는 산책하는 문인들의 사색을 담은 〈걸어본다〉 시리즈를 비롯하여, 문학평론가 황현산과 허수경 시인의 잔잔한 목소리를 담은 산문집, 활달한 문체에 발랄한 표지를 입힌 정세랑의 소설 『지구에서 한아뿐』, 최근 20만 부 기념 리커버 판을 출간한 박준 시인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등이 있습니다. 사람과 종이의 물성이 만나 만들어내는 다양한 색을 흠뻑 담아낼 수 있도록, 난다는 오늘도 정성껏 책을 만드는 중입니다.

Nanda dreams of a book that can go beyond its original functionality and expand its potential as an art work. With poet Kim Min-Jeong as the CEO, Nanda has been publishing various works written by distinguished poets and writers since 2011. A hundred books that Nanda had published so far includes <Walking Around> series (travel stories written by fl?neurs of our time, of which the cover can be used as maps when unfolded), collections of prose by literary critic Hwang Hyun-san and poet Heo Su-Gyung, Serang Chung's fiction *Only Han-ah on Earth* with a lively book cover that matches her unique, lively style of writing, and poet Joon Park's essay, *Although Crying Doesn't Change Anything* along with its special edition commemorating 200,000 copies. Today, Nanda is continuing to make books that can fully capture various, vivid colors that our lives create on paper.

남해의봄날

20

NAMHAEBOMNAL

정은영 Jung eun young

53078 경남 통영시 봉수로 64-5, 1층(남해의봄날)
12, Bongsu 1-gil, Tongyeong-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T 055-646-0512, FX 055-646-0513
bomnal@namhaebomnal.com
http://namhaebomnal.com/

사회과학 • 예술 • 문학

남해의봄날은 아름다운 남해안, 예술의 도시 통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가치를 좇아 일과 삶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여정을 콘텐츠를 담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 책으로 소통합니다. 책에 담긴 이야기가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며 풍성해져 더 다채로운 빛을 품고 삶에 스며들기를 꿈꿉니다.

Tongyeong, a beautiful city of art located in Namhae(Southern coast of Korea), is home to Namhaebomnal. We seek out and enable people with their own values or new visions for life to tell their stories. By bringing together tales of people who pursue alternative lifestyles and the charms of small-town life, we focus on publishing books and essays on the humanities, society, and art.

노란상상 21

NORANSANGSANG

양정수 Yang, Jeong-su

07997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910호
910ho,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2654-5713, FX 02-797-5714
yyjune3@hanmail.net
https://blog.naver.com/yyjune3

문학 • 아동

노란상상은 봄날의 개나리, 샛노란 병아리와 같이 시작과 성장을 상징하는 '노란색'에, 아이들의 상상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상상에서는 사회, 정치, 우정, 용기, 이해, 나눔, 사랑, 철학 등 보편적이면서도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다양한 주제의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노란상상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읽는 책을 만들어서, 어린 독자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NoranSangsang is a children's book publisher that started in 2010. We publish various books on a variety of topics that are universal and must be considered, such as society, politics, friendship, courage, understanding, sharing, love, and philosophy. We are trying to make books can be read by reader's mind, not just by their eyes. We also trying our best to make the reader's mind brighter and make their power of thinking to be grown.

(주) 다락원 22

Darakwon, Inc.

정규도 Kyudo Chung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다락원빌딩
Darakwon Bldg., 211, Munbal-ro, Paju-si, Gyeonggi-do 10881, Korea

T 02-736-2031, FX 02-732-2037
dongho2@darakwon.co.kr
www.darakwon.co.kr

언어 • 문학 • 아동 • 학습참고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 다락원 - 다락원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늘 한발 앞서온 외국어 교재 전문 출판사입니다. 40여 년간 쌓은 노하우와 풍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어학 교재를 만들어 왔으며, 2000년부터 이러닝(e-Learning)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어, 일본어 학습 콘텐츠는 업계 최고 수준이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와 영어 교재, 초중고 교과서, 어린이도서, 잡지, 취미실용서, 자격시험 수험서(1QPASS) 등을 출간하며 종합출판사로서도 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Imprint사인 'Happy House'는 영어 창작 동화를 포함한 각종 스토리북 시리즈와 양질의 어린이 영어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Darakwon is a leading language publisher specializing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learning materials. Since 1977, Darakwon has striven to meet the ever-changing demands of language learners through its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Darakwon has published more than 3,000 foreign language titles. Making the best use of its publication, over 500 e-learning lectures have been developed and offered to employees in major corporations. Happy House, an imprint of Darakwon, publishes a variety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books for children, including a creative storybook series.

달꽃·담아

23

Dalflowers·Damabook

윤혜영 Yun hae young

04778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8길 21- 1 203호
21-1, Wangsimni-ro 8-gil, Seo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6332-1103, FX 02-6332-1104
lawnorder21@naver.com
http://post.naver.com/lawnorder21

문학 • 자기계발서

달꽃 출판사는 '너와 나의 마음을 이어주는 책'을 세상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 에세이, 디자인 서적 등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담아 출판사는 '생각이 바뀌면 가치가 바뀐다'라고 믿으며 자기계발서와 실용서적 등을 출간합니다. 달꽃과 담아는 로앤오더의 출판 브랜드입니다.

Dalflowers Publishing Company is introducing 'The Book that Connects You and My Heart' to the world. We publishing poems, essays, and design books etc. Damabook Publishing Company is introducing self-improvement books and practical books etc. We are believing that "if you change your mind, your value changes." Dalflowers and Damabook is a publishing brand of Lawnorder.

디지털 전시 참여사

(주) 대성

24

DAESUNG Corp

김정주 KIM JUNG JOO

(04324)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57 지하1층
57, Huam-ro 57-gil, Yongsan-gu, Seoul, Korea

T 02-6959-4140, FX 02-6959-3144
daesungbooks@korea.com
http://daesungbook.com/kor

총류

에너지사업을 통해 고객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온 대성그룹의 경영모토를 기본으로 현재 국내외 우수한 저작물을 발간하고 다양한 지식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신뢰받는 문화전문기업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Founded on the management motto of Daesung Group's energy business "Warming Hearts. Warming Homes." Deasung Co., Ltd. Publishes quality literary works and continues to establish a reputation as an expert in the culture industry, by creating synergies with knowledge industries.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25

The Publishing Department of GAPCK

김종준 Kim, Jong Joon

06177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
330 youngdong-daero, Gangnam-gu, Seoul, Korea

T 02-559-5669, FX 02-564-0782
holyonebook@gapck.org
www.holyonebook.com

종교 • 사회과학 • 문학 • 역사 • 아동

총회출판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산하 출판사로 정통개혁주의 신앙에 따라 보수적이며 복음적인 도서를 발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문서로 전달하여 온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과 믿음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추구합니다. 총회본부는 1912년에 설립되어 현재 총회산하 1만 1천여교회가 소속되어 있고 3국 1실로 50여명이 사무. 행정, 교육 복지, 출판 등의 일을 감당합니다. 출판국은 1991년에 설립되어 10여 명의 직원이 교회학교 교과서 200여종과 보수교단 신학에 맞는 신앙도서 및 단행본 100여종을 출간하였고, 2005년에는 '익투스'라는 단행본 브랜드를 임프린팅하여 개인의 경건서적 및 신앙서적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부터 발간하는 종교개혁 평전시리즈가 완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We, the publishing department of GAPCK, are the publishing company affil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Hapdong) and publishes conservative and evangelical books according to the orthodox revolutionary faith. By delivering the truth of God in writing, we pursue the whole land becomes one by gospel and to be God's man in harmony with the word, faith and life. The Headquarters of GAPCK was established in 1912 and currently about 11,000 churches belongs to GAPCK. About 50 people work in one office and they are responsible for administration, educational welfare, and publishing and so on. The publishing department was established in 1991 and about 10 employees have published 200 kinds of church school textbooks and 100 kinds of religious books and books suitable for conservative theology. In 2005, we imprinted the book brand 'Ichthus' and have been publishing personal devotional and religious books. Celebrating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we are about to complete the series of the Reformation critical biography, which was published from 2017.

(주) 더난콘텐츠그룹 26

THENAN CONTENTS GROUP

신경렬 Shin, Kyoung Lyol

04043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길 16 더난빌딩 7층
Yanghwa-ro 12-gil, Thenan Building 7 floor, Mapo-gu, Seoul, Korea

T 02-325-2525, FX 02-325-9007
chance1984@thenanbiz.com
http://thenanbiz.com

사회과학 • 문학

(주) 더난콘텐츠그룹은 1990년 6월 설립 이후 출판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표 브랜드 '더난출판'은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대중화시키고 비즈니스 현장에서활용 가능한 생생한 정보만을 엄선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브랜드 '북로드'는 2011년부터는 '스토리콜렉터' 시리즈를 통해 해외 소설 작가들의 작품을 발굴, 소개하여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Since its establishment in June, 1990, Thenan Contents Group Co., Ltd. has been devoted to publishing books essential for introducing complicated economic and business knowledge easier, simpler and more practical. Thenan has become an experienced company with nearly twenty years of hard work, and is proclaimed "number one in economics and business" Bookroad is a subsidiary company of Thenan Contents Group. It publishes novels, essays, and liberal arts books.

도도봉봉 27

DODOBONGBONG

오현지 HYUNJI OH

01722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4길 57
64, Junggye-ro 16-gil, Nowon-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10-4923-7739, FX 0504-345-7739
local5@daum.net
https://instagram.com/dodo_bongbong/

아동

아동도서를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입니다. 저희 출판사의 대표작으로 '옥단아 무겁지 않니?'가 있습니다. '옥단아 무겁지 않니?'는 한국의 항구 도시 목포에서 물지게꾼으로 일했던 여성의 이야기를 각색한 작품입니다. 회사는 목포에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함께 5개 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We are a publisher specializing in children's books. The representative work of our publishing company is'Okdan, isn't it heavy?'. This book is adaptation of the story of a woman named Okdan, who lived in the port city of Mokpo, Korea, she carrying water to source the village . Our company is working with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Mokpo to translate our book in different languages.

도서출판 CUP

28

CUP

김혜정 HyeJung Kim

00148 서울시 중구 을지로148, 드림오피스타운 803호
Eulji-ro, Jung-gu, Seoul, 04549, Republic of Korea

T 02-745-7231, FX 02-6455-3114
cupmanse@gmail.com
www.cupbooks.com

종교 • 아동

바른 성경적 가치관 위에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며,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전인적으로 조화된 균형 잡힌 도서를 출간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생각과 문화를 확장시키는 나눔터의 출판을 꿈꾸고 있습니다.

We are setting up disciples of Christ who live a practical life on the right biblical values, and we are publishing a well-balanced book in which the intelligence, sensitivity, and spirituality are fully harmonized, and hope to publish a book that extends Christian life, thought and culture.

디지털 전시 참여사

도서출판 갈무리

29

Galmuri Publisher

조정환 Joe Jeong Hwan

04030 서울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2층
9-13 Donggyo-ro 18-gil, Mapo-gu, Seoul, South Korea

T 02-325-1485, FX 02-325-1407
galmuri94@gmail.com
http://galmuri.co.kr

철학 • 사회과학 • 예술 • 문학 • 역사

갈무리는 '가을에 거둔 양식을 잘 거두어 두는 일'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인류의 사유와 실천의 성과들을 잘 거두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성의 씨앗을 뿌리고, 인류의 자율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삶을 재성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갈무리 출판사는 1994년 3월 3일 창립 후 현재까지 27년간 거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태도로, 지구화된 오늘날 다중(Multitude)의 삶 속에 어떤 사건들과 어떤 저항들이, 어떤 창조들이 다중의 힘으로 만들어지는가를 꾸준히 탐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며 그 주체성을 밝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직업적·세대적·성별적 존재들의 삶의 모습, 지성과 욕망, 활력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윤리학과 공통적인 인간 덕성으로 집약되고, 이러한 다중의 지성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탐구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Galmuri is a pure Korean word that means 'to keep the food harvested in the fall.' This word contains our will to sow the seeds of intellect appropriate for the new era by reaping the achievements of humanity's thoughts and practices, and to reexamine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autonomy and cooperation. Since its founding on March 3, 1994, Galmuri Publisher has remained independent from large capital and power for 27 years, and has investigated consistently what events, resistances, and creations come into being by the power of the multitude in today's globalized environment.

도서출판 광문각 30

kwangmoonkag publishing co.

박정태 park jung tae

10881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61
161 Gwanginsa-gil, Paju Book City, Pa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 +82-31-955-8787, FX +82-31-955-3730
kwangmk7@hanmail.net
www.kwangmoonkag.co.kr

총류 • 자연과학 • 기술과학 • 수험서 • 청소년

1991년 설립 이래 1,000여종이 넘는 학술, 교양, 문학, 실용도서분야의 주요 서적을 발행해 왔습니다. 이공학계 학도들을 위한 기초영양학을 시작으로 관련분야 교수들에게는 좋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 책을 내보고 싶은 출판사로 알려졌습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외국의 우수한 기술도서를 우리나라의 이공계 학도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신념으로 일본 및 미국, 영국의 우수한 출판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번역 및 출간에도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인문, 교육, 교양, 청소년 분야에 꿈을 담아 주기 위해 북스타 브랜드를 2003년 새롭게 런칭하였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송가네 공부법을 비롯하여, 청소년멘토시리즈, 한국의 IT천재들 외 많은 청소년 권장도서를 만들어냈습니다. 2008년 나비나라박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과학에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사이언스 주니어 출판사를 인수하였고 2015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최하는 우수과학도서로 "위대한 발견으로 만나는 과학교과서"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대한민국은 영어, 일본어로 번역되어 전자북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빛이 되는 책을 만들어 내는 곳 광문각에서는 현재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이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 줄 수 있는 마음의 양서를 만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kwangmoonkag (established in 1991)
bookstar (imprint, established in 2003)
science junior (imprint, established in 2014)

도서출판 도반 31

DOBAN Press

이상미 Lee, Sang-Mi

1399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2번길 32
32 Anyang-ro 332beon-gil, Man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T 031-465-1285
dobanbooks@naver.com
http://dobanbooks.co.kr

종교

도서출판 도반은, 교육관련 도서 기획사에서 출발하였으며 2009년 송강스님의 '금강경' 발간을 계기로 불교경전, 스님들의 수행서 등 불교와 관련한 다양한 책들을 출간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한 권 한 권 진정성 있는 책을 만들어 '대장경의 후예' 가 되고자 하는 출판사의 이념 아래 닥 섬유 고유의 특성을 담은 전통한지, 안동한지로 한지본 경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천년의 숨결이 느껴지는 한지 위에 금강경, 법화경, 자경문 야운송, 수행발원문 등을 고서제본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출판의 가치를 재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작품이라면 누구에게나 출판의 인연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 시인들의 감성시집 시리즈를 출간하며 사회공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도서출판 마티

MATI BOOKS

정희경 Jung Heekyung

03997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7-1 레이즈빌딩 8층
8F, 127-1, Jandari-ro, Mapo-gu, Seoul, Korea

T 02-333-3169, FX 02-333-3169
matibook@naver.com
http://matibooks.com

철학 • 사회과학 • 예술 • 역사

도서출판 마티는 2005년 설립되었습니다. 인문학을 중심으로 사회, 예술, 건축 등의 책을 펴냅니다. 푸르트뱅글러, 레니 리펜슈탈, 알베르트 슈페어 등 나치와 협력한 예술가의 삶을 통해 제3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파우스트의 거래' 시리즈, 『말년의 양식』 등 에드워드 사이드의 지적 유산을 소개하는 '에드워드 사이드 선집', 2010년대 중반 한국의 집짓기 신드롬을 이끈 『집짓기 바이블』을 비롯한 '좋은 집 시리즈' 등의 책을 출간해왔습니다. 책과 글의 위기가 이야기되는 지금, 도서출판 마티는 종이책의 가치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궁리하는 동시에 디지털 매체로 종이책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ati Books is a publisher of humanities and arts, founded in 2005. It has published more than 150 books. Among them "Faust Bargain" series which critically reviewed the artists of the Third Reich including Albert Speer, Leni Riefenstahl and Wilhelm Furtwöngler, and a selection of the Edward Said including his last book of On the Late Style received great acclaim from the press and readers. Also we interested in classical music and wish that whether beginners or veterans, music lovers will listen to the classical music with enlivened interest and deeper understanding with our guide books and related historic books in hand.

Doban, Book Publisher started as a book agency related to education arena, and has been publishing various books related to Buddhism, such as Buddhist scriptures and monks' training books, with the publication of the "Diamond Sutra 金剛經" by Buddhist monk Song Kang's translation in 2009. Under the publisher's philosophy of becoming a 'Descendant of the Tripitaka Koreana' by making a genuine book, even if it is a little slow, the scriptures are made with traditional Hanji and Andong Hanji that contai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ak" ? the paper mulberry- Textile. We are striving to recreate the value of buddhism scriptures like the Diamond Sutra, The Lotus Sutra, Scripture of Self-Waring 自警文野雲頌, and a scripture of petiton for training 修行 發願文. We blends the tradition and the modern by using old book binding method and utilizing Korean traditional paper with the breath of a thousand years. In addition, we are preparing to make a connection for publication to anyone with good book contents, and also making efforts to contribute to society by publishing a series of poems by handicapped poets.

도서출판 북스피어 33

BOOKSPHERE PUBLISHING HOUSE

김홍민 HONG-MIN KIM

03961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11길 43, 101동 902호
Bangullae-ro 11-gil 43,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518-0427 FX 02-701-0428
reader76@booksfear.com
www.booksfear.com

문학

북스피어 출판사는 200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로 미스터리, 에스에프, 판타지를 비롯한 장르문학을 만듭니다. 현재까지 150여 종을 출간했습니다.

Booksfear Publishing House was founded in June 2005. The main areas are mystery, SF, and fantasy. So far, 150 books have been published.

도서출판 여문책 34

Yeomoonchaek Publishers

소은주 So Eun-joo

10911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길 116-3, 101-401호
101-401, 116-3 Ungeongyeog-gil Paju-si Geonggi-go Korea

T 070-8808-0750, FX 031-946-0750
yeomoonchaek@gmail.com
www.facebook.com/yeomoonchaek

철학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역사

여문책은 상생과 연대를 지향하며 잘 익은 가을벼처럼 속이 알찬 책을 만들고자 하는 1인 출판사입니다. 2015년 12월 주명철 교수님의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중 1, 2권을 첫 책으로 펴낸 이후 37종을 출간했으며, 주력 분야는 인문사회와 역사, 교양과학입니다. 그동안 『대서사의 서막』을 필두로 한 프랑스 혁명사 시리즈 전 10권,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 『과학을 읽다』, 『호모 저스티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초연결사회와 보통사람의 시대』 등의 집필서와 『분배정치의 시대』, 『모두를 위한 분배』, 『불로소득 자본주의』, 『조종이 울린다』 등의 번역서들도 소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는 양서로 독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Yeomoonchaek is a one-man publishing company that aims to publish good books with a view to co-prosperity and solidarity. In December 2015 'Yeomoonchaek' had published Professor Joo Myung-chul's 1~2 volumes of "all 10 volumes of the French Revolutionary History Series," since then has published 37 kinds of books, and it's main categories are humanities, history, and liberal arts. In addition to all 10 volumes of the French Revolutionary History Series, 'Yeomoonchaek' has published Korean writers' various masterpieces such as "Everybody's History of Science", "You Don't Have to Work Hard!" and many translations such as "Give a Man a Fish"(James Ferguson), "The Corruption of Capitalism"(Guy Standing), "How Will Capitalism End?"(Wolfgang Streeck),""Poverty Capital"(Ananya Roy) etc. From now on, 'Yeomoonchaek' will continue to publish various books with a meaningful voice in our society.

도서출판 운주사 35

Unjusa Publishing Co.

김시열 Kim Siyeol

02832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67-1, 3층
3rd Floor, 67-1, Dongsomun-ro, Seongbuk-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926-8361, FX 0505-115-8361
unjusa88@hanmail.net
http://unjusa.co.kr

총류 • 철학 • 종교

도서출판 운주사는 붓다의 가르침에 바탕하여 건강한 비판정신과 치열한 탐구정신으로 불교 인문학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불교학의 학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진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를 발굴하여 펴내는 학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Unjusa Publishing Co., based on the teachings of the Buddha, is opening new horizons in Buddhist thought with a healthy spirit of criticism and a fierce spirit of inquiry, through which it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happiness of mankind. In particular, Unjusa is interested in discovering and publishing a variety of novel topics with a critical min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cademic discourse of Buddhist studies.

도서출판 자유의 길 36

The Roads to Freedom Publishers

김지은 Ji-Eun Kim

1031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 3로 75, 202호
No. 202, 75, Hi park 3-ro, Ilsanseo-gu, Go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 010-9799-7432, FX 031-816-7430
bookbear1@naver.com
www.bookbear.co.kr

사회과학 • 자연과학 • 예술 • 역사 • 아동

길은 네트워크입니다. 자유의 길 로고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모든 곳에 열려 있는 자유로운 길을 의미합니다. 도서출판 자유의 길은 예술과 인문교양 분야에서 사람과 사람, 자유로운 마음과 생각, 매체와 매체를 잇는 책을 만듭니다. 2020년 〈고양이와 배우는 기발한 미술사〉 전자출판 대상 수상, 〈민주주의는 실패했는가?〉 빅 아이디어 시리즈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콘텐츠 선정, 〈네트워크 세계사〉〈중심〉〈소소한 드로잉〉 등 출간도서 전 권 모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Roads make up a network. The “Roads to Freedom” logo symbolizes open paths that lead to all places. The Roads to Freedom Publishers creates books in the fields of arts, humanities, and culture to connect people with people, liberal minds with thoughts, and media with other media. A History of Art in 21Cats won the Grand Award for e-publications in 2020. Did Democracy Fail? from the “Big Idea Series” was selected as Outstanding Contents in the culture category of Sejong Book. All published works, including Network World History, Center, Little Drawings, etc., were selected as outstanding published contents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주) 도서출판 책과함께

37

Cum Libro Inc

유종필 Ryu Jong Pil

04022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70 소와소빌딩 2층
2F, Sowaso Bldg, 70 Donggyo-ro,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2-335-1982, FX 02-335-1316
prpub@hanmail.net
https://blog.naver.com/prpub

역사 • 아동

역사는 기록을 남기면서 시작되었고, 인쇄술의 발달로 책이 대중화되면서 민주주의가 싹텄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진보에서 뗄 수 없는 글과 책, 그 정신을 '책과함께'라는 이름에 담았습니다. 역사 전문 출판사로서 역사의 수많은 소재를 놓고 고민할 때, 핵심을 '인간'에 두고 '더 나은 세상'에 보탬이 되는 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서양 중심의 관점을 탈피한 세계사, 유라시아 및 실크로드 역사서, 외국인의 조선 여행기, 근현대 여성사, 풍부한 도판과 친절한 설명이 담긴 역사문화서, 현장의 고민을 담은 역사교육서,《한국사 편지》를 비롯한 어린이 역사책 등 지금까지 200여 권을 펴냈습니다.

Cum Libro have been founded in 2003 and published over 200 history books. The main categories are: History of various countries, Eurasia & silkroads history, World history on new angles, The journals written by foreigners travelling Korea in the early 20th century, Women history in the Modern and present age, History & culture books with many images, History education series for would-be history teachers, Korea & world history for children.

디지털 전시 참여사

(주) 도서출판 푸른숲

38

Prunsoop Publishing Co., Ltd.

김혜경 Hye Kyung, Kim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57-9
#57-9,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Korea

T 031-955-1400, FX 031-955-1406
cameramoon@prunsoop.co.kr
http://prunsoop.co.kr

사회과학 • 자연과학 • 문학 • 역사 • 아동

1988년에 설립된 푸른숲은 세상을 바꿀 가치를 담은 출판을 지향, 문학, 인문교양, 정치사회, 취미실용, 유아·어린이·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출간하는 종합출판사입니다.『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당신으로 충분하다』『심야 치유식당』 등으로 많은 독자에게 따뜻한 위안과 희망, 건강한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또한『닥치고, 정치』『주기자』 등으로 정치사회서의 대중화에 기여했으며,『허삼관 매혈기』『인생』 등 중국 소설가 위화의 작품을 국내에 처음 소개했고, 피터 스완슨, 길리언 플린과 같은 해외 소설가들을 꾸준히 발굴해왔습니다. 2000년 유아·어린이·청소년 브랜드 '푸른숲주니어'를 론칭해, '이어령의 춤추는 생각학교', '푸른숲 징검다리 클래식', '푸른숲 역사 동화' 외 여러 시리즈를 펴냈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브랜드 '라임', 인문심리 브랜드 '심심'과 취미실용 브랜드 '벤치워머스'를 통해 다양한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 도서출판 한울림

Prunsoop was founded in 1988. Our vision is to publish books with values that can potentially change the world. Prunsoop is currently a recognized consumer book publishing company that mainly creates works of literature, humanities, political& social sciences, crafts&hobbies, and books for kids&youth. Our history is decorated with several best-selling works of nonfiction that provide not only comfort for the reader but also hope for life in general. Prunsoop popularized political&social science books in Korea by publishing books which lead to timely issues. We introduced masterpieces from Yú Huá to the Korean book market and our company is consistently trying to discover talented novelists worldwide. Prunsoop has launched brands such as Prunsoop Junior, Lime, SimSim and Benchwarmers to give content to various readers and to create unique reading experiences.

Hanulim Publishing Co.

곽미순

0722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54길 11, 상가동 303호(당산동,래미안당산1차아파트)
Gangbyeon Raemian Apt, sang ga 303, 11, Dangsan-ro 54-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T 02-2635-1400, FX 02-2635-1415
hanulimpub@naver.com
https://blog.naver.com/hanulimkids

사회과학 • 자연과학 • 문학 • 아동 • 자녀교육

(주) 도서출판 한울림은 교육전문출판사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0-3세 아기그림책에서 유아와 초등 창작, 지식정보서 등 유아 · 어린이 분야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기획의 책을 펴내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펴낸 책으로는 〈아름다운 가치사전 1, 2〉 〈아기물고기 하양이 시리즈〉 〈까까똥꼬 시몽 시리즈〉 〈쭈까쭈까 쑥쑥 아기 그림책 시리즈〉 외에도 〈딸은 좋다〉 〈꼬부랑 할머니〉 〈무릎딱지〉 〈딴생각 중〉 〈바람은 보이지 않아〉 〈예절이 필요해〉 〈한 권으로 보는 어린이 인류 문명사〉 등이 있습니다. 저희 출판사는 교육전문출판 [도서출판 한울림], 어린이전문출판 [한울림어린이], 특수교육전문출판 [한울림스페셜] 3개의 출판브랜드로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Hanulim Publishing Co. established in 2004. Hanulimkids Publishing Co. is publishing great children's books and receiving a huge response. There are about 300 titles that Hanulimkids Publishing Co. published. Lists of Major Publications are as follows. Books for 0-3 years: *Little Fish Whitey, Thank You* etc., picture books for 4-7 years: *Daughter Is Good, The Day I Made a Friend, I Want Play More, The Leaf Guest and the Caterpillar Hairdresser, What Is a Friend?, Don't Be Sorry, Dad!* etc., books for schoolchild *The Scar, Beautiful Value Dictionary, It's Not Easy Being an Adult, The Baby Leopard, What Color Is the Wind?, Byoungha's Troubles* etc. Hanulimkids Publishing Co. dedicate its best efforts to the cause of publishing good children's books that grow up children's mind and thinking. Hanulimkids Publishing Co. will try tirelessly and constantly so that children can meet wide world and dream bright future.

(주) 도서출판 길벗

40

GILBUT Inc.

이종원 Lee Jong-won

04003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56
56, World Cup-ro 10-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 332 0931, FX +82-2-323-586
gilbut@gilbut.co.kr
https://gilbut.co.kr

총류 • 사회과학 • 기술과학 • 아동 • 학습참고

길벗출판사는 IT, 외국어, 경제경영서, 어린이학습서 등을 출간하는 대한민국의 리딩 출판사 중 하나입니다. IT와 외국어 도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권위 있고 많이 판매되는 도서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경영서와 어린이 학습참고서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기획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길벗출판사의 많은 책들이 중국과 대만, 일본, 태국 등 다양한 국가들에 수출된 바 있습니다. 길벗출판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책을 만들면서, 독자들이 책을 통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민합니다.

Gilbut Publishers is a prestigious publisher of IT, foreign language, business, and children's books in Korea. Our bestsellers in IT and language fields are authoritative, and we are also renowned for providing innovative and creative design in business and children's educational books. Many books also have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China, Taiwan, Japan, Thailand, and many other Asian countries. Gilbut Publishers has a great interest in giving readers easy access to necessary information for a better future. Our first priority in publishing is to fulfill what readers want.

(주) 도서출판 점자

41

Braille Publishing Co.,Ltd

김동복 Kim Dong Bok

04799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7길 57, 1203호
#1203,IlisinkunyoungHumanteco, 57, Achasan-ro 17-gil, Seongdong-gu, Seoul, 04799, Korea

T 02-3426-7511, FX 02-3426-7502
book@kbraille.com
www.kbraille.com

점자도서 • 점자라벨도서 • 빅북

㈜도서출판 점자는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기업으로 독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알 권리, 읽을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문화·복지 확대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출판인쇄 전문 사회적 기업입니다.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양질의 대체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사회적 인신개선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Barrier Free'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출판 브랜드 'BF북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손끝으로 읽는 국정'이란 월간지를 매월 1,300부 시각장애인분들께 무료 배포중이며, 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의 다양한 점자 인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19년간 한화그룹과 고동으로 점자달력(현재까지 약 720,000부)을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개인 및 단체와 공공기간에 배포해왔습니다. 880종의 점자도서, 2,000여종의 점자라벨도서, 139종의 큰글자도서 이외에도 유아동을 위한 촉각도서와 저시력 분들을 위한 빅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함에 점자를 더한 천공명함과 UV명함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Braille Publishing Company is a social enterprise that specializes in publication and printing which was founded to improve the information accessibility, ensure the rights to know and read for print disabled people, and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culture and welfa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e have been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differentiated and high-quality alternative materials for the visually impaired and the disabled, and we established the publishing brand 'BF Books' based on the spirit of 'Barrier Free' to create a society where people live together through improvement on social awareness. Currently, we are taking the lead in ensuring the right for learning of the visually impaired without discrimination by providing convenience for learning through the project for making alternative materials for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and production of electronic braille for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enlarged books and Braille books, DAISY books, customized books and so on.

도서출판 학이사

Book Publishing Hakyisa

신중현 Shin Joong Hyeon

42699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 11안길 22-1(장동)
22-1, Munhwahoegwan 11an-gil, Dalse-gu, Daegu, korea

T 053-554-3431, FX 053-554-3433
hes3431@naver.com
www.학이사.kr

총류 • 문학 • 아동

학이사는 1954년 대구에서 창립한 종합 출판사이다. 1954년에 대구에서 출판을 시작, 이후 국내 옥편시장을 주도하던 도서출판 이상사(理想社)가 그 전신이다. 2005년에 학이사로 출판사 이름을 바꾸고 옥편과 영한사전 등의 사서류와 아동도서, 초중고교의 학습부교재와 대학교재, 작가들의 창작물과 인문서, 실용서 등을 발행해 전국의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 종이책과 e-book을 공급하고 있다.

Hakisa is a publishing company founded in Daegu in 1954, with its former body, Isangsa, which took a leading position in the publication of Chinese character dictionaries. Since its name change in 2005, Hakisa publishes a Chinese character dictionary, books for kids, supplementary textbook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riters' creative works, books on liberal arts and practical issues, and more. Its publications are available in paper book and e-book form through on- and off-line bookstores.

동아시아

43

EAST-ASIA Publishing Co.

한성봉 HAN, Sung-Bong

04629 서울시 중구 소파로 131, 남산빌딩 102호 (동아시아 출판사)
131, Sopa-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757-9724, FX 02-757-9726
dongasiabook@naver.com
Instagram : @dongasiabook

사회과학 • 자연과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동아시아 출판사는『떨림과 울림』,『아픔이 길이 되려면』 등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의 교양서를 두루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동아시아의 SF문학브랜드 '허블'은 한국과학문학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서울국제도서전을 통해 김초엽 작가의『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출간해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학키트매거진《메이커스: 어른의 과학》시리즈와《메이커스주니어》시리즈를 통해 어른과 아이 모두가 직접 만들고 배우는 과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아동청소년 브랜드인 동아시아사이언스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식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도서들을 출간해나갈 예정입니다.

East Asia Publishing Co. is publishing various books in humanities, social and natural sciences, such as *Shivering and Rumbling* and *Making Hope Out of Sorrow*. Our SF brand Hubble is hosting the Korea SF Literature Awards, published *If We Can't Go at the Speed of Light* through the SIBF in 2019, and is receiving great attention for *A thousand blue* in 2020. Both adults and children can experience science directly through science kit magazines, the *Makers* series. From 2020, East Asia Science, a children's and youth brand, will publish books that enrich children's knowledge and minds.

디지털 전시 참여사

두레출판사

44

Dourei Publication Co.

조추자 choo ja Cho

0420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4가길 4-11 1층
4-11, Mapo-daero 1 ga-gil, Mapo-gu, Seoul, Korea

T 02-702-2119, FX 02-715-9420
dourei@naver.com
https://blog.naver.com/dourei

철학 • 사회과학 • 문학 • 역사 • 아동

두레는 언론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해직된 언론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해 보려는 꿈을 가지고 1978년에 만든 출판사다. '함께', '더불어' 또는 '공동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두레'는 서로 돕고 힘을 모아 함께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고결한 이념적 지향을 담고 있다. 두레는 오랫동안 〈중국의 붉은 별〉,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불량국가〉 등과 같은 인문 사회과학 및 교양 도서를 중심으로 책을 펴내 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빨치산 수기인 〈남부군〉은 50만 부가 넘게 팔려 1980년대 후반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다. 수준 높은 인문교양 책과 더불어 〈나무를 심은 사람〉처럼 문명과 생태 · 환경 문제를 다루고, 인간이 모든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책들을 펴내고 있다.

Dourei Publishing Co. is well-known for the books that give readers intellectual and mental gratification. Ever since its founding in 1978 Dourei has published many books especially associated with ecology &environment, humanities, culture, history, social science such as "Long walk to freedom" by Nelson Mandela, and "The red star over china" by Edgar Snow. Some of the books had influence on people and contributed to pro-democracy movements of Korea.

(주) 디앤씨미디어

45

D&C MEDIA Co.,Ltd.

신현호 SHIN HYUNHO

0839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503호
J&K digital tower 503, 111, Digital-ro 26-gil, Guro-gu, Seoul, Korea

T 02-333-2513, FX 02-333-2514
lina@dncmedia.co.kr
http://dncmedia.co.kr

각종 장르 소설 • 웹툰 단행본

(주) 디앤씨미디어는 판타지/무협, 로맨스, 라이트노벨 등의 장르 서적을 기획, 출판,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수의 킬러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도서로 출판하여 공급할 뿐만 아니라 출판된 콘텐츠를 전자책(e-Book)으로 발행하여 다수 플랫폼에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모바일 또는 PC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소설 및 웹툰 IP(Intellectual Property)가 중심이 되는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의 근간이 되는 IP를 확보하고, IP를 활용한 웹툰, 영상, 게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C MEDIA plans, publishes, and distributes genre fiction such as fantasy, martial arts, romance and light novels. We create various killer content and provide them not only by publishing books but also providing e-books on numerous internet platforms, so as the readers to be able to use the content via mobile or computers. Also, we try to expand our business to secure web novels and webtoons and producing webtoons, films, games etc. As IP (Intellectual Property) is key to content business.

디지털 전시 참여사

디자인이음

46

designEUM

이상영 Lee Sang Young

0304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4길 20 이음빌딩 501호
20, Jahamun-ro 24-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723-2556, FX 02-723-2557
designeum@naver.com
https://blog.naver.com/designeum

예술 • 문학 • 매거진

디자인이음 출판사는 〈킨포크〉와 〈베어매거진〉, 〈청춘문고〉 시리즈, 그리고 〈당신의 글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리타의 정원〉 등의 단행본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순간, 행복한 일, 창의적인 작품들을 기록합니다.

DesignEUM shares the daliy lives, emotions, and culture. We display positive and emotional practical books with classical literature that has been loved over generations. We also bring out renewed books wrote by authors of independent publishers.

디자인하우스 47

Design House, Inc

이영혜 Lee Young Hye

04617 서울시 중구 동호로 272
Designhouse, Dongho-Ro 272, Jung-Gu, Seoul, Korea

T 02-2262-7214, FX 02-2275-7884
ssmoon@design.co.kr
http://mdesign.designhouse.co.kr

예술 • 언어 • 아동 • 학습참고 • 디자인 분야

디자인하우스는 디자인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인 문화, 예술, 지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미디어 기업입니다.

Design House Inc. is a media company that produces Korea`s leading print, digital, video and social brands. Based on design thinking, our rich content, dynamic events and data services entertain and educate all the lifestyle sectors. Design House is the way creative influences are informed, connected, and inspired.

딥앤와이드 48

Deep and wide

이현중, 신하영 Lee hyun jung, Shin ha young

0397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53-3 사울빌딩 302호
302, 21, Seongmisan-ro 1-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10-5022-1523
deepwidethink@naver.com
https://instagram.com/deepwide.official

예술 • 문학 • 매거진

안녕하세요. 깊고 넓은 책을 만드는 딥앤와이드 출판사입니다. '진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작가와 독자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Hello, I'm Deep & Wide Publishing House that makes deep and wide books. I want to be a bridge that connects writers and readers with the keyword 'truth'.

따스한 이야기

49

Touching Story publisher

김현태 Kim, Hyun Tae

12187 경기도 남양주시 녹촌로 87-29
103-1003, Nokchonro 87-29 Namyangjucity Gyeonggi-do, Korea

T 070-8699-8765, FX 02-6020-8765
jhyuntae512@daum.net
Instagram : @touchingstory512r

종교 • 예술 • 육아

따스한 이야기는 독자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출판사입니다. 잊었던 추억과 사랑을 찾아주고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주는 출판사입니다.

Touching Story Publisher is a publishing company cooking chicken soup for your soul and body. We help you regain your dear memories and love making your future happier and brighter.

뜨인돌 출판사

50

Danielstone Publishing

고영은 young-eun Goh

10881 경기 파주시 회동길 337-9
337-9,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10881, Korea

T 02-337-5252, FX 031-947-5868
smy9407@ddstone.com
http://ddstone.com/main/ddstone

총류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문학 • 아동

뜨인돌출판는 '분명한 뜻이 담긴 책'을 출간하겠다는 목표 아래 1994년 창립된 단행본 종합 출판사입니다. '독자들이 시대를 읽고 사유하며 행동하는' 인문서적, '삶에 위로와 힘을 주는' 비소설 서적,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청소년 서적, 그리고 '꿈 · 도전정신 · 지혜를 키워 주는' 어린이 서적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서로는 700만 부 이상 판매하며 세계 4개국에 저작권을 수출한 국내 최고의 에듀테인먼트 도서 〈신나는 노빈손 시리즈〉, 다보스포럼의 세계 지도자들이 추천한 리더십의 교본 〈어니스트 섀클턴 시리즈〉, 청소년 도서 시장에 새 장을 연 『십대를 위한 어휘 교과서』『나의 권리를 말한다』, 어린이 교양의 고전 〈책벌레들 시리즈〉, 페미니즘 도서의 기원이 된 『흑설공주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새롭고 참신한 기획,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바라보는 예리한 시선,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책에 대한 애정을 갖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출판사가 되겠습니다.

Daniel's Stone was established in 1994 and has been publishing such categories as Human Science, Business and Management, and Non-Fiction for young adult, children and general readers in Korea. Daniel's Stone publish 40 titles a year and has a total title of 650.

(주) 라온아시아

51

Raonasia Corp.

백유미 Baek You-mi

0670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4길 4, 프린스효령빌딩 501호
501, 4, Hyoryeong-ro 34-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70-7600-8230, FX 02-5858-6860
raonbook@naver.com
https://blog.naver.com/raonbook8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기술과학 • 언어

(주)라온아시아의 출판 브랜드 라온북은 출판 시장의 혁신을 이끕니다. '사람에게 답이 있다'라는 철학 아래, 머릿속의 생각을 현실로 옮긴 사람, 생각하는 바를 스스로 구현해 낸 '진짜 리더'를 찾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주력합니다. 이는 출판사 중심이 아닌 고객과 저자 중심의 출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저자를 발굴하며 세상의 변화보다 한발 앞서 움직여, 오늘 읽고 배워서 내일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진짜 지식, 진짜 경험'을 출판합니다. 라온북의 책들을 통해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현장 고수들이 발굴되고, 그들이 가진 생생한 콘텐츠가 많은 사람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용 지식을 제공하는 라온북의 콘텐츠를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Raon Books, a publishing brand in Raon Asia, is driving innovation in the publishing market. Under the philosophy of "people have answers," we focus on finding a "real leader" who embodies what we think, developing and creating content. Raon Books publishes 'Real Knowledge, Real Experience' that works fast and discovers authors in new ways. Raon Book's books reveal the world's unknown field masters, and the vivid content they have is being introduced to many people. Through Laon Book's contents that provide practical knowledge, we will all find a new way of life.

(주) 리스컴

52

leescom

이진희 Jeanhee Lee

06349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26길 17-1, 수서현대벤처빌 1427호
#1427, 10, Hyundai Venture Vill, Bamgogae-ro 1-gil, Gangnam-gu, Seoul, Korea

T 02-540-5192, FX 02-540-5194
master@leescom.com
http://leescom.com
https://blog.naver.com/leescomm

아동 • 학습참고 • 실용(건강, 요리, 취미)

도서출판 리스컴은 트렌디한 감각의 여성 실용서와 아동 대상 단행본, 성인을 위한 교양서 등을 발행하는 전문 출판사입니다. 리스컴은 요리, 건강, 여행 분야 등의 다양한 실용서를 출판합니다. 보다 풍요롭고 감각적인 삶을 위해 길잡이 역할을 해내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이책은 리스컴의 인문·아동서 브랜드로 아동과 성인을 위한 다양한 교양도서를 출판합니다. 교양과 학식을 살찌우는 도서를 통해 세상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창이 되겠습니다. 에르디아는 'Ernst Dialog(진실한 대화)'의 약자로, 리스컴의 인문·문학 분야 브랜드입니다. 진실을 담은 책, 마음을 살찌우는 책들로 독자 여러분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LEESCOM pursues flavor and lifestyle. The main areas of focus are cooking, health, travel, caring for children, etc. We have published many practical books of continuous sales. LEESCOM provides knowledge and wisdom of the everyday life through their book brands; "LEESCOM" publishes book on lifestyle, "ERDIA" publishes book on human document and "JONG-I CHAEK" publishes children's book.

리텍콘텐츠 출판사

53

Ritec Contents

김창수 C.S. kim

04366 서울 용산국 원효로162 세원빌딩 6층
606 162, Wonhyo-ro,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2051-0311, FX 02-6280-0371
ritec1@naver.com
www.ritec.co.kr

철학 • 사회과학

리텍콘텐츠 출판사는 자기계발, 마케팅, 세일즈, 긍정심리 , 명언, 대화법, 인간관계, 감성 관련 책을 출판합니다. 감사합니다.

REITEC Content Publishing Company publishes books on self-improvement, marketing, sales, positive psychology, saying, conversational methods, relationships, and emotions. Thank you.

마음이음

54

Mindbridge Publishing Company

정혜숙 Jung Hyesuk

03925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400 서울출판산업진흥원
#6, 400 Worldcup Buk-ro (1602 Sangam-dong), Mapo-gu, Seoul, Korea

T 010-5354-8869, 070-7570-8869, FX 0505-333-8869
ieum2016@hanmail.net
https://blog.naver.com/ieum2018

문학 • 아동 • 학습참고

단절된 마음들을 책으로 잇고 싶은 마음이음 출판사는 2017년부터 책을 펴내기 시작한 어린이·청소년책 전문 출판사입니다 : 초등학생을 위한 창작동화 시리즈 '마음 잇는 아이', 초등학생을 위한 교양 학습 시리즈 '지식 잇는 아이', 장애 인식 개선 동화를 비롯하여 사회 쟁점들을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창작동화 시리즈 '함께하는 이야기', 청소년 문학, 인문 시리즈 '마음틴틴'.
마음이음 책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책, 자신과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가치 있는 책들을 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indbridge publishing Company, which wants to connect disconnected minds with books, specializes in children and youth books since 2017. Here is the representative series of Mindbridge publishing Company : Story books for elementary schoolers; Children connecting the mind; Books for learning for elemantary schoolers; Children connecting knowledge; Story books about improving awareness of disabilities and social issues for elementary schoolers, The story of all of us; Literature for young readers, Humanities books series 'Mind Teen Teen'. We will do our best to publish books that are essential for children and teenagers and valuable books that help them become good people for themselves and others.

머스트비

55

mustb

박진영 Jean-Young Park

10881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2 303호
303ho, 12, Simhaksan-ro, Pa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 031-902-0091, FX 031-902-0920
mustb0091@naver.com
https://blog.naver.com/mustb0091

아동

머스트비 출판사는 종이책이 가진 문화적 역량과 생명력, 그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였으며, 편집, 영업, 기획 분야 등 출판 업계에서 종사해온 출판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종이책에 대한 믿음과 꿈을 실현코자 2012년 설립되었다. 현재는 독서의 기초를 쌓아갈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물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중보다 한발 앞선 시각과 생각의 깊이를 더해줄 양서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삶의 지침이 되어줄 실용서, 나 자신의 끝없는 나아감을 위한 자기계발서, 마음의 치유와 휴식을 주는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의 출판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인정받는 양서를 보급함에 앞장서 세계화에 걸맞는 깊이 있고 다양한 시각의 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되새겨 한순간 이슈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될 책, 세대를 아울러 영원히 남을 책을 대중에게 선물하고자 한다.

Must B publishing company is thinking the cultural value and the vital force that the paper books have must be preserved. The must B was founded by people who have worked in the field of publishing for editorial, sales and planning departments with hopes of preserving the paper books. We plan to publish various good books that will deepen the thoughts of the general public like the how to books that can give helpful guides, children books that can build a good reading foundation for the kids, business and management books that shows the flow and the trends of the society, self-help books that will help us to constantly grow and essays that can make our souls to be at peace. Above all, we will take initiative in supplying recognized valuable works from overseas to present diverse views on issues to meet the globalizing society. Also, we want to make easy and enjoyable books for readers who find reading difficult. We believe that it is the duty and the responsibility of publishers to create various projects and introduce valuable books. Therefore, we will do our best to keep these goals in mind.

(주) 모두커뮤니케이션즈 56

MODU Communications INC.

최승식 CHOI SEUNG SIK

0721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V1센터 E동 1408호
#1408 E 11, Dangsan-ro 41-gil,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6377-0516, FX 0502-013-1318
modu@modu1318.com
www.modu1318.com

학습참고 • 진로진학

(주) 모두커뮤니케이션즈는 청소년 진로 관련 월간지 <MODU>를 발행하는 매체사입니다. 월간지 <MODU>발행과 함께 진로관련 단행본 제작, 대학 홍보책자 기획 및 제작, 공공기관 및 지자체 발주 홍보책자 제작, 영상 콘텐츠 기획, 마케팅을 진행하는 전문 미디어사입니다. (주) 모두커뮤니케이션즈에서 발행되는 <MODU>는 국내 최초의 진로 전문 매거진으로 2011년 6월에 첫 발행 후 창간 9주년을 맞이하며 전국 25% 이상의 학교에서 진로교육 교과서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MODU>는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유용한 정보로 쓰일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 멘토 인터뷰, 다양한 직업 소개, 학과 정보를 비롯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인문·예술·패션 등의 청소년 맞춤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모든 제약과 장벽을 넘어 인생의 진로와 꿈을 찾도록 응원하는 <MODU>는 전국 중·대형 서점,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MODU Communications INC. is a media company publishing a monthly magazine <MODU> of teenagers' future careers. Our businesses vary widely from publishing <MODU>, career books, catalog for University/College/Corporation/Governments, and developing media content to planning a marketing strategy for clients. <MODU>, founded in June 2011, is Korea's first career exploration magazine. This year marks the 9th anniversary of <MODU>. Now it is the main resource for career path class in 25 percent of schools in Korea. <MODU> focuses on giving valuable information for teenagers to find their prosperous future: interviews with mentors of various industry sectors, job-specific skills, college major introduction, and breaking news on culture, fashion, and arts. The magazine is providing supports for youths to overcome all barriers and find their successful career paths and visions. <MODU> is available on local and large bookstores and various types of online store.

목수책방

57

Moksu Publishing Company

전은정 Jun Eun Jung

05771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6길 16 102-601
102-601. Ogemro56gil 16, Songpagu, Seoul, Korea

T 070-8151-4255, FX 0303-3440-7277
moonlittree@naver.com
https://post.naver.com/my.nhn?memberNo=29506376

사회과학 • 자연과학 • 문학

목수책방은 '생태'를 주제로 한 책을 주로 펴내는 출판사입니다. 2014년에 출판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자연, 환경, 유기농 등을 주제로 한 20여 종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2019년 말에는 책과 멀어지고 있는 요즘 사람들에게 다시 '읽기'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고, 종이책의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글을 소개하는 새로운 에세이 시리즈도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라는 단순한 사실을 쉽고 흥미롭게 전하는 일, 우리 주변의 자연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책, 그래서 인간이 다양한 종이 공존하는 생태계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책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MOKSU Publishing Company has been publishing books about ecology. Nature, organic farming, human beings and the way of living a sustainable life are the main concerns of MOKSU. MOKSU believes that everything and everyone in this world is interconnected and interacted. The fact that we can save others and be saved by others since we are all interconnected is one of the themes MOKSU wants to publish. MOKSU also publishes books that help people become intimate with nature, and encourage people to live as responsible members sharing the same planet with other creatures. Since 2019, MOKSU has published a new series of essays that remind people of the joy of reading. MOKSU has always been interested in nature, ecology, environment, and organic farming and will continue to publish good, enjoyable and necessary books for everyone.

몽실북스

58

MONGSILBOOKS

주연지 JU YEOUNJI

08859 서울 관악구 난향7길 52
52, Nanhyang 7-gil,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10-8962-7467, FX 02-6008-8970
mongsilbooks_kr@naver.com
http://naver.me/FtgGshNA

문학

몽실북스는 추리와 미스터리 등 장르문학을 주로 출판하는 출판사로서 츠지무라 미즈키의 [아침이 온다]와 야쿠마루 가쿠의 [신의 아이] 같은 일본문학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한국 장르문학에도 지경을 넓혀 출간하고 있습니다. 대표작 [살롱 드 홈즈]는 내년 하반기 방영될 드라마 작업 중에 있으며 모든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영상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 주연지는 책에 미쳤던 독자로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직접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작지만 강한 출판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책을 만들고 판매하는 책에 의한, 책을 위한 책쟁이입니다. 몽실북스는 책을 좋아해서 책으로 무엇이든 해보자 하는 블로거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몽실북클럽(cafe.naver.com/mongsilbook)과 함께 합니다. '책'이라는 공통되는 소재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고 몽실북스 신간이 나오면 카페 회원들이 적극 지원하고 응원해 주는 등 독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출판사라고 자부합니다. 현재까지 총 17권을 출간하였습니다. 임프린트로 라테를 함께 운영 중입니다.

문학동네

Munhakdongne Publishing Group

염현숙, 김소영 Yeom Hyeon-sook, Kim so-young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10
210,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 031-955-3576, FX 031-955-8855
jmh1500@munhak.com
www.munhak.com

사회과학 • 예술 • 문학 • 역사 • 아동

신생의 기운으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곳, 새롭고 신선하며 탄력이 넘치는 곳, 문학 본연의 아름다움과 문학의 자존을 지켜나가는 출판사입니다. 1993년 12월 첫걸음을 내디딘 문학동네는 문학 전문 계간지『문학동네』를 창간하며 한국문학의 지형도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이후 역량 있는 신인작가들을 발굴하고 당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펴냄으로써 한국 문단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문학동네는 해외의 우수한 작품과 뛰어난 작가들을 소개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엘리네크, 토니 모리슨, 쿳시, 르 클레지오, 파트릭 모디아노, 요사, 모옌, 앨리스 먼로, 알렉시예비치를 비롯하여 무라카미 하루키, 필립 로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코맥 매카시, 로맹 가리, 이언 매큐언, 미셸 우엘벡, 살만 루슈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그리고 마법의 이야기꾼으로 불리는 파울로 코엘료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작가들의 작품은 물론 '문학동네세계문학전집'을 통해 시대를 뛰어넘어 검증된 세계의 고전들을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Munhakdongne Publishing Group, Established in 1993. Munhakdongne Publishing Group started with publishing literature, and now we present a wide variety of publishing areas including general non-fiction, art, science, children's books, and graphic novels. Munhakdongne Publishing Group currently consists of 24 imprints and subsidiaries, publishing 500-600 new books every year.

Mongsil Books is a publishing company that mainly publishes genre literature such as detective and mystery, and has recently expanded its scope to Korean genre literature, including popular Japanese literature such as Mizuki Tsujimura's [Morning is coming] and Kaku Yakumaru's [God's Child]. The representative work [Salon de Homes] is currently working on a drama set to air in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and aims to visualize the works of all Korean artists. Ju Yeonji is a CEO who was a crazy reader about books. She founded it with the idea of making her own favorite book and is running it which is a small but strong. She is a bookkeeper for books by books that make and sell books from the perspective of readers. Mongsil Books is joined by Naver Cafe Mongsil Book Club (cafe.naver.com/mongsilbook), where bloggers who like books and want to do anything with books are gathered. There are many people who communicate with the common theme of "books," and whenever a new edition of Mongsil Books comes out, they become active supports and supports. We have published a total of 17 books so far. books so We're operating a latte together as an implant.

문학세계사

60

Munhaksegyesa

김종해 kim jongae

04087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9-1
59-1, Sinsu-ro, Mapo-gu, Seoul, Korea

T 02-702-1800, FX 02-702-0084
munse_books@naver.com
www.msp21.co.kr

예술 • 문학 • 아동 • 인문 • 자기계발

1979년에 창립하여 창사 41주년이 된 문학세계사는 문학, 철학, 역사, 예술, 종교 등 1,000여 종에 이르는 장르의 도서들을 간행했습니다. 다수의 창작 시집들과 문학 연구서, 그리고 시인 연구서들은 오늘의 한국 문학사의 지층을 두텁게 만들어주었고, 삶에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책을 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책들로는 세계문학의 고전인 『북회귀선』과 『오페라의 유령』을 비롯하여, 한국 현대사의 처절한 비극을 생생하게 그린 『하얀 국화』, 나태주 시인의 『엄마가 봄이었어요』 등 대중성과 문학성을 두루 갖춘 책들을 출간하여 왔습니다. 또한 30년 동안 매년 신춘문예 당선시집을 출간하고 있고, 문공부 선정도서, 한국일보 출판문화상 수상도서, 청소년 권장도서로 추천된 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Founded in 1979, Munhaksegyesa has published more than 1,000 titles in a wide range of fields, from literature to history and art. Munhaksegyesa has been committed to publishing books of quality that comfort the lives of those who read them. Its original poetry books, literature studies and poet studies have enriched South Korean literature. Munhaksegyesa has published a collection of poetry winning poetry every year for 30 years and have a number of recommended books.

므와 프레스

61

mwa press

한수지 Suzi Han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503, 3층
3F, 503,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 010-7144-9122
hellomwa.kr@gmail.com
www.mwa.kr

예술

mwa press는 작가 이경민과 큐레이터 한수지가 함께 운영하는 출판사이자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책이라는 매체를 동시대 예술의 공유와 전달을 위한 대안적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출판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형태적 특징에 주목하여 '작업물로서의 책'을 출판합니다. 연 2회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아티스트의 기존의 작업을 책의 형식으로 확장함으로서 이 형태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시화 시키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mwa press는 출판 이외에도 아트스페이스 휴의 1층 공간에 '작품으로써의 책과 전시'를 위한 전시공간 'side step'을 운영하고 있으며, 워크샵 및 출판과정을 담은 간행물 'crank magazine'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Art book publisher and platform dedica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ext, visual culture, art production and the book. We run our own space 'side step' for artist book and related art project and pulblication 'crank magazine'.

민음사

62

Minumsa Corp

박근섭, 박상준 Park Geun Seop, Park Sang Jun

0602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6번지 강남출판문화센터 6층
6F Gangnam Publishing Culture Center 62, Dosan-daero 1-gil,
Gangnam-gu, Seoul, Korea

T 02-515-2000, FX 02-515-2007
sangjunpark@minumsa.com, gs@minumsa.com
http://minumsa.com

총류 • 철학 • 예술 • 문학 • 역사

1966년 5월 19일, '백성의 소리를 올곧게 담는다.'라는 뜻의 '민음사'가 출판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54년의 역사 동안 민음사는 인문학적 가치를 함양하고, 새로운 이야기와 젊은 작가를 발굴하며, 새로운 세대의 독자와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민음사는 품격 있고 정확한 번역과 정제된 목록으로 고전의 기준이 된 〈세계문학전집〉을 필두로 오르한 파묵, 가즈오 이시구로, 무라카미 하루키, 올가 토카르추크 등의 세계적인 작가를 국내에 알립니다.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를 통해 한국의 젊은 작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의성 있는 문학을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82년생 김지영』, 『보건교사 안은영』, 『딸에 대하여』 등의 작품을 해외에 번역 수출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일조했습니다. 또한 제러미 리프킨 등의 해외 석학의 저서는 물론 동양 고전을 꾸준히 출간하여 한국 출판의 지적 축대 역할을 하였으며, 오랜 역사의 〈세계시인선〉으로 시 독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음사는 굳건한 전통과 신선한 감각 그리고 깊은 사유를 토대로 작가와 독자를 연결하는 열린 플랫폼이자, 출판 문화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Minumsa, meaning "a mouthpiece for people's voices", took its first steps as a publisher on May 19, 1966. Minumsa has been constantly striving to cultivate humanities values, discover new stories and young writers, and meet a new generation of readers during the 54 years of its history. Minumsa introduces world-renowned writers such as Orhan Pamuk, Kazuo Ishiguro, Murakami Haruki, and Olga Tokarczuk who are headed by the <The Complete Collection of World Literature>, which became the standard of classics with a reputation for refined and accurate translations and refined lists. The publisher actively discovers young Korean writers and delivers topical literature to readers through the <Young Writers of the Year> series. It contributes t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by translating and exporting works such as KIM JIYOUNG, BORN 1982, SCHOOL NURSE AHN EUNYOUNG, and CONCERNING MY DAUGHTER. In addition, it serves as an intellectual foundation for the publishing business in Korea by steadily producing books by foreign pundits such as Jeremy Rifkin as well as oriental classics that have been handed down. <The Selection of World Poets> of many decades is consistently loved by poetry readers. Minumsa will continue to play roles as a pioneer in the publishing culture and as an open platform connecting writers and readers based on the solid tradition, fresh insight, and deep thoughts.

(주) 민음인

63

Minumin

박근섭 Park Geun-seop

06207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5th floor, 62 Dosan-daero 1-gil, Gangnam-gu, Seoul, Korea

T 010-3849-4786, FX 02-515-2007
km7823@minumsa.com
http://minumin.minumsa.com

문학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멀티미디어의 발달이 가져온 지식 혁명의 시대는 이제 20세기와 사뭇 다른 새로운 교양인을 요구합니다. 민음사 그룹의 새 출판 브랜드로 2006년 첫발을 디딘 민음인은 변화된 현실에 발맞춘 지식의 프론티어로서 활동하는 생활인과 청소년 독자들에게 좋은 책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지적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자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The era of the knowledge revolution brought about by the development of various multimedia including the Internet now requires a new cultured person who is quite different from the 20th century. Min Eum-in, who first started in 2006 as a new publishing brand of the Minumsa Group, aims to provide good books to living and youth readers who are working as a frontier of knowledge in line with the changed reality. The goal is to reinterpret the intellectual cultural heritage of the past and actively discover and publicize the children needed in the new era.

(주) 밀리의 서재

64

Bookclub millie

서영택 Stanley Seo

039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안산로 76 YTN 뉴스퀘어13층 밀리의서재
13F, 76, Sangamsan-ro,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10-8896-4567
business@millie.town
www.millie.co.kr

기타(전자책 정기구독 독서플랫폼)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더욱 가치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있도록 더 쉽게, 더 편하게, 더 재미있게 독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국내 최대 독서플랫폼입니다.

'Bookclub millie' is Korea's largest reading platform. It suggests a lifestyle of reading more efficiently, more conveniently, and more excitingly to fill everyone's meaningful life with more valuable things.

바른북스

65

barunbooks

김병호 kimbyungho

04782서울 성동구 연무장5길 9-16, 301호(성수동2가, 블루스톤타워)
9-16, Yeonmujang 5-gil, Seo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10-2949-9719, FX 070-7610-9820
barunbooks21@naver.com
www.barunbooks.com

총류

바른북스는 '투명하게, 믿을 수 있게'를 추구합니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언제나 정직한 자세로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려 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The Barun Books pursues 'transparent, reliable'. I try to communicate constantly with the mindset that I always put trust first and always be honest. I will do my best for a better tomorrow than today.

(주) 박영사

66

Parkyoung Publishing Co., Ltd

안종만, 안상준 Ahn Jong Man, Ahn Sang Joon

08588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210호
#210, 53, Gasan digital 2-ro, Geumcheon-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733-6771, FX 02-736-4818
pys@pybook.co.kr
http://www.pybook.co.kr

사회과학

박영사는 1952년 대중문화사로 창업하여 어학, 인문학, 공학, 법학, 경제학 등 학술전문서 및 교양도서를 꾸준히 출판하고 있는 67년 전통을 가진 국내의 대표적인 출판사입니다. 학술분야를 넘어 인문학, 스포츠학, 반려동물 등 새로운 분야의 도서를 출판하면서 분야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책은 인류의 진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양서를 만들고 있으며, 오랜 전통과 함께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출판의 방향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회사로 ㈜피와이메이트가 있으며, 최근 이러닝 사업에 진출하여 'PY러닝메이트'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Parkyoung Publishing Company was founded on November 18, 1952 and has been growing with the Korean history as a publishing company for the last 64years. More than 4,200 scholarly books have been published, while foreign book distribution and translation are also being actively published today. We are focused on providing outstanding proven theory and information to readers. Our company is aimed to publish books that readers want, and that simultaneously enhances the value of our readers. Parkyoung Publishing Company will continue to grow with intellectual readers like you.

박이정출판사

67

pagijong press

박찬익 park chan ik

12918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미사센텀비즈7층 F749호
F749, 45 Jojeong-daero, Ha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 031-792-4522, FX 02-928-4683
pijbook@naver.com
http://pijbook.com

언어 • 문학 • 국문학 • 국어교육 • 한국어

박이정출판사는 1989년 '넓이(博)'와 '깊이(精)'가 있는 책을 만든다는 취지로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계승·발전시킨다는 보람으로 31년간 꾸준히 어문학 분야 출판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1,622종을 출판했으며, 이들 도서 중 150여 종이 정부선정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본사에 옥고를 주신 저자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후원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박이정출판사는 2014년 법인회사 (주)박이정출판사로 전환하여 미래 경영 전략으로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Park Yi-jeong Publishing House made a book with a view to creating a book with width and depth in 1989. And 31 years to study, inherit, and develop our language and writing. I have been publishing the field of language literature steadily. As a result, 1,622 species have been published. More than 150 of these books have been selected as the government's best books. These achievements are to be seen. It's the result of dedicated support from both the authors and readers who gave us the death penalty. Here we go. Park Yi Jung Publishing Co., Ltd. switched to Park Jeong Publishing Co., Ltd. in 2014 and its future management strategy. We are raising the company's awareness with.

밝은미래

68

Balgeunmirae Publishing Co.

도승철 Do Seung Chul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55-2, 4층
4F 455-2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Korea

T 031-955-9550~3, FX 031-955-9555
bmirae@bmirae.com
www.bmirae.com

문학 • 아동

밝은미래는 2005년 5월 어린이책 출판사로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창작동화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그림책, 어린이 소설, 지식 정보책, 학습만화, 그래픽노블 등 다양한 어린이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KBS TV 프로그램 '위기탈출 넘버원'을 어린이 학습만화로 만들어, 어린이 안전 교육에 커다란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내 창작 도서들을 개발하여 세종 도서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선정 및 추천되고 있고, 〈엘 데포〉 〈안녕, 우주〉 같은 해외 유명 수상작들도 출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이들이 행복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어린이 책을 출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Balgeunmirae Publishing Co. has mainly published children's books since May 2005. We have published more than 350 fictions, non-fictions, information books, learning cartoons, graphic novel and etc. We publised <No.1 Safety> series which adapted KBS's TV program of the same name as a learning cartoon in 2006. This series have been a best-seller for almost 10 years. And a number of books which we published have won awards from various institutions. We have strived to give bright mind and good knowledge to the children, and we will continue to do so far.

(주) 백도씨

69

Bacdoci.inc.

이규상 Lee Kyu Sang

03044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7길 23 3층
23rd Hyoja-ro 7-gil, Jongno-gu, Seoul, Korea

T 02-3012-0117, FX 02-3012-3010
gogodon@100doci.com
https://instagram.com/100doci

사회과학 • 예술 • 문학 • 육아 • 취미

(주) 백도씨는 2007년 7월에 설립된 회사로 '독자와 소통하는 감성을 담은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입니다. 뜨거운 열정, 독창적인 디자인, 색다른 콘텐츠가 만나 독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풍요로움을 선사하겠다는 목표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20~40대 여성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한국의 출판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독특한 포지셔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세이, 예술, 인문, 사회, 디자인, 요리, 취미, 자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매해 20~30여 종의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감각과 젊은 감성으로 출간되는 책은 독자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으며, 기존 출판사에서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젊은 독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 출간 즉시 중국, 대만, 일본, 태국 등 해외 출판사로부터 판권 문의를 받고 있으며, 전체 출간 종수 중 1/3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Founded in 2007, Bacdoci. Co., Ltd. has been publishing more than 20~30 titles per year, in various categories; non-fiction, arts, humanities, self-help, design, Cookbooks, Crafts, Hobbies & Home, education & teaching. The company aims to present for readers a valuable and passionate lifestyle. Bacdoci. Co., Ltd. is renowned for its trendy and touching contents with high quality of book design. The appeal of its publications combined with bright marketing idea makes readers fresh. As a book is published, soon after, we got called from overseas publishers, including China, Taiwan, Japan and Thailand about its right. And the company has been exported publication rights more than 1/3 in entire publications.

디지털 전시 참여사

(주) 볼드피리어드

70

Bold Period

김치호 Chiho Ghim

04768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8층 801호
G801,115,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Korea

T 02-3446-0691, FX 02-3446-0690
ask@boldperiod.com
http://boldjournal.com

잡지

볼드피리어드는 건강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브랜드를 돕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이자, 의미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미디어 컴퍼니입니다.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의 전 영역을 대담하고 진지한 시각으로 관찰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좋은 가치를 재발견하여, 보기 좋은 브랜드와 다양한 미디어로 변환하는 일을 합니다.

We are a media company that produces purposeful contents, a creative partner to help your company and brand pursue healthy values. We observe all aspects of business and lifestyles with a bold and genuine angle, rediscover the hidden goodness behind the phenomenon seen through the eyes and transform it into exceptional brand images and diverse media.

봄개울

71

Bomgaeul book

박우일 Park Wooil

24468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충효로 750-12
750-12, Chunghyo-ro, Nam-myeon, Chuncheon-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T 033-263-2952, FX 0303-3130-2952
bomgaeulbook@naver.com
http://blog.naver.com/bomgaeulbook

아동

봄개울은 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책을 펴내는 출판사입니다. 봄개울은 행복한 꿈이 담긴 책을 만듭니다. 봄개울은 나와 너와 우리가 소통하는 책을 만듭니다. 봄개울은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가치를 키우는 책을 만듭니다. 봄개울은 봄햇살 아래 책 읽는 소리가 졸졸졸 흐르는 세상을 꿈꿉니다.

Bomgaeulbook is a publishing company that publishes books for infants, children and youth. Bomgaeulbook publishes the books that have dreams. Bomgaeulbook publishes the books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omgaeulbook publishes the books help shape healthy and right values. Bomgaeulbook dreams of a world where the sound of reading books under the spring sunshine.

부카

72

bookaa

이웅현 Lee OungHyen

42699 대구시달서구 월서로 14 102/503
165, munhwahoegwan-gil, dalseo-gu, daegu, korea

T 010-2610-3671, FX 053-639-1912
bookaa@hanmail.net
https://blog.naver.com/valleyboy

사회과학 • 예술 • 문학 • 아동 • 종합출판

특허받은 동화책 보니그리니 시리즈로 출판을 시작하였다. 아동을 중심으로 종합출판을 지향하면서 대구에서 출판을 하고 있다. 출판을 시작한지 4년이 지났다. 현재 20여종의 도서를 출판하였으며 더 나은 출판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

Publication of the patented children's book Bonigrini began. It is publishing in Daegu, aiming for comprehensive publishing with a focus on children.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we started publishing. Currently, more than 20 kinds of books have been published and are working hard for better publication.

북극곰

73

bookgoodcome

이순영 Soonyoung Lee

04157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20 지하 106호
#B106, 320, Dongmak-ro, Mapo-gu, Seoul, Korea

T 02-359-5220, FX 02-359-5221
bookgoodcome@gmail.com
http://bookgoodcome.com

예술 • 문학 • 아동

북극곰은 환경 상생, 치유라는 주제로 어린이도서와 교양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북극곰은 국내외 유수의 국제도서전 참가 등을 통해 뛰어난 신인작가 발굴에 힘쓰는 동시에 아름다운 우리 책을 해외에 소개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극곰의 도서들은 여러 기관의 추천을 받으며 컨텐츠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호평받고 있습니다. 대표작인『까만 코다』와『북극곰 코다, 호』는 우리 작가 이루리가 글을 쓰고 베르토시가 그림을 그린, 한국과 이탈리아 협력 작품으로 터키, 태국, 프랑스, 베트남, 스페인 등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북극곰은 아름다운 책을 매개로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BookGoodCome is home to children's books and fiction about healing and living in harmony with the environment. We devote ourselves to discovering talented new writers and sharing quality books with the world. Our publications have been recommended by numerous respected organizations and acknowledged for their excellent content and aesthetic illustrations. They have also been well received by international readers. Our flagship publications, Black Noses and The Warm Breath, ar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works written by Korean author Rury Lee and illustrated by Italian artist Emanuele Bertossi. They are celebrated in Turkey, Thailand, France, Vietnam, and Spain. We are dedicated to creating a beautiful and exuberant world with quality books.

(주) 북노마드

74

booknomad

윤동희 Yun Dong Hee

080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80 1층, 102호
280, Mokdongseo-ro, Yangcheon-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322-2905, FX 02-326-2905
booknomad@naver.com
www.booknomad.co.kr

총류 • 철학 • 예술 • 문학

북노마드는 시각문화, 여행, 에세이를 자유롭게 가로지르며 삶의 장소와 감성을 관찰하는 1인출판사입니다.

Booknomad is a one-man publisher that freely crosses visual culture, travel, and essays and observes the place and sensibility of life.

(주) 북하우스 퍼블리셔스 75

Bookhouse Publishers Co.

김정순 Kim Jeong Soon

04043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길 16-9 북앤빌딩 3층
16-9, Yanghwa-ro 12-gil, Mapo-gu, Seoul, Korea

T 02-3144-2553, FX 02-3144-3121
editor@bookhouse.co.kr,
http://bookhouse.co.kr/

철학 • 자연과학 • 예술 • 문학 • 역사

(주)북하우스 퍼블리셔스는 인문·사회과학·예술·문학·실용·자연과학 등 다양한 성격의 도서 1000여 종을 출판한 종합 출판사입니다.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책을 통한 성장, 도전, 자유를 추구해왔습니다. 《지식ⓔ》 시리즈, 《책은 도끼다》, 《여덟 단어》, 《생각의 기쁨》 등 감각적이면서도 인문학적인 통찰을 선보인 인문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 《제주 올레 여행》,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주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등 다수의 비소설 베스트셀러를 펴냈습니다.

Bookhouse Publishers Co., Ltd. is a comprehensive publishing company that has published over 1000 books of various personalities such as humanities, social sciences, arts, literature, practical and natural sciences. Founded in 1997, it has been pursuing growth, challenge and freedom through books. In addition to humanities bestsellers that showed sensational and humanistic insights, there are many non-fiction bestsellers such as *What I Know for Sure, The World I Wanted to See, Jeju Olle Travel, The Wind Will Bring Us to You, So Can You*.

불광출판사 ((주)불광미디어) 76

Bulkwang Publishing (BulkwangMedia co.)

류지호 Ryu Jee Ho

03150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3, 3층
3F, 45-13, Ujeongguk-ro, Jongno-gu, Seoul, Korea

T 02-420-3200, FX +82-2-420-3400
bulkwang_c@hanmail.net
www.bulkwang.co.kr

철학 • 종교 • 문학 • 역사 • 아동

1974년 광덕 스님이 설립한 불광출판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전문 출판사입니다.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모두 700종의 단행본을 출간해오며, 불교의 온전한 가르침과 더불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불교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불교학자의 학술서, 저명한 스님들의 논서를 중심으로 불교출판을 이끌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미디어의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전문화된 안목으로 독자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미디어 출판사로 거듭났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불교 공부의 길라잡이, 경전의 현대적 해석, 인문학으로서의 불교, 명상의 이해와 실천, 전통적인 불교 문화, 서구의 불교 흐름을 소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인성교육시리즈 그림책과 더불어 전자책, 큰글자책, 오디오북 등을 출간하며 다양한 독자층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달라이 라마, 틱낫한 스님 등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영적 지도자의 저서 및 존 카밧진, 잭 콘필드 등 해외 명상 지도자의 최신간을 통해 불교의 법과 진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바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불광출판사는 "콘텐츠로 사람을 연결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겠습니다"라는 사명을 세우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Bulkwang Publishing,which published its first book in 1979, is also a well-known Korean Buddhist publishing house, having a list of more than 500 Buddhist titles. Most of the themes are elements fundamental to Buddhism such as translations of and commentaries on Buddhist classics, Buddhist research, practice and culture. However, exploring new possibilities and opportunitie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its publications to encompass humanities, psychology, literature, health and cooking.

브.레드

77

b.read

이나래 Lee Narae

06592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9길 28
28, 29 Seochojungang-ro, Secho-gu, Seoul, Korea

T 02-6242-9516, FX 02-6280-9517
bread.narae@gmail.com
https://instagram.com/b.read_book

철학 • 사회과학 • 기술과학 • 문학 • 인문

브.레드는 철학이 있는 라이프스타일의 기록을 모토로 합니다. 생활, 미식, 공간, 환경, 여가 등 개인의 일상을 살피고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2017년 출판을 시작해, 〈나무의 시간〉, 〈정위 스님의 가벼운 밥상〉 등 일상의 가치와 아름다움, 잔잔한 사유를 선사하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B.read champions the most extraordinary human voices that echo in a familiar but profound way. We exist to fulfill sustainable life style with a firm philosophy. Since 2017, our books have shaped the broader cultural life of our society regarding gourmets, spaces, leisures, etc. Our not so long but proud history includes covers like <Time of Tree>, <The simple table of an ascetic>. We are always open to any suggestion for our ambitious future.

브로드컬리

78

Broadcally

조퇴계 Cho, Toikye

04338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7길 51-11 302호
#302, 51-11, Sinheung-ro 7-gil,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10-7426-6656
contact@broadcally.com
www.broadcally.com

총류

로컬숍 연구 잡지 브로드컬리는 편집부의 독립적인 관점에서 자영업 공간들을 연구한 결과물을 잡지의 형태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Hi, this is Broadcally. We independently research the various type of local shops and publish our studies as a form of a magazine.

(주) 비상교육

79

visang

양태회 Yang Tae-Hoe

08377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대륭포스트타워 7차 20층
48 Digital-Ro 33 Gil, 20F Daerung Post-Tower 7th, Guro-Gu,
Seoul, Korea

T 02-6970-5662, FX +82-2-6970-5797
kimdn@visang.com
https://visang.com/pageLoad?page_id=kr/main

학습참고

비상은 '변화의 기폭제'입니다. 지난 20년간 남다른 도전 정신과 공감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취적인 콘텐츠로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비상은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의 가치를 고민하고, 지식을 넘어 인성과 감성을 키우는 교육 문화 브랜드로 거듭납니다. 세계 곳곳에 K 에듀의 영향력을 전파하고, 모든 이의 행복한 경험과 성장에 기여하는 비상의 즐거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Visang is a catalyst for change. Our vision for the future of education has been crafted over the course of our 20-year history. At its heart: a spirit of challenge, partnership and empathy. Now it's time to bring the very best of Korean education to the rest of the world. Come with us. Let's make the world happier. Let's rise to the top together.

빈빈책방 (주)

80

binbin publishing

박유상 Park, Yoosang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25-12, 3층
325-12,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Korea

T 031-955-9773, FX 031-955-9774
binbinbooks@daum.net
www.facebook.com/빈빈책방-彬彬册房-278124379341411

철학 • 아동

빈빈(彬彬)은 내면의 충실함이 외형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나 안과 밖이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빈빈책방은 모든 사람이 빈빈한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이 되는 책을 출간하고자 2017년 9월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된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 교양 분야의 책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책들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에게 책을 통해 필요한 자양분을 주고자, 경제철학·역사·과학·환경·생태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형식, 장르의 책으로 구성된 올벼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철학책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BinBin (彬彬) means that the inner faithfulness is revealed as the beauty of the appearance, and the inside and outside are harmonious. The BinBin Publishing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2017 to publish a book that helps everyone live a binbin (彬彬) life. Since its establishment, we have been making books for adults in the field of humanities and culture, and book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n particular, we have published books on various topics such as economic philosophy, history, science, environment, and ecology in various forms and genres for young generations who will lead future through books. Our goal is to help them develop powerful thinking so that they can live as masters of their lives.

(주) 사이언스북스

81

ScienceBooks

박상준 Park Sangjun

06027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1길 62 강남출판문화센터
62, Dosan-daero 1-gil, Gangnam-gu, Seoul, Korea

T 070-4021-7362
webmaster@minumsa.com
http://sciencebooks.minumsa.com

사회과학 • 자연과학 • 예술

1997년 창립된 (주)사이언스북스는 민음사 출판그룹의 과학 전문 출판 자회사로 『다윈 지능』, 『인류의 기원』 등 국내 과학 필자의 글을 발굴하고 『코스모스』 등 국외 우수 과학서를 소개하며 흥미로운 과학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자 합니다. 만화/예술/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세미콜론은 2005년 창립 이래 그래픽 노블, 일본 만화 및 예술 서적 등을 소개했으며 2017년 『실버 스푼』으로 요리책 시장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취향이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믿으며 띵 시리즈 등 다양한 에세이도 출간하고 있습니다. 인문교양 브랜드 반비는 2011년 출범한 이래 '세상을 바라보는 반듯하고도 비스듬한 시선'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반듯한 힘과 비스듬한 힘을 고루 갖춘 책, 독자들의 시야를 더 넓고 깊게 해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ScienceBooks(since 1997) delivers interesting viewpoints in science with non-fiction science books and various encyclopedia series. The key writers are Carl Sagan, Stephen Pinker, Jane Goodall, Lisa Randall, Edward O. Wilson, Leonard Susskind, Yi Sukyoung, Lee Sang-hee, Kim Sang Wook, etc. SemiColon(since 2005) has successfully introduced graphic novels, comic books, and art books. SemiColon opened the market of Cookery books in 2017 with SILVER SPOON. SemiColon also publishes an essay suggesting a better life, believing that tastes make life beautiful. Banbi(since 2011) is looking for books which cover social, political and global issues, current affairs and good memoirs. Banbi's key writers are Katherine Boo, Sylvia Nasar, Sue Klebold, Rebecca Solnit, Caitlin Doughty, Sarah Smarsh, Suh Kyungsik and Hwang Doojin, etc.

(주) 사회평론

82

SahoiPyoungnon Publishing Corp.

윤철호 Yoon Chulho

03993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56 사평빌딩
56, World Cup buk-ro 6-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326-1182, FX 02-326-1626
marketer@sapyoung.com
https://sapyoung.com

철학 • 예술 • 언어 • 아동 • 학습참고

사회평론은 1991년 설립됐습니다. '용선생' 시리즈와 같은 어린이 도서를 비롯해 '난처한' 시리즈 등의 인문 교양서, 국어교육, 사회복지학, 미술사 분야 등의 교재·학술서, 'Bricks'의 영어교육 도서들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 아름다운 사람들'. 사회평론은 좋은 책이 가지는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SahoiPyoungnon is a Korean publisher founded in 1991. Since then, we have been publishing various books in a wide range of fields from liberal arts, humanities, social welfare studies, art history to children's books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materials. 'Good books, Good people'. SahoiPyoungnon believes in the good influence of good books.

(주) 사회평론아카데미

83

Sahoipyoungnon Academy

윤철호, 고하영 Yoon Chulho, Ko hayoung

03993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56 사평빌딩 4층
4F, 56 World Cup buk-ro 6-gil, Mapo-gu, Seoul, Korea

T 02-326-1182, FX 02-326-1626
academy@sapyoung.com
https://sapyoung.com

사회과학 • 언어 • 역사

대학교재·학술 분야의 산실인 사회평론아카데미에서는 국내 유수 대학교에서 국어교육 전공의 핵심 교재로 채택하는《국어교육의 이해》, 국내 최초의 고고학 입문서로 기획되어 필독서로 자리매김한《한국 고고학 강의》, 국제관계학 분야의 이론적 확장을 위한 '국제관계학 총서'와 그 첫 책인《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식민사관 청산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한국회화사 개설서《한국 그림의 전통》, 50년 한국 임상심리학의 연구 성과와 현장의 경험을 담은《최신 임상심리학》, 급변하는 한국사회와 세계의 현실을 담은 21세기형 사회복지정책 교과서인《사회복지정책론》등 각 학문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서와 교재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Sahoipyoungnon Academy prides itself of being a pathfinder for higher education and academic books. The following list of books is a portion of the publisher's remarkable books on various academic topics. Understanding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 book chosen by many prominent universities as a key textbook on the subject. Lectures on Korean Archaeology: the first and mandatory introductory textbook on the topic.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Korea: a book that pushes the boundaries of theoretical researches on international politics. The Tradition of Korean Paintings: an introductory book that brings forth the subject starting with critical views on the colonial period. Current Clinical Psychology: which includes noticeable research and practical experiences through 50-year Korean clinical psychology history. Social Services Policy: an up-to-date textbook on social services applied in the rapidly changing contemporary society.

산지니

84

Sanzini

강수걸 Kang Sugeul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우동 1466-1)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613호
BCC 613, 140, Suyeonggangbyundae-ro, Haeundae-gu, Busan, Korea

T 051-504-7070, FX 051-507-7543
san5047@naver.com
http://sanzinibook.com
https://sanzinibook.tistory.com

사회과학 • 언어 • 역사

산지니는 산에서 태어나 가장 높고 멀리 나는 매라는 뜻으로 척박한 지역출판의 환경 속에서 오래 버티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200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문, 사회, 정치, 문학 등의 분야에서 600여 종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을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로 책을 출간하고 있고 해외 저작권 수출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태국, 대만, 몽골, 홍콩, 베트남 등 판권을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한국출판학회로부터 경영 · 영업 부문 대상을 수여하였고 같은 해, 창립10주년을 기념해 산지니 직원들이 함께 집필한 국내 유일의 지역출판 생존기『지역에서 행복하게 출판하기』를 펴냈습니다.

Since its founding in 2005, Sanzini has published over 600 covers on diverse areas including humanities, social studies, political subjects, and literature. In 2015, the company received the Grand Prize in the business management and sales category at the Korean Publishing Science Society Awards, and in the same year, the company published Happy Local Publishing, which was Korea's first and only book about the survival for local publishing companies, written and compiled by the entire Sanzini employees in commemoration of the company's 10th anniversary.

삽화가들의 사랑방

85

Salon de l'Illustration

김서우 Seou Kim

12771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133-1, 101동 402호
#101-402, 133-1, Saemal-gil, Opo-eup, Gw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 070-8667-4948, FX 070-7614-3079
contact@illustsalon.com
http://illustsalon.com

예술 • 아동

그림책과 그림책 세계, 그림책 작가를 다룬 잡지 〈살롱 드 릴뤼스트라시옹〉을 발행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독창적인 그림책을 발행합니다.

We publish the magazine named <Salon de l'Illustration> dedicated to picture book creators, publishers and the devoted readers.

상상출판

86

sangsangpublishing

유철상 YOO CHEOLSANG

02566 서울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58 롯데캐슬피렌체 103동 206호
103-206 Lottecactle Firenze APT Yongdu-dong Dongdaemun-gu
Seoul South Korea

T 02-963-9891
sangsang_pub@naver.com
www.esangsang.co.kr

문학 • 여행

상상출판은 자유로운 상상과 열정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그룹입니다. '작은 상상이 큰 책을 만든다'는 모토 아래 여행자에게 친구가 되는 여행서와 알찬 정보를 수록한 해외여행 가이드북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성과 사유가 담긴 에세이는 물론 요리 전문가의 노하우를 집에서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는 레시피북, 그리고 삶의 지혜를 제시하는 자기계발서까지. 상상출판의 꿈은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도전과 열정으로 독자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Sangsang Publishing is a content creation company built on unbridled imagination and passion. Under the motto of "big books grown from seeds of imagination" Sangsang Publishing has been publishing overseas travel guide books and series that are packed with resourceful information for travelers. From essays infused with sensitivity and contemplation to recipe books with easy-to-follow instructions by professional chefs and self-help books that offer life wisdom, the dream of Sangsang Publishing continues to unfurl. Sangsang is committed to enriching readers' lives with challenge and passion, by presenting books with new content.

상생출판

87

Sangsaengbooks

안중건 Ahn jung gun

3486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79번길 68-6 3층
68-6, Jungang-ro 79 beon-hil,Ju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T 070-8644-3239, 070-8644-3156, FX 0303-0799-1735
jazzjinsu@hanmail.net
http://sangsaengbooks.co.kr

철학 • 종교 • 역사 • 입문학

상생의 문화를 여는 상생출판, 이제 웃음과 선善으로 살아갈 상생相生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생은 단순히 '더불어 잘 산다'는 공생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 인간과 자연과 뭇 생명을 살려내는 적극적 의미입니다. 인류는 상극의 원과 한을 모두 씻어버리고 인간과 자연과 문명을 상생의 도(道)로 재창조[개벽] 해야 합니다. 상생출판은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종교,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인류가 함께 나누어야 할 새로운 가치와 주제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지구촌 인류가 참 행복, 진정한 성공을 누릴 상생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는 데, 역사의 등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Sangsaeng represents peaceful and prosperous co-existence among all of humanity. Sangsaeng also encompasses a sacred duty of saving humanity, nature, and all of existence in the coming era of great epochal changes. Sangsaeng Publications offers a path to the coming world of sangsaeng ("mutual life-bettering and life-saving")-a world of joy and laughter, a world of true happiness and success for all. Sangsaeng Publications presents profound ideas, values, and visions in various fields: politics, economics, sociology, history, religion, culture, and arts.

새벽감성

88

dawnsense

김지선 KIM Ji Sun

07704 서울 강서구 강서로43길 31, 롯데타운 302호
302, 31 Gangseo-ro 43-gil, Seoul, korea

T 010-4446-9065, FX 0303-3446-4446
dawnsense@naver.com
https://blog.naver.com/dawnsense

문학 • 여행에세이

2017년 창립한 새벽감성은 소규모 출판사입니다. 여행 책, 고양이 책, 에세이를 주로 출판합니다. 새벽에 읽기 좋은 책을 만들고, 소소한 우리들의 일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 그리고 독립출판을 사랑하며, 서울에서 작은 책방도 운영합니다.

Founded in 2017, Dawnsense is a small publishing company. I usually publish travel books, cat books, and essays. We make a good book to read at dawn and tell our daily lives. Loving young writers and independent publishing, there is a small bookstore in Seoul.

새벽고양이

89

A Cat at Dawn

최수민 Soomin Choi

37303 서울 관악구 신림동 525-3 301호
197-7, Jami-ro, Dain-myeon, Uiseong-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 010-2957-2123, FX 0507-596-6315
a_cat_at_dawn@naver.com
https://instagram.com/a_cat_at_dawn

문학

새벽 감성의 새벽, 자유분방한 고양이의 고양이. 자유롭게 감성을 담아 글을 쓰는 도서출판 새벽고양이입니다. 새벽고양이는 글쓰기부터 편집, 디자인, 제작, 출판, 유통, 홍보까지 1인이 운영하는 출판사입니다. 새벽고양이에서는 독특한 형태로 숨겨진 세계 근대 문학을 발굴하여 알리는 프로젝트 메이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간 사진과 단편 소설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드립니다. 또한 사랑과 이별에 관한 시집과 강아지의 시선으로 쓴 산문집을 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가의 솔직한 생각과 감성을 담아 자유롭게 쓴 책을 세상에 내보일 예정입니다.

Dawn is a time when emotions grow. Cats mean being too free. A Cat at Dawn is a publishing company that writes freely and emotionally and was established in 2017. For Project Meiji, a flagship project by A Cat at Dawn, we attempt to (re)discover and introduce not-widely-known literary works written in the modern age of literature. There is a novel and a photo in the envelope. As soon as you open it, you'll feel like you've received a ticket to time travel. And We also publish poetry and prose books. We plan to continue publishing books with emotions freely.

생각의힘

90

Thinking Power Books

김병준 BJ KIM

040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7안길 10, 2층
2F, 10, Yanghwa-ro 7an-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6925-4188, FX 02-6925-4182
tpbook1@tpbook.co.kr
http://www.tpbook.co.kr

철학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예술 • 역사

생각의힘은 역사, 철학, 과학,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대중서 및 학술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연은,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모토 아래 지식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관계 그리고 삶을 탐구하는 책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Thinking Power Books has published award-winning books in history, philosophy, science, economics, politics, and current affairs. Following the motto of "The world, the nature and we are all connected", we try to link knowledge producers and consumers and make a contribution to lively discourses in our society.

샤이니월드 91

SHINY WORLD

조자령 CHO JALYUNG

17847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967 706-101
Pyeongtaek City vision-dong 175 Trehue apartment 706-dong 101-ho
Republic of Korea

T 010-5744-7307
jalyung@hanmail.net
www.shinyworld.kr

종교 • 예술 • 문학 • 아동 • 학습참고

2010년 설립된 꿈, 사랑, 기쁨의 영상, 출판회사 입니다.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고 실현하며 사회를 정화하며 더욱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일을 위한 도서, 음악, 영상들을 기획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출간 도서] 왕따 소년 성장소설 '왕의 궁전'. '뚜껑열린 팔방미인'. '나도 영화 만들었다'(인덕대 방송연예과 교재로 채택). '위스키잭'(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립대 한국어과 교재 채택). '행복 즐겨찾기'(영문). '이주 한국 아내로 살아남기'(국문, 영문본). '빛소녀 잔디', '로라캔', '뿡뿡소탕 잉글리쉬', '작곡 나도 할 수 있다'. '무지개'. '은혜 교회'. [2020년 신간] '꽃들과 산책'. '공룡의 신세계'. '코로나도 못말리는 우리집 fun 수학방'. [음반제작] 힐링음악 자스민의 '설레임'. '샤이니월드'. 샤이니월드는 따스한 콘텐츠로 늘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고 싶습니다.

SHINY WORLD: New publishing company of dream, love and joy, founded in 2010. We have been planning and producing books, music, and videos for people (especially children and teenagers) to realize their dreams, purify society, and create a more beautiful and good habitable world. [Published books] 'REX CASTLE' (a story about a outcast boy's growth). 'I also made a movie' (adopted as a textbook for broadcasting entertainment at Indeok University). 'Wiskyjack' (adopted Korean language textbook from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Happiness Favorites' (English). 'Surviving as a Migrant Korean Wife' (Korean, English version). 'Light Girl, Jandi' 'Lauracan,' 'Steaktang English,' 'I Can Do the Composition.' "Rainbow". "Grace Church". [2020year New Book] 'A Walk with Flowers'. 'The New World of the Dinosaur'. 'My Fun Math Room, where Corona can't stop.' [Record production] Jasmine's 'heart flutters'. 'Shiny World'. SHINY WORLD wants to be close to you all the time with warm content.

(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92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오세정 Se-Jung Oh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880-5217, FX 02-889-0785
snubook@snu.ac.kr
https://snupress.com

총류 • 사회과학 • 언어 • 문학 •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은 국내 최초의 대학출판부이자 최대, 최고의 대학출판부로 1947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약 3,000여 종의 학술서와 교재, 교양도서를 발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대한민국학술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에 가장 많이 선정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상을 수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전문지식과 교양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자책 등 출판 매체 및 지식콘텐츠 개발과 유통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SNUP) was established in 1947 with the purpose of assisting academic research and school education and promoting a publishing culture. SNUP publishes and distributes valuable intellectual products in Korean or English to promote academic development in a wide variety of disciplines,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internationally. SNUP is dedicated to innovation and adapts continually to readers' changing requirements.

세창출판사

93

Sechang Publishing Co.

이방원 Bang won, Lee

037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8(냉천동 182)
4th Fl., 182 Naengcheon-Dong, Seodaemun-Gu, Seoul, South Korea

T 02-723-8660, FX 02-720-4579
edit@sechangpub.co.kr
http://sechangpub.co.kr

철학 • 사회과학 • 인문과학

세창출판사는 1990년에 설립하여 그동안 법률·대학교재·학술 등의 분야에서 수백 종에 이르는 전문서적을 출간하였습니다. 아울러 계간학술지「창작과 권리」를 창간하여 지적재산권 분야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일조하였으며, 자매출판사인 "세창미디어"를 통해서는 폭넓은 독자를 대상으로 대중 · 교양 분야의 단행본 및 시리즈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의 도서는 문화관광부 세종도서 학술 부문과 교양 부문,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도서, 이달의 청소년 도서, 보건복지부 우수건강도서 등으로 현재까지 총 110종이 선정되었습니다. 법률 서적과 대학교재, 사회과학 학술도서 등의 발행으로 다져진 역량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인문학 출판으로 관심을 넓히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향한 끝없는 열정은 눈앞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내실 있는 출판사로 뿌리내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가볍거나 근시안적인 책은 지양하며, 단기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오랫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책을 펴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세창출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Sechang Publishing Company(here in after 'SPC') publishes more than 80 books in a year. Most of these books have been focused on the Liberal Arts since its founding in 1990. Among its publications are academic books which include a series of Korean Translations of Eastern Academic Masterworks as well as Savant Liberal Arts Courses plann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 leading authority of Korean academic research. SPC also publishes Korean studies books such as the collection of the Joseon Royal Protocols and Cultures written jointly with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 leading authority on Korean studies. SPC's main areas of focus are on philosophy, history, and classics. Among these areas, our Korean classics in particular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publishing industry. While setting the trend in current Korean studies, they are not simply modernized versions, but detailed life-long accounts of the achievements of great Korean scholars. In the field of history, we have published authentic historical studies centering on Korean royal culture as well as educational books for the general public. Among philosophy offerings, we continue to publish a series of western philosophy books designed and reinterpreted to cater to Asians who's frame of reference is based on Eastern Philosophy. We hope that this publication offering can be of help to readers interested in Korean studies.

SOMYMEDIA, Inc.

유재옥 Yoo, Jae-ok

04091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222, 403호(신수동, 한국출판협동조합)
#403, Korea Publishers Cooperative, 222, Tojeong-Ro, Mapo-Gu, Seoul 04091, Korea

T 070-4260-9213, FX 82-2-322-7665
somymedia7@gmail.com
https://blog.naver.com/somybooks

문학 • 아동 • 만화 • 라이트노벨

(주)소미미디어는 2012년 9월 창립 이래 '소미북스', '올라', 'S노벨', 'S코믹', '포미포미' 등의 다양한 출판 브랜드와 관련 캐릭터 사업 전개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종합출판 콘텐츠 기업입니다. 특히 서브컬처 콘텐츠에 강한 소미미디어는, 문학을 비롯하여 출판 콘텐츠를 좋아하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알찬 재미와 감동을 맛볼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는 기획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미미디어는 좋은 콘텐츠, 재미있는 콘텐츠를 창조하는 획기적인 발상과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종합출판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Since its established in September 2012, SOMYMEDIA, Inc. has been leading the Korean cultural content industry through various publishing brands such as 'Somy Books', 'Hola', 'S-Nobel', 'S-Comics', and 'Pomypomy'. SOMYMEDIA, which is particularly strong in subculture content, is constantly planning and making efforts to present quality content that can give the fun and inspiration to Korean readers who like literature and publishing content. SOMYMEDIA will grow into a comprehensive publishing company loved by both men and women of all ages through its groundbreaking ideas and active research activities to create good and interesting content.

sosobooks

정지연 Jeong Ji Yeon

0407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92-3 태원빌딩 3층
3rd floor, Taewon building, 92-3 Dongmak - ro Mapogu Seoul, Korea

T 070-7713-9772, FX 02-323-2562
julie0910@gmail.com
https://sosobooks.wordpress.com

총류 • 예술

소소북스는 홍대앞 로컬매거진 스트리트H의 출판 브랜드입니다. 한자 소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음의 뜻들이 소소라는 이름을 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작을 小 적을 少 거처 所 웃을 소 笑 흰빛, 수수함을 뜻하는 素 소. 사실, '소소하다'라는 순우리말이 갖는 뉘앙스를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물론 영어 명으로 쓰면 SOSO는 '그럭저럭' '그냥 그랬어'라는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래도 소소라는 이름을 택하고 싶었던 것은 모두가 다 크고, 멋지고, 근사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강조하는 시대에 조금은 차분하게 스스로의 못남을 되새기고 작은 규모로 조금씩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SOSO Books is the publishing brand of <Street H>, a local magazine for Hongdae(Hongik University) area. There are so many meanings in Chinese character So. Among them, the following meanings became the decisive reason for choosing the name Soso. 小 means small, 少 means little, 所 means where to live, 笑 means laugh, and 素 means white light and modest. In fact, I didn't really like a little negative nuance of pure Korean called 'sosohada'. Of course, when you write soso in English, it's a rather negative nuance of 'that's right' or 'just did that'. Still, I wanted to choose the name Soso because in an era where everyone stressed that they were all big, cool, nice, and couldn't be better than this, I was a little calm and thought that it would be okay to go on a small scale little by little.

소울하우스 96

SOULHOUSE

박현주 Park, Hyunjoo

06307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29-16 에프장우빌딩 202호
#202, 4-36, Nonhyeon-ro 20-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10-9033-1702, FX 02-6280-7024
book@soulhouse.co.kr
www.soulhouse.co.kr

자녀교육 • 육아 • 실용 • 인문 • 자기 계발

소울하우스는 자녀교육, 육아, 실용, 인문, 자기 계발 등 더 나은 삶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듭니다.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해 오랜 시간 독자의 사랑을 받는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다섯 가지 미래 교육 코드》,《100명의 세계인》,《처음 엄마 멘붕 탈출법》,《아이 중심 창의 놀이》등이 세종도서로,《독서 논술 디베이트》가 출판콘텐츠 창작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며,《월요일이 무섭지 않은 내향인의 기술》,《처음 엄마 멘붕 탈출법》,《처음 부모 육아 멘붕 탈출법》,《아이 중심 창의 놀이》,《아이 중심 상호 놀이》등이 해외에 판권 수출되었습니다.

SOULHOUSE makes books that help people to lead better life in the field of child education, parenting, practical use, humanities, and self-development. With dedication and devotion, we are striving to make books that are beloved by readers for a long time. Until now, *Five Future Education Codes, 00 World People, How to Escape from the New Mother's Crisis, and Child-centered Creative Play* were selected as Sejong Books, and *Reading Essay Debate* was selected as a winner in Publishing Content Creation project. Also *The Skill of an Introvert who is not afraid of Monday, How to Escape from the New Mother's Crisis, How to Escape from the New Parent's Crisis, Child-centered Creative Play,* and *Child-centered Mutual Play,* etc. have been exported to overseas markets.

숨쉬는책공장 97

Breathing Book Factory

김경미 Kim Kyung mi

03324 서울 은평구 갈현로25길 5-10 A동 201호
201 ho, A-dong, 5-10, Galhyeon-ro 25-gil, Eunpye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70-8833-3170, FX 02-3144-3109
frei99@hanmail.net
https://facebook.com/soombook2014

사회과학 • 문학 • 아동 • 청소년

성인 대상 책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노동, 인권, 환경, 성소수자 등 우리 삶과 사회의 중요한 부분인 줄 알면서도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관심을 두려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들도 출간합니다. 숨쉬는책공장은 책을 읽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Breathing book factory is publishing books for adults and books for children and teenagers. We are trying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stories of labor, human rights, environment, sexual minorities, and other important parts of our lives and society, but we don't care. We also publish books that can be useful in everyday life. Breathing book factory tries to make a book that can make both the reader and the maker happy.

(주) 시공사

98

SIGONGSA CO. , Ltd

윤호권, 박헌용 Park Heon-Yong

06641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82
1F Sigongsa Bd. 82, Saimdang-ro, Seocho-gu, Seoul 06641, Rep. of Korea

T 02-2046-2800, FX 02-598-4245
book@sigongsa.com
http://sigongsa.com

사회과학 • 자연과학 • 예술 • 문학 • 아동

시간과 공간을 넘어 새로운 지식의 즐거움을 전하는 국내 최대의 종합 출판사. 시공사 출판사는 종이책을 시작으로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국내 저자 발굴 및 콘텐츠의 개발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콘텐츠를 수입하여, 독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문학, 과학, 사회, 자연, 교양, 역사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통해 국내 최대의 종합 출판사로 자리매김 하며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Sigongsa is prestigious and acclaimed publishing house founded in 1989, located in Seoul, Korea. Sigongsa and its imprints publish wide range of bestselling and acclaimed writers from around the world. With the concept of “Publishing books that allow readers to enjoy acquiring new knowledge beyond time and space” as its guidepost, Sigongsa’s extensive coverage of subjects offer readers a broad spectrum of knowledge: domestic and foreign fiction, essa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istory, science, art, travel, business & economics, self-help, education, health, lifestyle, and etc.

시금치출판사

99

Green Spinach Publishing

송영민 Song Youngmin

04034서울 마포구 잔다리로7길 18 문지빌딩 502호
5F., 18 Jandariro7gil, Mapogu, Seoul, Korea

T 02-725-9401, FX 0303-0959-9403
7259401@naver.com
http://blog.daum.net/greenbook

총류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기술과학 • 아동

2002년부터 지금까지 아동,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의 책을 펴냅니다. 어린이와 농부를 위한 책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철학, 미술,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Green Spinach Publishing was founded in 2004. The main fields of publication are children's books, natural sciences, an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e are very interested in a variety of lifestyles for a sustainable society.

(주) 시사티앤이

100

SISA T&E

강경훈 KANG KYUNG HOON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복합동 604-3
30 ,Saemunan-ro 3-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723-9280, FX 02-723-0974
tree0224@naver.com
www.natgeokorea.com/magazine

사회과학 • 자연과학 • 기술과학 • 예술

내셔널지오그래픽협회는 탐험과 환경 보호를 통해 지구와 인류에 공헌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매년 전세계의 수많은 연구와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방면의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영감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매거진은 현재 전 세계 28개국 23개 언어로 매월 동시 발행되고 있습니다. 1888년 내셔널지오그래픽 협회의 지리 학술지로 창간되어 현재는 세계의 지리뿐만 아니라 과학, 모험, 탐험, 자연, 인류, 문화, 역사, 고고학, 생태, 환경, 우주 등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루는 세계 최고의 종합 교양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구와 인류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특히 단순한 기록을 넘어 예술적으로도 높게 평가 받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사진은 전 세계 사진 작가들의 이상이며 독자들에게는 높은 소장가치로 매거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 (2,000년 1월 한국판 발행 시작)

The National Geographic Society uses the power of science, exploration, education, and storytelling to illuminate and protect the wonder of our world. Since 1888, the National Geographic Society has driven impact by identifying and investing in an international community of Explorers: leading scientists, educators, storytellers, conservationists, technologists, and many other changemakers who help us define some of the critical challenges of our time, drive new knowledge, advance new solutions, and inspire positive transformative change. Since awarding our first grant in 1890, we have provided more than 14,000 grants for work across all seven continents. This includes the most comprehensive scientific expedition to Mount Everest, working to better understand human-carnivore conflict in Gorongosa, telling stories that help explain the world and all that's in it, and groundbreaking work that has transformed our understanding of the great apes and what it means to be human. We also engage audiences around the globe through signature experiences, stories, and content, including the National Geographic Museum at our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시원스쿨 101

SIWONSCHOOL

양홍걸 Abe Yang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2 남중빌딩 시원스쿨 출판실
Publishing division 12, Gukhoe-daero 74-gil,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2014-8312, FX 02-783-5528
pinksky@siwonschool.com
https://siwonschool.com

사회과학 • 예술 • 언어 • 아동

시원스쿨은 어학 전문 출판사입니다. 일상 회화와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초영어 도서가 다양하게 출간되어 있습니다. 토익, 토플, 텝스, 아이엘츠와 같은 수험영어 그리고 오픽, 토스와 같은 실용적인 수험영어도 난이도와 시험의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와 같은 아시아어부터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유럽권 나라의 언어들도 출판하고 있습니다. 시원스쿨은 단행본 도서도 출간하고 있습니다. 임프린트인 '시원북스'를 통해 경제경영서, 자기계발서, 자녀교육서 등 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의 책도 출간하며 독자층을 넓히고 있으며 '시원주니어'라는 이름으로 아동서도 출간하며 더욱 다양한 독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Siwonschool is a language learning book publishing company. From basic English to TOEIC, IELTS, OPIC, TOEIC Speaking for test preparation with various levels. We also publish languages from various European countries to Asian languages such as Japanese and Chinese to German, French, and Spanish. Siwon Books, a publishing imprint of Siwonschool, also publish books such as economic management books, self-improvement books, and art books. We also have another publishing imprint, Siwon Junior for childeren. We try to communicate with a variety of readers.

(주) 신영미디어 102

Shin Young Media Service, Inc.

장익주 Ik-joo, Jang

04781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1차 1606호
Suite 1605, 25, Seongsuil-ro 4-gil, Seo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3291-4566, FX 02-3291-3433
marketing@sybook.kr
https://sybook.co.kr

문학

신영미디어는 1992년에 설립되어 30년 가까이 장르 소설 콘텐츠를 제공해 왔습니다. 여성들이 즐기는 모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할리퀸을 비롯해 로맨스·판타지로맨스·BL 장르의 소설들을 출간 중입니다. 또한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해 웹툰 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Shin Young Media Service, Inc was established in 1992 and has been providing genre fiction contents for nearly 30 years. With the goal of creating all the content that women enjoy, we are publishing fictions in romance, fantasy romance, and Yaoi genres, including harlequin. Also, based on the original fiction, we are expanding its scope to the webtoon business.

써네스트

Sunest

강완구 Kang Wanku

04011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94, 2층 203호
#203, Mangwon-ru 94, Mapo-gu, Seoul, Korea

T 02-332-9384, FX 0303-0006-9384
sunestbooks@yahoo.co.kr
www.sunest.co.kr

총류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예술 • 문학

사람들의 영원한 벗인 책을 만드는 곳 써네스트는 두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써네스트"입니다. 써네스트는 '황새 둥지 위에 앉은 태양'의 영문을 줄인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시골 소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써네스트 브랜드로는 청소년과 어린이 책 그리고 과학책 및 러시아 관련 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 "우물이있는집"은 퍼도퍼도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우물이있는집 브랜드로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의 벗이 되는 학술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A publishing company Sunest makes books, people's eternal friends, communicates with the world through two brands. One of them is "Sunest". Sunest is means 'the sun sitting on the nest of a stork.' It expresses the moment when the dream is come true of a country boy. Sunest publish books for youth and childrens, science books and books related with Russia. The other brand is "Woomul house" is a name created with the wish, what a fountain of wisdom that does not dry out. Woomul house publish books of academic and humanistic value that become friends of the knowledge and wisdom of the world.

(주) 씨드북

Seedbook

남영하 Young Ha Nam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7길33 남도빌딩 3층
3F Namdobuilding 33 Insadong7gil Jongnogu Seoul, Korea

T 02-739-1666, FX 0303-0947-4884
seedbook009@naver.com
www.seedbook.co.kr

아동 • 청소년

2013년 첫 책을 출간한 이래로 현재까지 총 250종의 책을 출판한, 열정 가득한 아동&청소년 전문 출판사입니다. 소외되거나 혹은 소수인 아이들을 위해 장애나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 형태로 풀어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 책을 기획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터부시되거나 무거운 주제를 아이들 눈높이에서 가볍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온 맘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Since its first book in 2013, it has published a total of 250 books to date. It is a passionate publishing company specializing in children and youth. For the underprivileged or minority children, we are planning a book with an emphasis on solving disability and pain in the form of a story, and devoting all our heart and sincerity to lightly approach socially taboo or heavy topics from the children's eye level. There is.

아니마 출판사 105

Anima Publishing co.

노혜숙 Kang Wanku

1035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101 109-903
109-903, 101, Jungsan-ro,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 010-5424-2194, FX 0303-0944-2194
animapub@naver.com
https://blog.naver.com/animapub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권 내외의 종이책과 전자책을 출판했습니다. 주력 부문은 에세이, 자기계발, 대중심리학입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are working to publish books that convey to our readers the values that never change over time in a rapidly changing world day by day. So far, we have published about 10 paper books and e-books. The main areas are essay, self-help, and public psychology. We appreciate if you would continue to have interest and in our books.

(주) 아들과딸 106

SND Corp.

조진석 Cho, Jin Suk

22007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31층
323, Incheon tower-daero, Yeonsu-gu, Incheon, Korea (Songdocentroad B, 31F)

T 070-4941-4006, FX +82-32-859-0945
hyunsook.seo@forsnd.com
www.forsnd.com

아동

주식회사 아들과딸은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기술과 자본으로 다양한 기능성북을 제작, 출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놀이하듯 독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아들과딸북클럽을 제작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증강현실로 구현한 5개국어 AR 카드, 스마트 기능성 북 '요리조리 동화마을', 인공지능 홈로봇 '아들과딸북클럽 LG CLOi'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SND Corporation makes children be sensitive through various functions of book. Parents want to provide their children a lot of experience and knowledge. Our company publishes books for intelligence as well as emotional development. We have studied and invested in developing more helpful function for kids not only for fun. We will try to make better contents for every child.

아라미 출판사 107

Aramy Publishing Company

백상우 Back Sang-Woo

04093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92 진영빌딩 206호
202 Jinyoung Building, Tojeong-ro, Mapo-gu, Seoul

T 02-713-3257, FX 02-6280-3257
aramy777@naver.com
https://blog.naver.com/aramy777

아동

도서출판 아라미는 독자들이 책을 통해서 참된 지혜와 아름다운 감성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출판사입니다. 주로 유아들을 위한 마음나누기 그림책 시리즈, 초등학생들의 마음 성장을 위한 동화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재미를 접목해 개발한 두뇌개발 시리즈, 미국 하이라이츠(Highlights) 사의 두뇌개발 놀이 책 '똑똑해지는 시리즈'를 출판하며,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국내 지식 놀이책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은 물론 성인 대상으로 한 책들도 꾸준히 출간 중입니다.

Arami is a publishing house that constantly tries to help readers meet true wisdom and beautiful sensibilities through books. Mainly a series of picture books for pre-schoolers and touching stories for the growth of the minds of grade schoolers. Arami has developed brain development series by combining education and fun, translated and published play book series developed by Highlights in the U.S., and developed domestic knowledge playbooks for children. In addition, books for adults as well as teenagers are constantly being published.

아모르문디 108

Amormundi Publishing Company

김삼수 Kim Sam-Soo

03974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13길 87 201호
#201, 87, Seongmisan-ro 13-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505-306-3336, 010-4230-2665, FX 0505-303-3334
amormundi1@daum.net
https://facebook.com/amormundibook

총류, 사회과학, 예술, 문학, 역사

아모르문디는 2005년 설립된 인문 교양 도서 출판사입니다. '세계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뜻에 걸맞게 다양한 지역과 분야를 향해 열린 정신을 바탕으로 양질의 인문 · 사회과학, 예술, 문학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외국의 양서들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동시에,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단행본과 시리즈를 기획하여 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모르문디 영화총서'를 론칭하여 디지털 세대에 맞는 새로운 영화학 입문서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Amormundi Publishing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05. We aim to satisfy our readers with informative books on a wide scope of interest. The company has published the works of literature, history, art and humanities by Korean authors and foreign writers. Recently, we started to publish "Amormundi Film Books" series. In this series, each professional Korean author provides the most necessary knowledge about film history, film making, movie criticism and other various fields of film.

아스터로이드북

109

ASTEROID BOOK

최세용 Choe Seyong

02873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49, 604
#604, 49 Bomun-ro, Seongbuk-gu, Seoul, Korea

T 070-7788-2725, FX 02-6008-2725
asteroidbook@daum.net
asteroidbook.com

예술, 문학, 아동

ASTEROID BOOK(아스터로이드북)은 미술을 전공한 작가들끼리 뭉쳐 만든 의욕적인 출판사로, 재능있는 일러스트레이터와 작가들을 발굴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널리 보급하는 게 목표이다. 주로 순수미술 작업에 의한 아트북이나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를 위한 그림책이 주력 분야이다.

Asteroid Book is an ambitious publishing company made up of artists who majored in art. Asteroid Book aims to discover talented illustrators and writers and to disseminate beautiful works. Asteroid Book mainly focuses on art books of pure artwork or picture books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아시안허브

110

asianhub

최진희 Choi Jin Hee

08819 서울 관악구 신림로19길 46-8 B1F
46-8, Sillim-ro 19-gil,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6713-3028, FX 070-7500-3350
ceo@asianhub.kr
https://asianhubbooks.modoo.at

문학

아시안허브는 국내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교육해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설립된 기업입니다. 아시안허브를 통해 성장한 이주민들이 통 · 번역가, 외국어강사, 다문화강사, 마케터 등으로 취업 또는 협동조합, 1인 기업 등으로 창업을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한 많은 이주민들이 책과 함께 본인의 브랜드를 강화시키면서 한국사회에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허브 출판사업부에서 나온 도서는 한국사회에 다양한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소개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he ASIANHUB is company founded to educate immigrants liviing in Korea and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to nurture professional workers. Immigrants who grew up through the ASIANHUB play various roles, by working as interpreters, translators, foreign language instructors, multi-cultural instructors, marketers, etc., or by starting their own businesses as co-operatives, and single-perdon companies. Among them, many immigrants who publish books under their own names are strengthening their brand along with thebooks, serving to introduce various cultures to Korean society, but they are also an immigrants as they disply their abilities in Korean society.

아이들은자연이다 111

AJA Publishing

노정임 Ro Jeong-eem

07984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7, 908호
#908. 37, Mokdongseo-ro, Yangcheon-gu, Seoul, Korea

T 010-8147-3772, FX 0303-3447-1021
aja0388@daum.net
https://facebook.com/aja0388

자연과학, 기술과학, 아동, 학습참고

아이들은자연이다(AJA) 출판사는 어린이를 위한 논픽션, 과학, 생태학 도서를 출판합니다.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갖게 할 매력과 책의 독창성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즐겁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주제, 특히 역사와 과학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시리즈 목록을 하나씩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식을 채우고 마음을 움직이는 아자 지식책, 생각의 소근육을 키우는 빨래판 과학책 시리즈 등 어린이 논픽션 도서를 주로 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책 속에서 무한한 꿈과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신선한 그림과 글이 어우러진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Welcome to AJA Publishing! Happy publication for every kid should know. We publish non-fiction, history, science & ecology too. We're masters in balancing commercial appeal with originality. New title include two in our Big History series. These take a fascinating new look at history and science. We have also added new and exciting title to our educational sets and series list. In the future, AJA will create books with fresh drawings and texts so that children can develop their infinite dreams and imaginations in the books.

(주) 아이프렌드 112

I Friend Ltd.

김철희 David Kim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57 4층
357 4F,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 031-8071-8011, FX +82-31-8071-8000
lamb91@naver.com
http://glbburiedu.com

아동

2004년도에 설립해 그림책 1200권, 영어 그림책 200권, 학습만화 50권 이상을 출간하였습니다. '엄마들이 사주고 싶은 책, 아이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을 만든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집 그림책 전문 출판사이자 교육 브랜드 기업입니다. 책을 통해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북 에듀케이션(Book Education)을 비전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재미와 교육의 효과를 다양한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Contents Smart Learning 융합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stablished in 2004, we have published more than 1200 picture books, 200 English picture books, and more than 50 learning cartoons. 'Based on the value "books that moms want to buy for their children, books that children want to read," we are proud of being a leading publishing company and representative educational company in Korea. Our vision is to be a leading Book Education company, which allows children to grow in harmony and provides children with th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the effects of reading books in various forms. We are developing AI, AR, and Contents Smart Learning convergence products.

(주) 아작

113

ARZAKLIVRES

박은주 Park, Eunjoo

0438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6, 102동 1801호
Hangang Trump World 3 Studio Rm 1801, 26,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Korea

T 02-324-3945, FX 02-324-3947
decomma@gmail.com, djpahk@naver.com
www.arzak.co.kr

문학

"아름답게 꿈꾸고 널리 과학하게 하라"는 모토로, 필리버스터를 떠들썩하게 했던 첫 책, 코리 닥터로우의 〈리틀브라더〉를 2015년 9월 출간한 이래, 90여 종의 국내외 SF를 출간해온 SF 전문 출판사입니다. 아작은 출간하는 책 한 권 한 권의 성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애쓰고, 독자 한 분 한 분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앤 레키의 '라드츠 제국 시리즈', 밀실 살인 SF 〈식스웨이크〉 등 작품성 있는 영미권 최신 SF를 실시간으로 한국에 번역 출간하고 있으며 할란 엘리슨 걸작선, 아서 C. 클라크의 〈라마와의 랑데부〉, 제임스 P. 호건의 〈별의 계승자〉 등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까지 빠짐없이 소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독자들에게 한국 SF 작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 SF 작가선' 시리즈를 꾸준히 출간하며 한국 SF 부흥의 초석을 쌓아 가고 있습니다.

Arzak specializes in the publication of sci-fi books. We believe in the power of the sci-fi novel, where the potential of science meets human imagination and where we look forward to the future while striving to live in the present. Founded only a few years ago, in 2015, we proactively publish works by various authors, from leading works that show an awareness of contemporary problems and dream of alternative future, to classic, timeless masterpieces. We are growing as a specialist publishing company, representing the field while widening the fanbase of science fiction.

아침달

114

Achimdal

손문경 Moon kyung Shon

03980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53-16, 2층
2nd floor, 153-16, Seongmisan-ro,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3446-5238, 02-3446-5202, FX 02-3446-5208
achimdalbooks@gmail.com
https://blog.naver.com/achimdalbooks

문학

아침달은 시를 중심으로 한 문학 출판사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아침달 시집 시리즈를 시작으로 느리지만 꾸준하게 출간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일상의 빈자리에 문학이 놓이기를 꿈꿉니다. 독자의 서가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책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아침달 출판사는 서울 연남동에서 아침달 북스토어라는 이름의 작은 문학 서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소설, 에세이를 비롯한 문학 예술 서적을 큐레이팅해 판매합니다.

Ah-Chim-Dal is a poetry-based publishing company that handles all literature genres. With the intiation of Ah-Chim-Dal Poetry Series in September of 2018, we have continued to pioneer slowly but steadily. We dream of placing literature in between the layers of everyday life. We desire to publish books that will lie on bookshelves of readers for a long time. Ah-Chim-Dal also runs a small bookstore under the same name: Ah-Chim-Dal Bookstore. Over 1,000 literature and art publications, primarily poetry, novel, and essay, are offered.

(주) 아트북스 115

ARTBOOKS Publishing Corp.

정민영 Jung Min-Young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10
210,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T 031-955-8895, FX 031-955-8855
artbooks21@naver.com
https://munhak.com/brand/brand.php?id=5

예술, 문학

"일상을 예술로, 예술을 일상으로" 2001년 미술전문 출판사로서 출발한 아트북스는 예술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일상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전문성, 현장성, 대중성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예술이 지닌 무궁한 즐거움을 전하는 책을 만듭니다. 아트북스는 눈과 마음이 동시에 행복해지는 책을 독자에게 전하고자 애쓸 것입니다.

"Daily life becomes art, Art becomes daily life" We aim to inspire and promote the spirit of lifelong learning to enable our readers to become high achievers in life. Each book we present is an effort of our offering of distilled wisdom to the readers. And we do it in a way that is attractive and irresistible, using powerful texts, effective pictures, appealing cartoons with capable people.

아트앤아트피플 116

artnartpeople

송영희 Song Young Hee

07535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67길 32 103동 608호
Yeomchang-dong, Gangseo-gu Shindonga Apt 103dong 608ho Seoul, South of Korea

T 070-7719-6967, FX 02-6442-9046
artnartpeoplekr@gmail.com
http://artnartpeople.com

예술, 아동

아트앤아트피플은 젊습니다. 작지만 역동적인 편집과 유통을 하는 출판사입니다. 아트앤아트피플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설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험이 많은 마케터로 구성된 팀이기도 합니다. 한국 틈새시장에 대한 깊은 지식은 대형출판사 편집자와 대형 유통 업체보다 앞서 트랜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과 집중된 대상 자료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트앤아트피플의 작고 민첩한 팀의 집중적인 역할은 많은 인력과 모든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업체들의 대량화된 방식보다 더 나은 시장 침투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아트앤아트피플은 번역, 편집, 출판, 마케팅 및 유통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과 함께 그림과 사진과 같은 시각예술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 지식이 뛰어난 다른 소규모 회사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ArtNArtPeople is a young, small but dynamic editing and distribution firm. We are a strong team of experienced marketers who played a key role in establishing thriving e-marketing divisions for some of the leading Korean publishers, We pride ourselves in our deep knowledge of Korean niche markets, our capacity to spot trends before larger editors and distributors and our capacity to reach focused demographics. We have decided to strike it out on our own because we think focused attention by a small and nimble team results in better market penetration than unfocused efforts from larger firms that try to be everything to all people. We have quality in-house translation, editing, publishing, marketing, and distribution expertise; We want to work with our illustrators to create visual art such as paintings and photographs we also work closely with other small firms with pointed expertise on specific projects.

(주) 안전가옥

117

Safehouse Inc.

김홍익 Hongik KIM

04779 서울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헤이그라운드 203호
Suite# G203, 5, Ttukseom-ro 1na-gil, Seo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461-0601
marketing@safehouse.kr
http://safehouse.kr

문학, 장르문학

안전가옥은 '모든 이야기들의 안식처'라는 타이틀 아래 잠재력 있는 신진 창작자들과 함께 세상을 바꿀 원천 스토리를 기획, 개발하는 스토리 프로덕션입니다. 창작자와 스토리 PD가 협업하는 '프로듀서 시스템'으로 이야기를 개발하며, 텍스트를 넘어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지향합니다. 〈못 배운 세계〉, 〈선샤인의 완벽한 죽음〉 등 오리지널 장편소설과 앤솔로지 시리즈, 쇼-트 단편집 시리즈를 포함하여 2020년 8월 기준 총 16종의 도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안전가옥에 대한 최신 정보는 안전가옥 홈페이지(https://safehous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fehouse Inc.(https://safehouse.kr) is a story production company that creates story content and IP for visual content adaptation. Our story producers collaborate with writers from planning to completion. Safehouse aims to make a meaningful story for contemporary readers with fun through a pleasing narrative.

야옹서가

118

Yaong Seoga

고경원

03925 Ko Kyoung Won,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5층 23호
#23, 5F, 400, World Cup buk-ro, Mapo-gu, Seoul, Korea

T 010-6201-1747, FX 02-6003-0295
catstory.kr@gmail.com
https://instagram.com/catstory_kr

사회과학, 예술, 문학

야옹서가는 18년간 고양이 책 작가로 활동해 온 고경원이 2017년 7월 창립한 고양이 전문 1인 출판사입니다. 야옹서가는 '고양이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드는 출판사'를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길고양이와 유기묘가 줄어들고, 고양이도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 데 있어 야옹서가의 책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바랍니다.

Yaong Seoga was created in July 2017 as a one-person publisher specializing in cat books by myself after having written books on cats for 18 years. Yaong Seoga's mission is to make books that contribute to the happiness of cats. We truly wish for Yaong Seoga to influence society so that there are fewer abused street cats and abandoned cats and more people start thinking of cast as part of their family.

어떤책 119

Acertainbook

김정옥 Kim Jeongok

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5층 1호
#1 5f, Worldcupbuk-Ro 400, Mapo-Gu, Seoul

T 02-3153-1312, FX 02-3153-1312
acertainbook@naver.com
https://facebook.com/acertainbook

철학, 사회과학, 문학

어떤책은 한국작가의 에세이와 논픽션을 출간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이는 사회적 성취와는 무관합니다. 어떤책은 오직 그 작가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책에 담습니다. 서양철학과 동양철학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철학자, 1인가구 그릇 애호가, 30년 동안 신춘문예에 도전한 작가, 프랑스 파리에 사는 이방인(한국인) 여성, 조손가정에서 자란 아이, 한달살기를 40번 떠난 부부,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터뷰어, 1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쓴 성실한 작가..... 모두 어떤책의 작가들입니다. 어떤책은 앞으로도 세상에 없는 고유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펴내겠습니다. 보거나 듣기보다 읽어야 더 풍성해지는 콘텐츠로, 독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Acertainbook publishes essays and non-fictions by Korean authors. Everyone has their own story, and it has nothing to do with social achievement. Acertainbook puts stories in books that only the writer can tell. A philosopher who studied Western philosophy, Eastern philosophy, and theology, a writer who has challenged New Year's literature for 30 years, a stranger woman living in Paris, a child raised in grandparents, a couple who left 40 times a-month-staying-trip, the most loved interview in Korea... they are all our authors. With content that is enriched by reading rather than watching or listening, Acertainbook will deliver exciting and touching stories to readers.

에디시옹 장물랭 120

Editions Jean Moulin

이하규 LEE Ha-Kyu

07285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 3-602
3-602, Seonyu-ro 9-gil 31,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10-3001-6854, FX 050-4766-6854
aryujea@naver.com

예술

에디시옹 장물랭은 번역팀이자 북칼럼니스트인 해바라기 프로젝트가 설립한 출판사로 주로 유럽과 북미의 실험적인 독립출판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쇄와 종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정보를 SNS와 워크숍 등을 통해 여러 작가들과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 작가로는 영국의 로버트 헌터와 톰 골드가 있습니다.

Editions Jean Moulin is subsidiary company of 'Projet Helianthe', team of translators french and organization of exhibitions for art and history. 'Projet Helianthe' is also columnuist of magazine progressive Hani21, one of the most influential magazine in Korea. He write for graphic novels for reflection and illustration for adult every week. The name is given by president LEE Ha-kyu who was studied contemporary history French. He respect for Jean Moulin, French Resistant.

(주) 에스지북스 121

SG Books Corp.

임상규 Lim, Sanggyu

140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D472
230 Simindaero, D472, Dongan-gu, Anyang-si, Gyunggi-do, Korea

010-3873-9855
yjmaru7@hanmail.net
www.sgbooks.co.kr

자연과학, 학습참고

주식회사 에스지북스는 2009년에 설립된 교육 출판 회사입니다. 과학 및 수학 분야의 출판과 멀티미디어를 접목하는 콘텐츠 개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학 분야의 실험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접목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자책 및 종이책 출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프랑크푸르트 도서 전시전에 참가하여 콘텐츠를 홍보하였으며 해외 출판 시장으로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G Books is a Korea-based publisher. Established in 2009, its primary focus is educational books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Our publication includes science and math books, in which creativ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are emphasized. SG Books is also specialized in developing multimedia content such as science experiments and animations. SG Books welcomes writers and publishers who want to work with us.

(주) 에스프레소북 122

espressobook

황상철 Hwang sang cheol

04521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 기업지원센터 1309호
40, 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070-4711-7788
admin@espressobook.com
https://espressobook.com

저작 플랫폼, (주)에스프레소북은 셀프출판,에듀테크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출판과 인쇄를 모르는 사람도 쉽게 직접 자신이 원하는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개인 저작 서비스 '하루북'을 운영합니다.

espressobook Co., Ltd. is a self-publishing, edu-tech startup. We operate 'Haru Book', a personal writing service that allows people who do not know publishing and printing to easily publish their desired book.

에이치비 프레스 123

HB PRESS

조용범 Jo Yong Bum

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5층 1호
5F 1, 400, World Cup buk-ro, Mapo-gu, Seoul, Korea

T 02-3153-1312, FX 02-6442-1395
hbpress.editor@gmail.com
hbpress.kr

예술, 문학

마치 HB 연필처럼, 흔히 사용되길 바라며 조화와 균형을 지향하는 출판사입니다. 매체에 구애받지 않는 흥미롭고 쓸모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며, 그중 종이책을 가장 잘 만들고 싶습니다. 첫 책은 박찬용 작가의 '요즘 브랜드'(2018년 11월), 최근작은 호아킨 소로야 작품집 '바다, 바닷가에서'(2020년 8월)입니다.

We pursue harmony and balance, hoping to be familiar and commonly used like HB pencils. We try to create interesting and useful content that is not restricted by the medium, and we want to make the best paper book. Our first book is 'Whispering of 21st Century : On Contemporary Brands' by Park Chanyong (November 2018), and the latest 'Sorolla on the Seashore' by Spanish painter Joaqu?n Sorolla was published on August 5, 2020.

(주)엠아이디미디어 124

MID Media

최종현 Choi Jong-Hyun

04091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222 한국출판콘텐츠센터 303호
222, 303-ho, Tojeong-ro,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10-9279-3448, FX 02-6351-3448
bookmid@naver.com
http://bookmid.com

사회과학, 자연과학, 역사

"생각에 깊이를 더하는 책"을 모토로 2010년 출범한 출판사입니다. 쉽게 다가가는 과학,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많은 독자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a publishing company launched in 2010 under the motto of "Books that add depth to thought." We would like to introduce to many readers the science that is easily accessible to the public, the world that sees from a new perspective.

엣눈북스

Atnoonbooks

정미진 Mijin Jung

03989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241 백마마을 1단지 107동 1001호
30, Yeonnam-ro,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10-7210-1978, FX +82-303-3440-8215
atnoonbooks@naver.com
www.atnoonbooks.net

문학, 그림책

정오의 따사로움과 열정을 담은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을 만듭니다.
일러스트, 만화, 사진, 그래픽 아트웍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각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그림책을 만듭니다.

We make picture books for grownups bringing the warmth of noon.
Our books are storytellings with various forms of visual image such as
illustration, comics, photographs and graphic art.

(주)영진닷컴

Youngjin.com

김길수 Kim kil Soo

08505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월드메르디앙벤처2차 1016호
1016, Worldmerdian Venture Center 2nd 123, Gasan-digital 2-ro, Geumcheon,
Seoul, Korea

T 02-1588-0789, FX 02-867-1987
jsk4471@youngjin.com
www.youngjin.com

총류, 자연과학, 예술, 아동, 수험서/자격증

IT 강국 = 대한민국! 대한민국 IT 출판 콘텐츠계의 선구주자 = 영진닷컴! (주)
영진닷컴은 오랜 세월동안 IT 서적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JAVA, C언어
등 2020년 지금까지도 IT 서적 분야에서 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IT 자격증 도서에서도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년 많은 수험생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리, 취미, 교양 등 다양한 실용서 분야에서도 각광 받는 영진닷컴!
집콕 취미 1세대를 이끈 〈점잇기와 컬러링〉 우주 덕후들을 열광케 한 NASA
유일 공식 인증 도서 〈NASA 기록하다〉 시리즈까지… (주) 영진닷컴은 IT 분야
외에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출판사입니다.

IT powerhouse = South Korea! The IT Publishing Content of Korea:
Young-jin. com! Yongjin. com is publishing IT books for years. In 2020,
we are meeting many of our readers in the IT book area, including the
par-sun, JAVA, and C language. In addition, the IT Certification books
are trying to relieve the thirst for learning every year based on old know-
how and expertise. Cooking, hobbies, and teaching. In various practical
areas, Yongjin. com. It's the first time that you've got the first generation
of people. NASA's Official Certification Trade Against Space Deadlines
<NASA record> In addition to IT, Yongjin. com is a publishing company
that continues to meet more readers in a wider world than IT.

(주) 예림당 127

YeaRimDang Publishing Co., Ltd.

나춘호 Na, Choon-ho

04798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 예림출판문화센터
153 Achasan-ro (YeaRim Publication and Culture Center), Seongdong-gu, Seoul, Korea

T 02-3404-8460, FX 02-567-7889
cs@yearim.kr
www.yearim.kr

아동, 유아용 보드북, 사운드북

예림당은 1973년 창립한 아동도서 전문 출판사입니다. 어린이들의 교양과 학습 증진에 즐거움을 더한 양질의 도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Why? 학습만화 시리즈는 과학, 사회, 인문교양, 수학, 피플, 역사 등 각 분야를 다룬 시리즈물로, 누적 판매부수 7,800만 부를 달성한 메가셀러입니다. Why? 시리즈는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호평받고 있으며, 13개 언어, 50여 개 국가에 수출되었습니다. 예림당은 현재 〈Oh My God〉 등 신간 시리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고, 종이책의 명성을 바탕으로 전자책, 오디오북 등 새로운 형식의 책 출간과 함께, OSMU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제휴로 세계적인 컨텐츠 개발사가 되기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YeaRimDang is a publisher with 47 year's history specializing in children's book publishing. Our bestselling series Why? Is an educational comic book series that has been sold out over 78 million copies in Korea as well as licensed to more than 50 countries in 13 languages. YeaRimDang is striving to take a new leap as the leader in the global content business and will broaden its partnership for OSMU(One Sourse Multi Use) in various areas from conventional book publishing to Digital and MCN business.

오월의봄 128

Maybooks

박재영 PARK Jae Young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63-15 201호
#201, 363-15,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Korea

T 070-7704-5590, FX 0505-300-0518
maybook05@naver.com
https://instagram.com/maybooks_05

사회과학

오월의봄은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모토로 책을 펴내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오월의봄은 한국과 세계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환경 문제에 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건설적 행동을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책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활동가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 투쟁하기 위해서는, 사상, 역사, 정치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Maybooks is an independent, progressive book publisher. Our goal is to publish books that encourage critical thinking and constructive action on the key political, cultural, social, economic, and ecological issues shaping life in the Korea and in the world. We believe that activists need to take ideas, history, and politics into the many struggles for social justice today.

온다프레스 129

Onda Press

박대우 Daewoo Bak

24756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길 50-3
#50-3, Ayajin-gil, Tosung-myun, Gosung-gun, Gangwon-do

T 070-4067-8645, FX 050-7331-2145
onda.ayajin@gmail.com
http://instagram.com/onda_press

총류, 사회과학, 예술, 문학

온다(onda)는 이탈리아 말로 '파도'를 뜻합니다. 강원도 바닷가 마을에서 책을 만듭니다. 2017년 문을 열고 지금까지 『온다 씨의 강원도』『팻 메시니』『이야기를 그려드립니다』『나를 보라, 있는 그대로』『북한 여행 회화』『증언』 등을 펴냈습니다.

Onda means "wave" in Italian. Onda Press publishes books in a seaside village in Gangwon Province. Onda Press began to maintain business in 2017, and has published 6 books, Onda's Gangwondo, Pat Metheny, Let Me Draw Your Story, Look at Me the Way I Am, Travel Conversation in North Korean, Testimony etc.

와이겔리 130

Y-Gelli Books

조동욱 Cho, Dongwook

03057 서울 종로구 계동2길 17-13
17-13, Gyedong 2-gil, Jongno-gu, Seoul, Korea

T 02-744-8846, FX 02-744-8847
aurmi@hanmail.net
https://blog.naver.com/ybooks

철학, 사회과학, 기술과학, 문학, 역사

지성과 감성이 숨 쉬는 아름다움이 있는 책마을을 꿈꾸는 '와이겔리출판사'는 문학인, 학자, 다양한 문화 예술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움을 지향하고 이 시대에 올바르게 읽힐 책들을 기획합니다.
동양철학, 한의학 분야 등의 책을 시리즈로 펴내고 있으며, 신인, 중견 문학인들과 사회에 울림을 주는 문학책을 펴냅니다.

Dreaming of a beautiful book village where intellect and emotions exist in harmony, Y-Gelli Books works with literary scholars, researchers and various cultural artists. The company always aims for newness and plan books that can be read properly in our modern age. Together with budding authors and leading writers, it publishes series of books on Eastern Philosophy and Oriental Medicine, as well as literature that resonates with the society.

요단출판사 131

Jordan Press

이요섭 Yosup Lee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11층
10, Gukhoe-daero 76-gil, Youngdeungpo-gu, Seoul, Korea

T 02-2643-9155, FX 02-2643-4383
jordanbook@naver.com
https://facebook.com/jordanbook1973

종교

요단출판사는 1973년 기독교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 산하에 만들어진 기독교 출판사입니다. 주로 한국교회와 성도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돕기 위한 신학 및 신앙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계별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해당하는 훈련교재 및 신앙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와 같은 뛰어난 신앙훈련교재를 연령과 주제별로 출판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서 사전]과 같이 목회자의 성경연구와 설교에 꼭 필요한 신학 서적도 출판하고 있습니다. 매년 양질의 번역서를 포함해 다양한 e-book도 함께 출시하고 있습니다. 요단출판사는 매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수상작을 내는 우수한 출판사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변화와 부흥의 시작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Jordan Press is a Christian publishing company established in 1973 under the Korean Baptist Church Development Board. We mainly publish theology and religious books to help healthy growth and maturity of Korean churches and saints. In particular, we have created a step-by-step spiritual training program and published corresponding training materials and religious books. It is loved by publishing excellent religious training materials such as the series of “Experiencing God” Jordan Press also publishing theological books that are essential for pastoral biblical studies and sermons, such as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We also release a variety of e-books every year, including high-quality translations. Jordan Press is an excellent publishing company that annually publishes the Korean Christian Publishing Culture Award. We are trying to be the starting point for change and revival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우리나비 132

Woorinabi Publishing Co.

한소원 Han Sowon

14650 경기 부천시 원미로 18번길 11
Wonmi-ro(St) 18 bungil 11, Bucheon-si, Gyeonggi-do, Korea

T 010-9094-0382, 070-8879-7093, FX 02.6455.0384
michel61@naver.com
www.woorinabi.com

사회과학, 예술, 문학, 아동, 그래픽노블

우리나비는 ‘봄날의 고양이처럼 따사롭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겨움이 묻어나는 책’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출판사입니다. 급속한 삶의 속도와 경쟁, 넘쳐나는 디지털 정보 속에서 종이책 출판을 통해 내적 외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와 개인의 발전, 진정한 지혜와 교양의 추구, 통찰력과 치유력의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비는 다양한 삶의 형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소리들을 작가와 독자가 허물없이 소통하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래픽노블과 어른 속의 아이, 아이속의 어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림책을 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비의 도서목록은 문학, 문화예술, 인문학 책들이 주축이 될 계획입니다.

Woorinabi Publishing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3 with a goal is to publish books that warm the hearts of readers like the spring sunlight. In the midst of being inundated with information, competition, and rapid development, Woorinabi opened its door to make its contribution by publishing titles that will impart insights and wisdom, and heal the hearts of our readers so that we can find a sense of balance as individuals as well as the society. Woorinabi specializes in publishing illustration books and graphic novels for the children in all of us, and plans to expand by publishing more titles in the genre of fiction, non-fiction, and liberal arts. With a belief that books are the mirrors reflecting the society, Woorinabi aims to publish books that enable us to empathize with others while empowering us to live for the betterment of everyone.

우림북 133

김진홍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2길 73 1층

T 010-8240-2075
www.urimbooks.com

울산대학교 출판부(UUP) 134

Ulsan University Press

오연천 Oh Yeoncheon

44610 울산 남구 대학로 93
93, Daehak-ro, Nam-gu, Ulsan, Korea

T 052-259-2488, FX 052-277-3011
press@mail.ulsan.ac.kr
http://uup.ulsan.ac.kr

철학, 사회과학, 기술과학, 문학

울산대학교 출판부는 학술서적 및 교재의 출판을 통해 대학의 교육과정 및 대학구성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각종 교양도서, 학술도서, 연구논문집 등을 발간하고 있다.

The Ulsan University Pressas established to support the curriculum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activities of university members through the publication of academic books and textbooks. Various cultural books, academic books, research papers, etc. are published.

움직씨 출판사 135

OOMZICC PUBLISHER

나낮잠 Nazzam Na, Yuda Roh

1055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149, 1608-302
149 Sesol-ro 1608-302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ROK

T 010-8225-3775, FX 0504-382-3775
oomzicc@naver.com
http://queerbook.co.kr

철학, 사회과학, 예술, 문학, 아동

움직씨는 퀴어 페미니즘 출판사로 '감각'과 '혁명'을 중시하는 편집인과 작가가 만든 대안 출판사입니다. LGBTQ+ 인권 젠더 계급 등 정체성과 다양성에 관한 문학, 그래픽노블, 예술, 인문, 교양 분야를 전방위로 다룹니다. 초현실주의 예술가 클로드 커훈과 동성 연인 마르셀 무어의 정신을 이어 전위적인 움직임을 만들며 여성 퀴어 성 소수자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책을 펴냅니다. 펴낸 책으로 상호교차적 연대에 관한 〈99% 페미니즘 선언〉, #MeToo 문학 노유다 글그림책 〈코끼리 가면〉과 대만 동성결혼 법제화를 견인한 상징 소설 구묘진의 〈악어 노트〉, 흑인 여성 전사 목소리 오드리 로드의 시집 국내 초역본 〈블랙 유니콘〉, 앨리슨 벡델 베스트셀러 그래픽노블 〈펀 홈〉, 〈당신 엄마 맞아?〉, 슬로베니아 시인 브라네 모제티치 퀴어 그림책 〈첫사랑〉, 윤예지 작가 일러스트로 새롭게 꾸민 점술 교양서 〈퀴어 별점〉등이 있습니다.

Oomzicc publisher, the first 'Queer Feminism' publisher founded in Korea, is an alternative publishing circle consisting of editors and writers who share value of keen sensibility and the revolutionary. Oomzicc pursuits the spirit of Claude Cahun, the surrealist artist, and her lover Marcel Moore, and aims to publish a wide range of books that would give volume to the voices of asian women and LGBTQ+.

원더박스 ((주)불광미디어) 136

Wonderbox (BulkwangMedia co.)

류지호 Ryu Jee Ho

0315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3, 3층
3F, 45-13, Ujeongguk-ro, Jongno-gu, Seoul, Korea

T 02-420-3300, FX +82-2-420-3400
wonderbox13@naver.com
https://m.post.naver.com/wonderbox13

철학, 사회과학, 예술, 문학, 아동

무엇이든지 빨리 결정하고, 숨 돌릴 새도 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면서, 혹시 우리의 소중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다른 길은 없을까를 궁리하는 일상 속의 작은 틈새. 질문이 열어 준 낯섦에 몸을 내맡기는 도전의 과정. 원더박스는 그런 시간의 힘을 응원합니다. 조금은 다른 눈으로 세상을 소개합니다. '어, 이렇게도 볼 수 있었어!' 하는 작은 흔들림, 세계가 한 뼘 넓어졌다는 기쁨, 생각이 익는 시간을 드립니다. 숫자와 정보에 가려진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를 되살립니다. 각자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엄하다는 감각이 회복되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쓸모 대신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전합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하루하루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시간을 함께합니다. 반 템포 천천히, 깊고 자유로워지는 시간과 함께하기. 원더박스가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Wonderbox, established in 2013, has published books that answer questions that have arisen in modern readers' minds, such as practical books that give tips on life, book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hat accurately get to the heart of the current trends, and essays that provide words of comfort and hope to readers. They are not only entertaining they are of real practical benefit in life.

월간 불광 ((주) 불광미디어) 137

Bulkwang Publishing (BulkwangMedia co.)

류지호 Ryu Jee Ho

0315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3, 3층
3F, 45-13, Ujeongguk-ro, Jongno-gu, Seoul, Korea

T 02-420-3200, FX +82-2-420-3400
bulkwang_c@hanmail.net
www.bulkwang.co.kr

월간 잡지

1974년 11월, 월간「불광」은 빛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불광미디어의 모태인 월간「불광」이 세상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깊이 있지만 알기 쉬운 언어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월간〈불광〉에 모든 이들이 주목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거나 가치 있는 인생을 꿈꾸거나 행복을 원하는 이들에게 월간「불광」은 부처님의 맑은 지혜와 따뜻한 자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6년 동안 월간「불광」은 때론 아버지의 따끔한 회초리였고, 때론 어머니의 포근한 품이었습니다. 한 호도 빠짐없이 발행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성장해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우수콘텐츠잡지로 수차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불교 안팎의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의 지혜와 감동을 전하는 잡지로 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The magazine, Bulkwang, first issued in November 1974, is a leading Korean Buddhist magazine. It offers a critical and incisive analysis of Buddhism in Korea and offers reflections on the crucial tasks of the time so that Buddhism can keep in tune with society. It also attempts to integrate elements of Buddhism into culture, lifestyle, and psychology so that the public can recognize Buddhism as an essential frame of reference for an alternative lifestyle in the modern world.

유나 138

YUNA

김현준 HYUNJUN KIM

1681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30, 205호(신봉동, 미래빌딩)
#205, 30, Sinbong2-ro, Suji-gu, Seoul, Korea

T 010-2675-7176, FX 0505-933-1234
kim@yunabooks.com
http://yunabooks.com

예술, 아동, 취미, 생활, 교육

안녕하세요. 행복 콘텐츠 배달부, 도서출판 유나입니다. 행복한 삶의 향기가 되는 책을 출판하고자 201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큰 가치를 둘 수 있고, 하루하루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독자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Hello. This is Yuna Publishing Company, a happy content delivery man. It was established in 2014 to publish a book that gives the fragrance of a happy life. We are striving to create a book that can place great value on small things and make daily life rich and happy. We wish all readers a happy life.

유유출판사 139

UU press

조성웅 Cho Sung-woong

10884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337, 301-704
301-704, 337 Chaeghyanggi-ro, Paju-si, Gyeonggi-do

T 031-957-6869, FX 0303-3444-4645
uupress@gmail.com
http://facebook.com/uupress, 인스타그램 @uupress

총류, 언어, 인문, 에세이, 글쓰기

작고 단단하게, 재미있게? 유유는 독자의 공부를 돕는 책을 만듭니다. 유유는 독자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인문교양서를 펴내는 출판사입니다. 이때 '인문'은 독일어의 '빌둥'Bildung, 영어의 '리버럴 아츠'liberal arts, 일본어의 '교양'教養을 가리키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 자신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키워내기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 이것이 유유가 지향하는 인문교양의 개념이며, 유유는 독자가 이런 개념을 스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을 만듭니다.

UU Press publishes easy and enjoyable books in liberal arts for readers in general. Its goal is to expand and harness general knowledge and intellectual capacities, which go beyond the bounds of professional, vocational, or technical requirements. This, in this capitalized world where the utilitarian knowledge and skills prevail, may be of no practical use. However, the flip side of the coin presents awakening freedom-freedom from the slave status of mechanical knowledge acquisition. UU press intends to promote self-education where readers nurture and develop themselves into a intellectually independent human being, which, again, is in full line with the concept of liberal arts UU press pursues. Through the medium of book, UU press helps its readers internalize these ideas.

윤에디션 140

YUN edition

김윤정 YUN JUNG KIM

1038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 자유프라자 703호
YUNedition 703, 150, Juyeop-ro, Ilsanseo-gu, Go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 070-7517-0019, FX 031-696-6633
yunedition@gmail.com
https://smartstore.naver.com/yunedition
인스타그램 @yunedition

아동

윤에디션은 독자와 작가의 직접적인 소통을 즐기며, 책이라는 종이의 물성을 최대한 살린 그림책을 선보이고 싶어하는 그림책작가 김윤정의 독립출판사입니다. 대표도서로 『엄마의 선물』, 『빛을 비추면』, 『커다란 손』,이 있습니다.

YUN Edition is a Seoul-based publisher. Most of our books are picturebook, conceptual image-book and artbook. YUN eidtion is best known as the publisher of Yun's Mam's gift and In light.

율도국 141

ULDO nation

김홍열 Kim hong-yeoul

01349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09-32 (3층)
3rd floor, 609-32, Dobong-dong, Dob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3297-2027, FX 0505-868-6565
uldokim@hanmail.net
http://cafe.naver.com/uldo

사회과학, 예술, 문학, 아동, 학습참고

'율도국'이란 조선 시대의 홍길동이 기성 왕조질서의 대안으로 만든 유토피아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위한 출판물을 만들어 보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 출판사로서 13년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종이책, 전자책 등 160종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Uldo nation' is a utopia proposed by Hong Gil-dong as an alternative against the pre-existing orders of Joseon Dynasty. We, Uldo, have a vision to make a publication for such an ideal society in keeping with the spirit. As a general publisher, we have published 160 books about various fields, of various types from paper books to e-books for 13 years.

(주) 은행나무출판사 142

EunHaeng NaMu Publishing Co.

주연선 Yeon Sun Joo

04035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1길 54 은행나무출판사 (4-6층)
384-12 Seogyo-dong, Mapo-gu, Seoul 121-839, South Korea

T 02-3143-0651~3, FX 02-3143-0654
ehbook@ehbook.co.kr
http://ehbook.co.kr/

사회과학, 문학

시대와 미래를 읽는 책, 재미있고 감동 깊은 책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기도 합니다. 책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바깥세상에 관심을 갖게 하는 힘. 우리의 삶은 책을 통해 더욱 확장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출판사는 한 명의 독자라도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책, 많은 독자들이 함께 교감하는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잎과 열매가 모두 유용하면서 생명력이 강한 은행나무처럼 독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깊이 남는 좋은 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은행나무출판사는 "시대와 미래를 읽는 책, 재미있고 감동 깊은 책"을 모토로, 독자의 다양한 요구를 먼저 생각하는 열린 출판,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젊은 출판, 좋은 콘텐츠와 정확한 지식 · 정보를 전달하는 신뢰받는 출판을 지향합니다. 책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출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은행나무출판사는 앞으로도 독자가 원하는 책, 이 시대에 필요한 책으로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Books Reading the Times and the Future, Books Giving Pleasure and Emotion. A book could change the path of one's life. Books have force to do that. The force make us look into the inside of ourselves and watch the outside with deep concern. Lives of all of us would be expanded and more abundant with books. We EunHaeng NaMu Publishing co. endeavor to make books truly satisfying readers' desire even it might be only one person as well as provoking interchange and sympathy among readers. EunHaeng NaMu is named after a viable tree Gingko which is a very useful plant with its leaves and nuts to human. We aspire to bring books making a profound impression and lasting long like the tree. As the motto we head for our destination as the sensible publisher reading various wants of readers precisely, the passionate publisher leading

은혜출판사

Grace Publisher

장현덕 Hyundeog Jang

03112 서울시 종로구 종로65길 12-10 그레이스탑 지하1층
Grace Top BD, 12-10 Jongno-65gil, Jongno-gu, Seoul

T 02-744-4029, FX 02-744-6578
marketing@okgp.com
http://okgp.com

종교

Grace은혜출판사는 잠언 9장 10절 말씀"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를 바탕으로 1988년 1월8일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받는 삶을 위해 문서 전도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출판을 하였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일학교 교육에 중점을 두어 주일학교 교육자료, 어린이 설교집 및 동화 신앙서적 등 700여 종 이상 출판해 왔습니다. 1992년 이후 부터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보아 성령과 치유에 관한 책을 출판 하였고, 근래에는 많은 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독교 교리를 바탕으로 한 심리서적, 자기계발서 등을 출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호흡하며 구원받는 신앙체험을 위해 다양한 도서들을 앞으로도 정성껏 출판할 것입니다.

Grace Publishing Company was founded in 1988 with our stated mission, Proverb 9:10,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knowledge of the Holy One is understanding." We have published over 700 titles about Sunday school lessons and materials as well as children's stories. We continue to publish as our missionary work to redeem souls with the fear of the Lord. Since 1992, we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living in Holy Spirits and have produced many books of quality Christian content about the Holy Spirit and inner-healing. Recently, we have published more self-help and psychology books on Christianity based on new demands to reach out to more believers. We will continue to do our best to work in Holy Spirit and publish more diverse books to redeem more lives.

이룸아이

144

ErumI

송수정 SU JUNG SONG

08512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32,(갑을그레이트밸리) A동 405호
#A-405 Gabeul-greatvalley, 32, Digital-ro 9-gil, Geumcheon-gu, Seoul, Korea

T 02-373-0120, FX 02-373-0121
eribook@naver.com
http://eribook.com

아동

이룸아이_'뜻한 대로 되게 하다' 어린이의 꿈과 희망이 뜻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의 이룸아이는 세계로 뻗어 나가는 어린이 도서 전문 출판사입니다. 영·유아 장난감 책을 비롯하여 아동용 정보 그림책까지 어린이 도서 전 분야에서 아이들의 감성과 지성을 고루 발달시키는 책을 만들어 갑니다. 좋은 책이 있어 행복한 세상,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이룸아이에서 시작합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그 꿈과 희망을 쑥쑥 키워 갈 수 있도록 토대가 되는 책을 만들기 위해 이룸아이가 노력합니다. 어린이 문화의 연결 고리로써 어린이가 꿈꿀 수 있는 책, 어린이의 무한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도서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ErumI Book Publishing Co. has published domestic children's books, foreign story books in translation, children's verses, and educational and study-aid story books for children. Also, we have published picture books and lesson books for infant including toddlers. Furthermore ErumI Book Publishing Co. is going to publish children's books that give necessary knowledge and heart warming story and develop imagination and creative thinking to have a better future for children.

이야기꽃

145

IYAGIKOT

김장성 Jangsung Kim

03974 서울 마포구 연남로13길 17
2F, Yeonnamro 13gil 17, Mapo-gu, Seoul

T 070-8797-1656, FX 02-6499-1657
iyagikot@naver.com
http://iyagikot.com,

아동, 그림책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세대가 그림책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여 평화에 이르기를 꿈꿉니다. 교육이나 계몽의 도구이기보다는 작품 자체로서 목적인 그림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책이 디지털화하여도 그림책은 인간의 따뜻한 손길이 담긴 아날로그로 존재하리라 믿으며, 좀 더 깊이 있고 감성적인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t Iyagikot, we try to create picture books that are works of art people will want to decorate their lives with. Our goal is to have people old and young communicate and understand each other through picture books. With this aim in mind, we are making efforts to publish picture books that show class in quality by working with truthful and passionate authors. Even if all the other books in the world are switched to digital form, we believe picture books will stay in paper form with all the emotion of analog intact and deliver human warmth to readers.

이유출판 146

IUBOOKS

이민 I Min

34860 대전시 중구 중앙로59번길 81, 2층
2nd Floor 81, Jungang-ro, 59beon-gil, Jung-gu, Daejeon, South Korea

T 010-3894-8346, FX 070-4170-4107
iu14@iubooks.com
http://iubooks.com

철학, 종교, 사회과학, 예술, 아동

이유출판은 책을 좋아하는 건축가와 디자이너 부부가 2014년에 첫 책을 출간하며 출발한 일인 출판사입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삶의 중심추를 대전으로 옮기면서 지역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특정 지역에 애착을 갖는 편은 아닌지라 지역 출판사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의 한복판이며 출판이야말로 이런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매체라고 여깁니다. 건축과 디자인을 중심으로 인문, 사회, 교육 분야로 넓혀가며 각 영역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잃지 않으면서 독자들도 책 내용을 자신의 문제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IUBOOKS is a publishing house where a couple of book-loving architect and designer started publishing the first book in 2014. After living in Seoul, we moved to Daejeon and became a local publisher. Since neither of us is attached to a specific region, the expression of a local publisher is a bit awkward. We belive that where we are standing is the center of the world, and publication is the best medium to express this idea. Focusing on architecture and design, expanding into the fields of humanities, society, and educations, building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in each field, and trying to create a book that readers can feel and accept the contents of the book as their own problems without losing expertise in that field.

이음출판사 147

EUM Publishing House

주일우 JOO Iroo

0403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길 52 운복빌딩 3층
52 Worldcupbukro 1-Gil, Mapo-gu, Seoul, Korea

T 02-3141-6126, FX 02-6455-4207
iroo@eumbooks.com
https://blog.naver.com/eumbook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문학, 아동

이음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과 문학을 출판하는 종합출판사입니다. 이음의 저자들 중에는 한국을 이끌어가는 사상가와 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음은 여러 학문을 아우르는, 경계가 없는 시대의 정신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지지합니다. 지식의 최전선을 다루기 위해서 〈인문예술잡지 에프〉를 발간했고, 〈과학잡지 에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이면서 새로운 작업들을 엄선해서 단행본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음과 함께 했던 학자와 작가들은 최재천, 강호정, 정하웅, 황승식, 송민령, 전중환, 류형돈, 박지형, 전치형, 강연실, 이두갑, 최형섭, 김현경, 최정규, 박상훈, 김호, 이건용, 민현식, 김병종, 김경욱, 하성란, 김초엽, 최제훈 등이 있습니다. 이음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생각을 교류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피터 싱어, 찰스 테일러, 브루노 라투어, 리처드 쎄일러, 리처드 화이트, 이블린 폭스-켈러, 해리 콜린스, 존 톰슨, 존 메이너드 스미스, 톰 빙험등 세계적인 사상가와 저술가들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음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비평, 그리고 예술작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UM is a Korean publisher in the natural sciences, social sicences, humanities and literature. Our list features some of the leading thinkers and scholars in Korea. We focus on original, cutting-edge work of the highres quality. Many of our books are of interest to general readership and are widely reviewed and discussed in the media. To deal with the frontline of knowledge of our time, we publish science magazine EPI. We are committed to the diffusion of ideas across language barriers. Among the many authors we translate are Bruno Latour, Peter Singer, Charles Taylor, Ricahrd Thaler, Evelyn Fox-Keller, Harry Collins, John B. Thompson, John Maynard-Smith, Tom Bingham and Richard White. Established in 2005, EUM has grown steadily into one of the most influential group in the Korea.

이지스퍼블리싱 (주)

EasysPublishing Co., Ltd.

이지연 Lee Jeeyoun

04003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09 이지스 빌딩 4F
4F 109, Jandari-ro, Mapo-gu, Seoul

T 02-325-1722, FX 02-326-1723
service@easyspub.co.kr
http://easyspub.co.kr

총류, 기술과학, 학습참고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책을 만드는 곳, 이지스퍼블리싱(주)입니다. IT 분야에서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고 싶다면 'Do it!' 시리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는 '된다!' 시리즈를 만듭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지스에듀라는 브랜드로 아이들을 탈락시키지 않고 모두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책을 만듭니다. 독자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며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출판사, 이지스퍼블리싱을 만나 보세요.

Founded in 2010, EasysPublishing has philosophy of publication to 'make specifically helpful books for people.' Representative series of EasysPublishing is <Do it! Series>. In particular, <Do it! Jump to Python> was ranked in the 1st place in IT Programming division from 2016 to 2020 receiving wide affection of readers. And, in 2014, the top rending book in computer IT division at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was <Do it! html5+css3 Crystallization of Web Standard>. Children education book series 'My house is a creative playground' is exported to Asian countries such as Taiwan, China and Thail and attracting wide popularity. From 2014 onward, we published <Busy Series> for quick algorithm for bus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quick English series for bus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 <EasysEdu> an education brand publishing education books and we were appraised as the top in publisher market growth.

이지앤북스 149

easyandbooks

송민지 song minji

07206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55길 11, 6층
#6 seonyuro55gil 11, youngdeungpogu seoul

T 02-516-3923, FX 02-516-3921
books@easyand.co.kr,
www.easyand.co.kr

여행

한국의 대표 여행 출판사. 2001년 창간한 이래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지 유럽〉을 필두로 총 13권의 이지 시리즈를 출간했으며, 여행 무크지 〈트립풀〉 시리즈, 여행 에세이 등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특히 〈트립풀〉 시리즈는 잡지(MAGAZINE)의 트렌디함과 단행본(BOOK)의 내실 등 장점과 특징을 살려 한국 출판 업계에 여행 무크지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창간호 〈트립풀 후쿠오카〉는 한국 최대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여행 서적 사상 최초로 14주 연속 1위라는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도시를 출간하며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EASY&BOOKS is a renowned travel book publisher in South Korea. We have published 13 Easy travel books as a series, and our most popular book, [Easy Europe], has never missed a spot in the best sellers list since it was first published in 2001. Since then, we've also successfully presented the Mook series, [Tripful] and various travel essays.

인사이트브리즈 150

Insightbriz Publishing House

임신희 Yim, Shin-Hee

1041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91
406-602 Gangchon-ro 191, Ilsandong-gu, Goyang city, South Korea

T 010-7255-2437
insightpub@naver.com
www.insightbriz.com

사회과학, 예술, 문학

당사는 2012년 9월에 '생각을 일깨우는 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창업하여, 20여 년간의 출판계 경력을 발판으로 현재 50여종의 전자책과 오디오북 그리고 10권의 종이책을 출판/유통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자책 해외 수출을 위해 각종 국제 도서전에 참가 혹은 참관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판콘텐츠의 개발과 IP 수출 및 전자책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하고 융합콘텐츠 생산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Founded in September 2012 under the catchphrase of 'Recalling the Moment,' we are currently publishing/distributing 50 kinds of e-books, audio books and 10 paper books based on our 20 years of experience in the publishing industry, and participating in or attending various international book fairs to export Korea's e-books overseas. We tr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ublishing contents, the development and extension of its coverage of IPs and e-book technology, and focus our efforts on the production of convergence contents.

읻다

ITTA

김현우 KIM HYUNWOO

04035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1길 64, 401호
Yanghwaro 11gil, 64, 401, Mapo-gu, Seoul

T 02-6494-2001, FX 0303-3442-0305
itta@itta.co.kr
http://itta.co.kr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문학

2015년 봄, 20-30대 출판인들이 모여 '노동 공유형 독립 출판 프로젝트'를 통해 출범한 읻다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고전이나 재조명할 가치가 있는 텍스트를 발굴해 번역, 출간하고 있습니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전쟁일기』, 폴 발레리의 『테스트 씨』, 에드몽 자베스의 『예상 밖의 전복의 서』와 같이 다채로운 분야로 구성된 '괄호 시리즈'를 통해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읻다 시인선'은 전 세계 낯모르는 시인들의 시집을 단지 외국 시집이 아닌, 시의 이미지와 호흡, 리듬과 분위기를 옮기면서 한국어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장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작가와 사상가의 편지를 소개하며 그들의 삶과 작품을 교차하며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ITTA, launched by young publishers as a 'labor-sharing, independent publishing project', discovers and publishes texts that not yet been introduced, or worth re-examination. The Parenthesis series consists of a variety of fields, such as Wittgenstein's "War Diary," Paul Valéry's "Monsieur Teste" and Edmond Jabès' "Le petit livre de la subversion hors de soupçon", introduced books that break down the boundaries of the genre and give new impetus. The ITTA Poetry' series aims to set up a place to experiment with the possibilities of Korean by translating the poems of obscure poets around the world, not just mere foreign poems, by rendering properly the image, breath, rhythm and atmosphere of poetry. We also will introduce correspondence from writers and thinkers, and continue a new series that will allow us to understand and traverse their ideas, works and lives. In the future, we will introduce correspondence from writers and thinkers, and continue a new series that will allow us to understand and traverse their ideas, works and lives.

자유문고

Jayoomungo Publishing Co.

김시열 Kim Siyeol

02832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Seoul Sungbuk-gu Dongsomunro 67-1, 3F

T 02-2637-8988, FX 02-2676-9759
jayumg@hanmail.net
http://cafe.daum.net/jayumungo

총류, 철학, 예술

자유문고는 중국과 한국의 고전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일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고전 65종을 번역, 출판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요 고전들을 꾸준히 펴낼 예정입니다. 또한 종합 출판을 지향하여, 서양철학, 문학, 예술, 실용,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Jayoomungo Publishing Co.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Chinese and Korean classics into modern languages. It has already translated and published 65 major classics, and plans to continue publishing popular historical works in the future. In addition, with the aim of comprehensive publishing, it presents books in various fields such as Western philosophy, literature, art, practical use, and social science.

(주) 재능교육 153

JEI Corp.

박종우 PARK JONG WOO

030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93
293 CHANGGYEONGGUNG-RO JONGNO-GU SEOUL 03076 KOREA

T 02-744-0031, FX 02-6716-8158
jeibook@naver.com
www.jeibook.com

아동, 유아

재능교육의 어린이 책은 어린이가 스스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가도록 돕습니다. 재능교육 어린이 책은 자연에서 배웁니다. 생명과 환경을 비롯해 소통, 배려, 용기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들을 언제나 희망차고 따뜻한 메시지로 전합니다. 재능교육 어린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밝은 세계관을 갖고 스스로 멋진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JEI children's books come from nature values. Our books deliver the timeless values that readers must know about life, environment, communication, consideration and courage in heartwarming messages. Through JEI children's books, we hope to provide a brighter outlook on the world and help children independently achieve their dreams.

주머니시 154

pocketpoem

송유수 song yusu

1559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학연산클러스터센터 4층 room 5
601-704,11, Haeyang 1-ro, Sangnok-gu, Ansan-si, Gyeonggi-do

T 010-4597-5823
pocketpoem.mail@gmail.com,
https://pocketpoem.co.kr
인스타그램 @pocketpoem_official

문학

주머니 속 시집, 주머니시는 사람들이 문학을 가볍게 소비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고자 기획한 서적입니다. 담뱃갑 형태의 패키지로 휴대성을 높이고 부담스럽지 않은 길이의 작품 20개로 구성하였습니다. 문학을 즐기기에, 선물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주머니시는 다양한 작가가 참여하는 서적입니다.주머니시는 작품공모를 통해 여러 작가와 협업하여 만든 시집으로, 사람들의 글을 소개하는 문학컨텐츠 플랫폼입니다. 판매를 통해 참여 작가에게 인세를 제공하고 작품 활동을 지원합니다.

A book of poetry in pocket, POCKETPOEM was planned by book which people read and share literature easily. POCKETPOEM consist of 20 works and packages in the form of cigarette packs. This is good to enjoy a literature and be good for gifts. POCKETPOEM is a book that various writers participate in. POCKETPOEM is a book of poetry that collaborate with many writers and is a literary content platform that introduces people's works. We provide royalty to participating writers through product sales and support their work activities.

주식회사 282북스 155

282books

강미선 Kang Misun

07212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신관 16층
57, Seonyudong 2-ro,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010-9696-3977
282books@naver.com
https://instagram.com/282books

문학

사회 소수 그룹의 상처받은 마음을 글쓰기를 기반으로 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으로 치유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된 이야기를 출판, 전시, 공연 등의 형식으로 세상에 공유하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완화하는 일을 합니다.

To heal the wounded hearts of minority groups in society with an art healing program based on writing, and to share the stories produced in this process with the world in the form of publications,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to alleviate the prejudice and misunderstandings of society. Do it.

지구불시착 156

unplanned Earth

김택수 kim taecksu

01803 서울 노원구 화랑로 464
464, Hwarang-ro, Nowon-gu, Seou

010-5122-3532
9illruwa@gmail.com, ins@illruwa2

예술, 문학

지구불시착은 노원구의 작은 동네 책방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마을 공동체가 운영하는 카페에 있습니다. 해서 마을의 것이기도 합니다. 마을 주민과 독립출판 작가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책방을 방문하며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씁니다. 글은 혼자 쓰기도 하고, 함께 쓰기도 합니다. 책방은 살롱 문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라도 출판이 될 준비를 합니다. 출판사 지구불시착은 그런 운명을 안고 이곳에 불시착했습니다. 지구불시착에서 출판되는 이야기는 모두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The Earth's emergency landing started at a small neighborhood bookstore in Nowon- Now I'm in a cafe run by the village community. So it belongs to the village. It is mainly used by villagers and independent publishers. I draw pictures or write while visiting a bookstore. I write by myself and sometimes I write by myself. The bookstore is at the center of Salon literature. Their stories are always ready to be published.

지오북(GEOBOOK) 157

GEOBOOK Publishing Co.

황영심 Hwang, Youngsim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015호
1015, 28, Saemunan-ro 5ga-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732-0337, FX 02-732-9337
geobookpub@naver.com
www.geobook.co.kr

자연과학

자연을 담은 책, 자연을 닮은 책. '지오북GEOBOOK'은 GEO(지구, 토지) + BOOK(책)을 합친 말이다. 지오북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과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물론 세계의 다양한 생물들을 풍부한 사진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연생태도감을 펴내고 있다. 생물학, 생태학, 지리학,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도서도 출판하고 있다. 지오북은 2004년 첫 책 〈광릉숲에서 보내는 편지〉를 출간했으며, 〈한국의 양치식물〉 등 많은 생물도감을 펴냈다. 진화론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앨프리드 월리스의 〈말레이제도〉를 국내 최초로 번역 출간한 바 있다. 최근에는 남극과 북극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활동하는 한국 자연과학자들의 과학탐사 현장노트를 책을 엮어 출간하고 있다.

Nature in Books, Books in Nature. 'GeoBook' means GEO (meaning earth, land) and BOOK. GeoBook is deeply interested in natural phenomena occurring on Earth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Therefore, we are publishing an illustrated guide book of various flora and fauna in Korea as well as around the world. We also publish books on biology, ecology, geography,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GeoBook published first book <Letter from Gwangneung Forest> in 2004, and published many biographical books including <Pteridophytes of Korea: Lycophytes & fern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e published the translation of <The Malay Archipelago> by Alfred Wallace, one of the founders of evolutionary theory. We recently published a book of scientific exploration field notes of Korean natural scientists working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the Antarctic and the Arctic.

지콘디자인 158

zicondesign

장형순 Jang Hyeong sun

16009 경기도 의왕시 청계1로27, 201-1203
201-1203, cheong-gye 1ro27, Uiwang, Gyeong-gi

T 010-4719-4346, FX 031-426-1197
digitalzicon@naver.com
www.zicondesign.com

창작소설, 종이모형만들기

지콘디자인은 오리지널 창작소설과 종이모형 관련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창작소설은 주로 판타지 계열이며 이것들은 향후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4권의 창작소설과 2권의 종이모형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ZICONDESIGN publishes original creative novels and books on paper models. Creative novels are mainly fantasy stories, and they have a desperate desire to become movies or animations in the future. So far, 4 creative novels and 2 paper model books have been published.

진선출판사 159

JINSUN PUBLISHING CO., LTD

허진 HUH JIN

03147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수운회관 1505호 (삼일대로 457)
15F Suunhoegwan, 457 Samil-daero, Jongno-gu, Seoul, 03147, Republic of Korea

T 02-720-5990, FX 02-739-2129
jinsun150@naver.com
http://jinsun.co.kr

자연과학, 예술, 아동

진선출판사(주)는 소중한 가치를 담은 어린이, 자연, 예술,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펴내는 종합출판사입니다. 1988년 칼릴 지브란의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를 시작으로 다양한 자연 과학 도서, 영어, 미술 취미 단행본, 각종 도감 및 학습 만화 등을 출간해 왔으며, 많은 책이 문화관광부, 한국출판문화협회 등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의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출간된 도서로는 〈5분 컬러링북 플라워 세트〉 〈들꽃 쉽게 찾기〉 등이 있습니다.

Jinsun Publishing Co., Ltd. is a comprehensive publishing company that publishes book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children, nature, art, and hobbies. We started Khalil Gibran's <The love you can show is very small>in 1988. And we have published various natural science books, English, art hobby books, and various illustrated books and learning cartoons. Many books have been selected as excellent books by 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the Korea Publishing Culture Association, etc. Some of the recently published books include <Five Minute Coloring Book Flower Set> and <Finding Wild Flowers Easily>

(주) 진인진 160

ZININZIN Corp.

김태진 Tae Jin KIM

1383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18 과천오피스텔 614호
Kyeongki-Do Kwachon-si ByulYangSangGa1-Ro 18 Kwachon officetel 614

T 02-507-3077, FX 82-2-507-3079
kimtae414@gmail.com
www.zininzin.co.kr

사회과학, 역사, 고고학, 인류학

2000년 고고학 학술정보 통합관리 체계 개발을 중심으로 한 정보시스템 개발업체로 창립된 (주)진인진은 2009년부터 종이책을 자체기획해서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정보 관리의 파생서비스에서 시작된 진인진의 출판업무는 주요 사업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11년간 총 200종에 이르는 학술보고서, 자료집, 이론서와 교양도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 이래 총 19종의 도서가 학술원 및 세종도서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었으며, 최근에는 대안 경제사상인 기본소득과 현대화폐이론을 주제로 한 학술서와 교양서를 기획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0 서울국제도서전 전시에는 최근 발간된 『고구려고고학개론』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고고학 이론서 3종과 기본소득 시리즈 3종 및 현대화폐이론 평론서 1종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Founded in 2000 as an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company focusing 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archaeological academic information, ZININZIN Corp. began to plan and publish paper books in 2009. ZININZIN has been publishing a total of 200 books for 11 years. Since 2011, a total of 19 books have been selected as excellent academic books by the Koera Academy and Sejong Books, and recently, we are planning and publishing books on the subject of alternative economic ideas such as basic income and MMT. For the 2020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3 types of Goguryeo archaeological theory, 4 types of alternative economic ideas are exhibited, centering on the recently published *Introduction to Goguryeo Archaeology*.

쪽프레스 161

JJOKKPRESS

김태웅 KIM TAEUNG

04074 마포구 와우산로3길17 4층
17 Wausan-ro 3Gil Mapo-gu

T 010-7482-8693, FX 0504-211-8693
jjokkpress@gmail.com
http://instagram.com/jjokkpress

예술, 문학, 그래픽노블

쪽프레스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감동을 가벼운 그릇에 담아 내놓는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2015년 연 출판사입니다. 소설, 시, 에세이, 만화 같은 다양한 장르를 아코디언북 형태의 낱장 책으로 만듭니다. 쪽프레스의 단행본 레이블 고트는 종이를 별미로 삼는 염소가 차마 먹지 못한 책을 소개한다는 콘셉트로 2018년 시작되었습니다.

"jjokkpress"(since 2015) is a publishing company that puts the emotion of beautiful stories in a fitable bowl. We covers various genres such as novels, poems, essays, and comics. Our another label for hard book is "goat"(since 2018). "goat" selects and publishes a cultural & artful book with the concept of introducing a cherish and hidden book that the goat that eats paper deliciously could not swallow.

참돌 162

Chamdol

송미진 SONG MIJIN

0404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3길 51 서주빌딩 101,102호
51, Dongmak-ro 3-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518-3919, FX 0505-318-3919
book@charmdol.com
https://smartstore.naver.com/artnouveau

예술, 문학, 아동, 아트북

(주) 참돌은 아트북, 컬러링북, 실용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바르고 단단한 책을 만들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독자가 믿고 볼 수 있는 좋은 책을 출간하고자 노력해왔고, 그 결과 출간한 여러 책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서울시교육청 추천도서, 대교 눈높이 창의독서, 서울환경연합 선정도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관 추천도서 등에 선정되어 책의 품질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Chamdol is a publishing company that produces books covering various fields, including fiction, non-fiction, art books, coloring books, and activity books. Charmdol is actively publishing works of art including art books and coloring books. We always attempt to publish high quality books that readers can trust in, and as a result, many books published by us are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y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by Seoul Environment Association, and Korea Children's Hall for their quality and credibility.

창비 163

Changbi

강일우 Kang il-woo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84
184,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 031-955-3306, FX 031-955-3400
sykang@changbi.com
http://changbi.com

철학, 사회과학, 예술, 문학, 아동

창비는 1974년 단행본 출판을 시작한 이래 문학, 인문, 사회, 교양, 어린이 · 청소년, 교과서 등 각 분야의 양서들을 꾸준히 펴내왔습니다. 지금까지 3천여 종이 넘는 책을 간행하였고, 매년 270여종 내외의 신간을 내고 있는 창비는 독자들에게서 가장 신뢰받는 출판사로 꼽히며, 양서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Changbi Publishers, Inc., also known simply as “Changbi,” is a publishing house that represents the finest critical, intellectual, and cultural thought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Since the founding of the Quarterly Changbi(“changbi” means “Creation and Criticism” in Korean) in 1966 and the first publication of books in 1974, Changbi has published original works in a wide array of fields, from literature and the humanities to social sciences and literary works for young people. Having published more than 3,000 unique titles, it continues to bring out seminal contemporary and classical works, both in Korean and translated from foreign languages, thereby continuing its reputation as a publishing house that is trusted by its readers in South Korea and beyond.

책읽는고양이 리수 164

reading cat / RISU

김현정 Kim Hyun-Jung

04716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76 110호 도서출판리수
#110, Hanjinnobyun-sangga 76, Haengdang-ro, Seo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2299-3703, FX 02-2282-3152
risubook@hanmail.net
http://risu.co.kr

사회과학, 문학, 역사

책읽는고양이는 동물병원 안에 있는 작은 출판사입니다. 동물병원과 출판사를 오가는 고양이들은 종종 책 위에서 휴식을 청합니다. 무심한 듯 우아하게 나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 같은 책을 펴냅니다.

Welcome to Reading Cat. We are a small publisher located in the animal hospital. Cats hanging around the clinic and publisher often rest on the books. Explore yourself through the books with our gentle old cats. Our book will lead you to the deeper inside of you.

책읽는곰 165

Bear Books Inc.

임선희 Lim Sun Hee

03973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길 74 102호
#102, 74, World Cup buk-ro 12-gil, Mapo-gu, Seoul, 03973, Republic of Korea

T 02-332-2672, FX 02-338-2672
bear@bearbooks.co.kr
http://bearbooks.co.kr/

아동

책읽는곰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 어린이 책을 만들어 갑니다. 어제는 오늘을 지탱하는 뿌리이며, 내일은 오늘에서 뻗어 나간 가지입니다. 어린이가 어제에서 오늘을 살아 낼 자양분을 얻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 풍성한 내일을 피워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일, 책읽는곰이 생각하는 어린이 책 출판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책에 담아 낸 오늘이 시간을 견디고 내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꿈을 꾸며, 책읽는곰은 오늘도 한 권 한 권 어린이 책을 만들어 갑니다.

Bear Books makes books for children that connec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ours. We are publishing a variety of books for children, including newly created picture books containing the lives and dreams of children, picture books with beautiful Korean traditional culture, nonfiction picture books that widen the prospect of thoughts of children.

천개의바람 166

A Thousand Hope

최진 Choi, Jin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115, 세종출판벤처타운 405호
405, 115, Munbal-ro, Paju-si, Gyeonggi-do, 10881, Republic of Korea

T 031-955-5243, FX 031-622-9413
miso9499@naver.com
https://blog.naver.com/athousandhope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아동, 그림책

우리말로 '바람'은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부는 '바람'과 바라는 '바람'입니다. '천개의바람'은 '부모가 아이에게 품을 수 있는 천 가지 바람'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책 한 권, 한 권마다 '건강하기를', '고운 말을 쓰기를' 같은 소소한 바람을 담으려 합니다. '천개의바람'이라는 이름에는 숨은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빛깔을 뿜어내는 아이들이지만, 한 가지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개의바람은 아이가 천 명이라면, 꿈도 천 개인 세상을 바랍니다. 천개의바람은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그림과 색으로 아이들에게 전하려 합니다. 아이를 향한 천 개의 바람, 세상을 향한 아이의 천 가지 꿈, 그 소중한 마음이 담긴 책을 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A Thousand Hope' means a thousand wishes that parents have for their children. We try and want to put messages like 'Keep healthy', 'Try to use good words' or so much more in every book. There is one more hidden meaning in 'A Thousand Hope' and that is we hope children to have dream more freely. Every kid must have their own dream. We wish to have a world that if there are 1000 children, there will be 1,000 different dreams. We want to make books that support every children's various dreams.

청미출판사 167

Cheongmi Publishing Company

이종호 LEE, Jong-Ho

04080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58(103-1403)
103-1403, 158, Tojeong-ro, Mapo-gu, Seoul Korea

T 010-7407-0377, FX 0505-300-0377
cheongmipub@daum.net
https://blog.naver.com/cheongmipub

철학, 사회과학, 문학

청미 출판사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어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의 철학, 인문에서부터 실질적인 생활의 소소한 에세이까지 나누는 시니어 전문 출판사입니다.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고, 지혜와 평온함의 성숙기에 이르는 삶의 모든 단계를 여행하는 순간순간에 청미출판사가 함께 합니다. 항상 독자와 소통하며 더 좋고 가치 있는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Cheongmi Publishing Co., is a senior professional publishing company that begins with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Homo Hundred era and shares the philosophy of asking questions about the origin of existence such as "what is human", and from humanities to small essays in practical life. From birth to adolescence, to adulthood, and to the maturity of wisdom and tranquility, Cheongmi Publishing Company is with you at the moment you travel through all stages of life. We always try to communicate with our readers and make better and valuable books.

청아출판사 168

Chung-A Publishing Co.

이상용, 이성훈 Lee Sang-Yong, Lee Sung Hoon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63-15 202호
363-15,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 031-955-6031, FX 031-955-6036
chungabook@naver.com
https://post.naver.com/chungabook?isHome=1,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문학, 역사

청아는《시경(詩經)》〈소아(小雅)〉편에 수록된 '청청자아(青青者莪)'에서 유래된 말로, 무성한 쑥과 같이 많은 인재를 교육함 혹은 그 인재를 뜻합니다. 1979년 사회과학 서적을 시작으로 인문역사서, 교양 및 경제, 명상, 문학, 과학 분야의 책을 두루 출판하고 있습니다. 국내 저자가 직접 집필한 쉽게 읽을 수 있는 역사서,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주는 교양서, 전문적이면서도 친근하게 다가가는 과학서, 정신을 살찌우는 양서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 서적으로는〈이야기 역사 시리즈〉,《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빅터 프랭클의《죽음의 수용소에서》등이 있습니다.

Chung-A Publishing Co. started publishing social sciences in 1979, and now it publishes various books such as history, art, humanities, and literature. We are focused on making funny and easy-to-read books written by Korean authors and foreign books.

초록비책공방 169

Greenrainbooks

윤주용 yun joo yong

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925C호
KGIT center 925C ho, 402, World Cup buk-ro, Mapo-gu, Seoul, Korea

T 050-5566-5522, FX 02-6008-1777
jooyongy@daum.net
https://instagram.com/greenrainbooks

사회과학, 예술, 문학, 역사, 아동

초록비책공방은 2014년 1월 출발하여50여 종을 낸 작지만 강한 출판사입니다. "어려운 것은 쉽게, 쉬운 것은 깊게, 깊은 것은 유쾌하게!"라는 모토로 경제경영, 인문, 청소년, 실용,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쉽고 깊고 유쾌한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서로는 〈독서의 기쁨〉, 〈활자 안에서 유영하기〉, 〈펜과 종이만으로 드로잉〉 시리즈, , 〈여성독립군열전〉, 〈세계 독립의 역사〉, 〈디자인씽킹 경영을 바꾸다〉, 〈디자인씽킹으로 일 잘하는 방법〉, 〈철학이 있는 목공수업〉 등이 있습니다.

GreenrainBooks Workshop is a small but strong publishing company that started in January 2014 and produced more than 50 species. With the motto of "Difficulty is easy, easy is deep, deep is pleasant!", we publish easy, deep and pleasant books in various fields such as economic management, humanities, youth, practical use, and essays. His major books include <The Joy of Reading>, <Swimming in Type>, <Drawing with Pen and Paper> series, <Women's Independence Army Exhibition>, <History of World Independence>, <Change Design Thinking Management>, <Design There is a way to work well with thinking> and <Woodworking class with philosophy>.

(주) 출판사 클 170

KL Publishing Inc.

김경태 KYOUNGTAE KIM

03385 서울 은평구 연서로26길 25-6
2F, 25-6, Yeonseo-ro 26-gil, Eunpyeong-gu, Seoul

T 070-4175-4680, FX 02-354-4680
bookkl@bookkl.com
blog.naver.com/bookkl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문학, 취미

출판사 클은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2년부터 인문, 사회, 과학, 실용, 취미,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담은 소설, 에세이를 포함해, 단단한 사고와 탁월한 상상이 돋보이는 인문, 사회, 과학의 도서, 일상에 기쁨을 주고 엄선된 정보를 전하는 요리, 여행, 공예 등 실용서를 출간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컬러링북 열풍을 일으킨《비밀의 정원》을 비롯, 페이퍼 커팅 아트북《피어나다》 등 새로운 분야를 과감히 기획하며, 독자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특별한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합니다.

카멜북스(카멜팩토리) 171

Camelbooks

이광재LEE GWANG JAE

04071 서울 마포구 성지길 25 2층
25, Seongji-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70-4866-5945, FX 02-374-8614
camelbook@naver.com
www.camelfactory.co.kr

예술, 문학, 에세이

카멜북스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치와 살아있는 지식을 담은 책으로 건조한 일상에 작고 단단한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광활한 모래사막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낙타와 같이, 메마른 삶을 관통하는 질문이 담긴 콘텐츠로 가득한 세계를 찾아 나서고자 합니다. 강력한 기획력을 기반으로 작가들의 실험정신과 새로운 도전에 주목해 다양한 분야의 양서를 출판합니다.

Camel Books is a book that contains values and living knowledge that move the human mind and conveys small, hard beauty in dry daily life. Like camels that step by step on the vast sandy desert under the hot sun, we are looking for a world full of content with questions that penetrate dry life. Based on strong planning skills, we publish good books in various fields, focusing on the experimental spirit of the writers and new challenges.

카카오 브런치 172

Kakao Brunch

여민수, 조수용 Min Soo Yeo, Su Yong Joh

633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N동 7층
242 Cheomdan-ro, Jeju-si, Jeju-do, Korea

T 010-3825-5911 FX 02-6718-3403
brunch.co.kr@hanmail.net
http://brunch.co.kr

총류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2015년 6월부터 카카오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입니다. 브런치에 글을 발행하려면 작가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승인된 브런치 작가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0년 9월 현재, 브런치에 등록된 작가 수는 약 3만 5천 여명, 브런치 작가가 출간한 도서는 2,800여권에 달합니다.

Brunch is a content publishing platform that Kakao launched in June 2015 with the vision 'Brunch, where your writing becomes a piece of work'.
Brunch writers are selected through screening and evaluation, and the selected authors publish quality content. As of September 2020, there are about 2,800 books published by 35,000 Brunch writers.

커뮤니케이션북스 173

CommunicationBooks, Inc

박영률 Park Young Yu

02880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5-11 (성북동1가 35-38)
5-11, Seongbuk-ro, Seongbuk-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747-4001
sgma@commbooks.com
http://commbooks.com/p

오디오북

커뮤니케이션북스는 새로운 출판기술을 연구하고 다양한 출판 포맷을 개발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대학 교재 분야에서는 보급판과 리딩패킷(강사 1인 맞춤 교재)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고, 어느 출판사보다 많은 전자책 종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안이나 시력이 약한 독자를 위해 모든 출판물에 큰글씨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품격 오디오북을 가장 많이 보유하여, 가장 선도적인 오디오북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Founded in 1998, communicationbooks has published 5,648 books so far. we publish about 500 new books every year, through our various specialized imprints. communicationbooks, specialized in media and communication contains 3,167 titles. ZmanZ, or “knowledge producing knowledge,” has 2,190 titles specialized in world literary classics and korean literature. Lifelonglearning has 166 titles specialized in pedagogy and lifelong learning. knowledgeSmith has 125 title in liberal arts of each carefully selected category. Audiobook has 1594 titles specialized in world literary classics and korean literature.

컬처룩 174

Culturelook Publishing Co.

이리라 Lilas Lee

03993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7일 12 씨티빌딩 302호
#302, City Bldg., 12, Donggyo-ro 27gil, Mapo-gu, Seoul, Korea

T 02-322-7019, FX +82-70-8257-7019
culturelook@daum.net
http://culturelook.net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역사

컬처룩은 다양한 지식 세계를 넘나들고 아우르는 책을 만들고자 2012년 문을 열었습니다.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분야의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미디어, 문화연구, 영화 분야에 주목해 본질적이고 주요한 주제를 심도 있고 다양한 시각으로 들여다봅니다. 이 책들은 관련 학계와 전공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축인 과학 분야는 어렵고 깊이 있는 내용도 독자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펴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은 다양한 분야와 접목한 책들을 펴내 주목받고 있습니다.

Culturelook, which was founded in 2012, has a mission of making books exploring various intellectual areas. We publish books on humanities,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and art. In particular, we focus on communication/media, culture studies, and film. We mostly aim to cover most important issues on these topics in depth with various viewpoints in our publication. Our publication has been highly appreciated by scholars and experts in these fields. We have also published books on various and popular subjects in natural science to encourage readers with diverse ages to explore these areas deeply. Especially, our books looking at mathematics through other areas such as art and science have been loved by lot of readers.

(주) 키출판사

175

Key Publications Inc.

김기중 Key-joong Kim

06258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2, 5층
5th floor, 292, Gangnam-dae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1644-8808, FX 02-733-1595
ceo@keymedia.co.kr
www.keymedia.co.kr

아동, 학습참고

1984년에 설립된 키출판사는 200만부 이상 판매된 스테디셀러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시리즈, 수능 국어의 바이블이 된 〈매3비〉, 〈매3문〉, 다채로운 콘텐츠의 명문 한글 교육 프로그램 〈아신나〉 시리즈, 초등국어 어휘력 향상의 길잡이 〈어휘력이 독해력이다〉 시리즈, 출간 즉시 화제가 된 베스트셀러 〈강성태 영어〉 시리즈, 초등영어 1위 〈문법이 쓰기다〉, 〈단어가 읽기다〉 시리즈, 초등 테마수학의 신흥 강자로 자리 잡은 〈초등분수 개념이 먼저다〉 등을 펴내며 지난 36년간 독창적이며 전문적인 콘텐츠로 교육출판계의 주목을 받으며 꾸준하게 성장해왔습니다. 교육 R&D에 앞서가는 키출판사라는 슬로건 아래 학습방법연구소를 산하에 두고,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교육을 목표로 누구라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교육 컨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Since 1984, Key Publications has met and exceeded industry standards in the realm of educational publishing. For the last 36 years, we have been at the forefront of education with numerous best-selling and steady selling products in South Korea. Our unique and innovative content caters to learners of all ages and abilities. Our vision is centered on the belief that everyone is deserving of a high-quality education. Indeed, our R&D team works tirelessly in pursuit of excellence. Our focus is science-based, data-driven, and consumer-friendly.

팬앤펜

176

PAN n PEN

김민경 KIM, Min-Kyoung

02725 서울시 성북구 삼양로43 IS빌딩 201호
201 IS Build. 43 Samyang-ro, Sungbuk-gu, Seoul, Korea

T 02-6384-3141, FX 050-7090-5303
panpenpub@gmail.com
https://blog.naver.com/pan-pen

기술과학, 예술, 문학, 음식, 인테리어

팬앤펜은 라이프스타일 관련 콘텐츠 및 비주얼 컨설팅을 하며 도서를 제작하는 출판 컨설팅 회사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즐거워지는 삶을 위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재주와 재미, 정보와 지혜를 모아 책으로 엮어내고 있습니다.

PAN n PEN is a publishing consulting publisher that consulting on lifestyle-related contents and visuals. Day by day for a more enjoyable life, we publish various books, made by people who make their contents, through collecting their talents, fun, informations, experiences, and wisdoms.

페이퍼로드 177

PAPER ROAD

최용범 Choi Yong Bum

07071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캐릭터그린빌 1322호
Character Greenville No. 1322 7 Boramae-ro 5-ga-gil, Dongjak-gu, Seoul

T 02-326-0328
book@paperroad.net
http://paperroad.net

사회과학, 기술과학, 역사, 경제경영

2006년에 출범한 페이퍼로드는 깊이 있는 인문역사서와 실용적인 경제경영서를 주축으로 사회에 느낌표와 물음표를 던지는 서적을 출간하는 단행본 출판사입니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은 차별화된 지성과 양질의 콘텐츠로 독자 여러분을 지식과 정보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Founded in 2006, Paper Road is a book publisher that publishes books that throw exclamation marks and question marks on society, focusing on deep humanities and practical economic management books. We will strive to guide our readers to the path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with differentiated intelligence and high-quality content that is not swayed by the current trends.

펭귄나라 178

Penguin World

김완수 Kim, Wan-Soo

54649 전북 익산시 동서로 181, 2층
181, Dongseo-ro, Iksan-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T 063-854-3360, FX 063-855-3360
penguinsworld@naver.com
http://penguinnara.com

아동, 교육학습

도서출판 펭귄나라는 펭귄을 찾아 민간인 세계최초 남극 10차 탐방한 김완수 펭귄작가에 의해 201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김완수 펭귄작가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며 환경지표동물인 남극의 펭귄을 통하여 "지구온난화와 지구환경을 생각하고 지구촌 어린이들을 즐겁게 한다."라는 모토로 펭귄책과 펭귄관련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펭귄나라를 설립하였습니다. 약 5년 동안에 10여 차례의 남극탐험을 통하여 남극의 펭귄 서식지 등 주요지점 70여 곳을 방문하여 펭귄과 남극의 동물, 자연경관 등을 촬영한 약 100,000여 장의 사진과 약 1,000여 개의 동영상, 약 3,700여 점의 펭귄 관련 상품, 작품 등 남극탐방을 통해 습득한 많은 펭귄 관련 자료를 활용합니다.

Penguin World Publishing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6 by Penguin Author Wan Soo Kim. Penguin Author Wan Soo Kim was led by his motto "Raising awareness of the global environment and global warming while making the children of this world happy" through the Antarctic Penguin, which is not only one of children's favorite animals, but also an environmental indicator animal, to create penguin books and other penguinrelated contents for children all around the world. Wan Soo Kim has explored Antarctica 10 times over a periodof 5 years, visiting over 70 penguin habitats and other major sites.

포널스 179

Fornurse

모형중 Mo Hyeong jung

01073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8길 22, 경남아너스빌 3층 311호
311, 22, Nohae-ro 8-gil, Gangbuk-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905-9671, FX 02-905-9670
fornurse@hanmail.net
https://fornursebook.com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학습참고

포널스는 '간호사로 성장시키는 책'을 만듭니다. 간호대 학생을 위해 교과서를 만들고, 신규간호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에세이를 만들고, 경력 간호사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전문서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간호사 길라잡이가 되어 그들의 꿈을 간호하는 책을 만듭니다. 포널스는 책을 만드는 일도 간호라고 생각합니다.

Fornurs makes a'book to grow into a nurse'. We create textbooks for nursing students, essays that comfort and encourage new nurses, and create specialized books from their perspective to continue their careers as a career nurse. And for those who dream of becoming nurses, they become nurse guides and create books that nurture their dreams. Fornurs thinks that making books is also nursing.

풀빛미디어 180

Pulbit Media

나힘찬 Na Himchan

04018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65, 양경회관 306호
#306, 65, World Cup-ro, Mapo-gu, Seoul, 04018, Rep. of KOREA

T 02-733-0210, FX 02-6455-2026
sightman@naver.com
https://facebook.com/pulbitm/

사회과학, 예술, 문학, 역사, 아동

〈풀빛미디어〉는 창립 이래 2020년 현재까지 어린이 대상 인문·사회·과학·문학 단행본을 100권 이상 출간한 출판사입니다. 독재 시절 여섯 차례나 투옥된 한국 출판문화 운동사의 거목 고 나병식 회장이 설립하였습니다. 〈풀빛미디어〉는 초연결사회에서 독자의 기대에 충족하고, 시대를 기록하고, 세대의 질문에 답하는 책을 선보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출판 전문 브랜드입니다.

Since its inception, Pulbit Media has been publishing more than 100 books on humanity, society, science, and literature for children by 2020. The founder of Pulbit Media is Na Byeongsik, the deceased president. He was imprisoned six times during military dictatorship. He is a pioneer of Korean publishing culture movement. Pulbit Media is a publishing specialty brand that meets the expectation of readers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records the times, and strives to show books that answer the questions of the generation.

피스 181

piece

이수진 Sujin Lee

0397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1길 63, 1층
1F, 63, Seongmisan-ro 11-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10-4917-4133
info@piecephoto.com
http://piecephoto.com

예술, 사진

piece는 사진 전문 출판사이자 국내외 사진집과 오리지널 프린트를 판매하는 서점으로 출판물과 서점을 통해 다양한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piece is a publisher specialized in contemporary photography, and a bookshop in Seoul, S.Korea selling photo books and original prints from domestic and overseas. piece introduces various contemporary photography through our publications and the bookshop.

학지사 182

HAKJISA

김진환 Kim Jin Hwan

040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길 20
20, Yanghwa-ro 15-gil, Mapo-gu, Seoul, Korea

T 02-330-5114, FX 02-324-2345
pr@hakjisa.co.kr
http://hakjisa.co.kr

심리학, 교육학, 특수교육학, 유아교육학, 사회 복지학 관련 분야의 전문서적 및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서적. (주) 학지사는 1992년 심리학전문출판사로 출발하여 심리검사 개발과 다양한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석학들이 참여한 양질의 지식 콘텐츠와 정보를 최적의 상태로 재구성하여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서비스합니다. 학지사는 마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학문의 전당으로서 전문화와 대중화를 추구합니다.

Beginning as a publisher specializing in education and psychology in June, 1992, Hakjisa has been published as many as 4,000 professional books in the fields of psychology, education, special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that are produced by more than 3,500 professors, along with liberal books for the general public.

한국국제교류재단 183

The Korea Foundation

이근 Geun Lee

6356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55, Sinjung-ro,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T 064-804-1151
publication@kf.or.kr
http://kf.or.kr

사회과학, 예술, 문학, 역사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1991년 설립 이래 우리나라 국가브랜드를 드높이기 위하여 글로벌 한국학 진흥, 국제협력 네트워킹, 문화예술교류 및 미디어 사업 등 외국과의 다양한 교류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공공외교 전문기관 KF의 문화예술교류 대표사업인 Koreana는 1987년에 창간된 한국문화예술 소개 종합 잡지입니다. 현재 9개 언어 종이책/전자책, 11개 언어 웹진으로 발간되며 연간 총 80,000부가 134개국 10,700여개 처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KF는 한국을 소개하는 다양한 외국어 도서를 기획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Foundation (KF) was established in 1991 to promote the charms of Korea to the world and to perform and support public diplomacy in order to strengthen its national image and consolidate the reput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specialized public diplomacy organization, the KF has worked on various foreign exchange programs including arts and cultural exchanges and media projects. The KF also publishes Koreana, a quarterly magazine that introduces Korea through feature stories in 9 different languages in print format and 11 languages in its online format. In addition, the KF publishes and supports other books that enhance understanding of Korea.

(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184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류수노 Su-Noh, Ryu

030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54
54, Ihwajang-gil, Jongno-gu, Seoul

T 02-3668-4761, FX0 2-741-4570
knoupress@mail.knou.ac.kr
http://press.knou.ac.kr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역사, 학습참고

우리 출판문화원은 방송대 학생들을 위한 대학교재와 학습 자료를 보급하기 위해 1982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우수한 필진들이 참여하여 원격교육에 알맞게 설계된 새로운 개념의 대학교재를 선보이면서 꾸준히 성장하여, 매년 200여 종의 신간을 발행하고 1천여 종의 도서로 200만여 부를 판매하는 중견출판사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학교재와 더불어, 교양도서 브랜드 '지식의 날개'(2004년)와 학술도서 브랜드 '에피스테메'(2006년), 교양문고 '아로리총서'(2008년)를 통하여 교양·학술도서 출판에도 힘을 기울여 200여 종을 출간, '지식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판문화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닥쳐올 학습 및 독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출판의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이책으로만 공급하던 방송대 교재를 디지털 교재로 제작하여 본원 홈페이지 및 시중 인터넷 서점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성인 학습 콘텐츠 종합 포털을 목표로 "모두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미션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나아가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Management Team of University Knowledge Contents and Press

김인철 Kim In Chul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107, Imun-ro, Dongdaemun-gu, Seoul Korea

T 02-2173-2492, FX 02-2173-3363
press@hufs.ac.kr
http://press.hufs.ac.kr

총류, 철학, 사회과학, 언어, 문학

본 출판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간행함으로써 학문의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In order to realize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ublishing house intends to actively respond to the era of internationalization of academics by publishing books necessary for research and education.

Since its foundation, the University Press has held an excellent reputation for producing learning materials which are highly acclaimed in terms of price and quality by both the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In 2004, the newly reorganized University Press launched an ambitious business plan, with a new brand name, “Wings of Knowledge”, to expand our publication into general trade book industry not only for the students but also for the whole nation. In 2006, the Press started with another specialty brand, “Episteme”, to focus on publishing scholarly books. Being deeply aware of the fact that the important keys to make distance learning successful include both effective production of quality educational contents and efficient distribution of those materials, we promise to perform our duty wholeheartedly to support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 world’s leading Mega-University.

한림출판사 186

Hollym

임상백 Sangbek Rhimm

03190 서울 종로구 종로12길 15 7층
15, Jongno 12-gil, Jongno-gu, Seoul

T 02-734-5087, FX 02-730-8192
info@hollym.co.kr
http://hollym.co.kr

사회과학, 아동, 영문

1963년 창립된 한림출판사는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달님 안녕』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등의 해외 그림책과 『가방 안에 든 게 뭐야?』 『바삭바삭 갈매기』 『원숭이 오누이』 등 한국 작가들의 창작 그림책을 꾸준히 출간하고 있습니다. 〈한림아기그림책〉 〈한림우리그림책방〉 〈아빠딸 그림책〉 〈한림신화그림책〉 〈과학은 내친구〉 〈한림지식그림책〉 등의 그림책 시리즈와 빅북, 보드빅북, 트윈링빅북 등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그림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스스로 골라 읽을 만한 재미와 감동이 있는 〈한림아동문학선〉과 유익한 주제의 아동교양서, 그림책을 사랑하는 어른들을 위한 성인 단행본 및 전통문화, 역사, 요리, 언어 등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문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 아트프린트 전시, 작가와의 만남, 책놀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도서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Founded in 1963, Hollym is one of the first publisher of English books on Korea. With offices in Carlsbad, CA in the United States and Seoul in Korea, our aim is to introduce Korea and its culture to the world and to help world better understand Korea through publications. Since foundation, we have published various books on Korea about such topics as Korean history, art, culture, literature, language, cuisine, and travel guides. Due to a wide range of topics and high quality, Hollym has kept its global presence and played the leading role in publishing books on Korea.

(주) 한문화멀티미디어 187

Hanmunhwa Multimedia Corp.

심남숙 Sim Nam Sook

04915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3길 3-5, 3층(중곡동, 동인빌딩)
3F Dongin Building, 3-5, Neungdong-ro 43-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2016-3523, FX 02-543-3541
hanmunhwa0@daum.net
http://hanmunhwa.com

총류, 뇌, 명상, 건강, 교육 등

한문화멀티미디어는 '나와 세상을 두루 이롭게'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동서양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정신세계 분야의 고전과 화제작들, 인문, 여성, 건강, 자녀교육, 21세기의 화두인 '뇌' 관련 서적들을 꾸준히 출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몸, 마음, 영혼의 진정한 건강과 의식성장의 기쁨을 안겨주는 양서들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로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너어그램의 지혜〉〈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아이안에 숨어 있는 두뇌의 힘을 키워라〉, 수피의 헬스 시리즈〈헬스의 정석_이론편〉〈헬스의 정석_근력운동편〉〈다이어트의 정석〉 등이 있습니다.

Hanmunhwa Multimedia took its first step in 1988 with the vision of 'I and the world benefit'. Through the wisdom of the East and the West that we meet in books, we want to contribute to making this global that we live in healthier, more beautiful, peaceful. We are publishing books on the spiritual, humanities, women, health, education, classics, and the brain, the subject of the 21st century. Hanmunhwa Multimedia will meet our readers with good books that give them sincere health and conscious growth of the body, mind, soul.

한빛미디어 (주) 188

Hanbit Media, Inc.

김태헌 Kim Tae-heon

03785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길 62 한빛미디어 (주)
62, Yeonhui-ro-2-gil, Seodaemun-gu, Seoul, Korea

T 02-336-7130, FX 82-2-336-7124
marketing@hanbit.co.kr
www.hanbit.co.kr

총류, 사회과학, 기술과학, 예술, 아동

한빛미디어는 독자의 삶의 가치를 넓혀갈 수 있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독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빛미디어 : IT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래밍, 컴퓨터공학, IT 에세이, 일반 사용자를 위한 OA, 그래픽 등 IT 활용서 등을 출간합니다. 한빛라이프 :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책을 만듭니다.(취미, 실용 분야) 한빛에듀 : 엄마의 마음을 담아 내 아이에게 준다는 생각으로 책을 만듭니다.(어린이 학습 분야)

Hanbit media that took its first step in the IT publishing business in Mar. 1993 has now become a reliable partner for leading IT professionals by publishing their in-depth work experiences and field know-how through publications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computers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s in Korea. Based on this, Hanbit media is expanding its area of publishing by introducing natural sciences & engineering university textbooks, as well as computer related publications (OA, graphic, photography) for non-professionals.

한빛비즈 (주) 189

Hanbit Biz, Inc.

조기흠 Cho Ki-heum

03785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길 62 B동 4층
62, Yeonhui-ro 2-gil, Seodaemun-gu, Seoul, Korea

T 02-2128-8771, FX 02-326-1566
hanbitbiz@hanbit.co.kr
https://hanbit.co.kr/biz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역사, 인문

한빛비즈㈜는 2008년 1월에 창립한 출판사로 경제경영/자기계발/인문교양 전문 출판사입니다. 한빛비즈는 한 권의 책이 가진 영향력을 믿습니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직하게 독자에게 전달되는 정직한 책을 매일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일과 재테크에 도움을 드리는 '처음인데요'시리즈, '지금 당장' 시리즈를 비롯하여 할 엘로드의 〈미라클 모닝〉, 레이 달리오의 〈원칙〉, 멜 로빈스의 〈5초의 법칙〉 등 베스트셀러를 출간했습니다. 또한 인문 교양 시리즈인 〈퇴근길 인문학 수업〉과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 등 쉽고 재미있게 교양 과학 상식을 전하는 '한빛비즈 교양툰' 시리즈를 출간했습니다.

Hanbit Biz is established in January 2008, focuses on business, management and self-help books. Hanbit Biz values the first step taken by working professionals into their career. Through 'I'm New ' series and 'Right Now' series for very beginners in professional world, Hanbit Biz has been helping 1 million business professionals to grow and to develop paths to become new leaders in their field, including economy, business management and financial investment. Additionally, Hanbit Biz strives to gradually lower the high entry barrier into the world of humanities & cultural studies for working professionals. Hanbit Biz published 230 titles including MIRACLE MORNING by Hal Elrod, PRINCIPLES by Ray Dalio, 'Right Now' series, 'I'm New' series. And Hanbit Biz has been publishing with renowned authors, including Henry Mintzberg, Aswath Damodaran, Colin Beavan, Rupert Stadler, Mark Goulston, Mel Robbins.

한솔수북 190

Hansol Soobook

조은희 CHo, Eunhee

03996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96 영훈빌딩 5층
5F Young-hun B/D, 96, World Cup-ro, Mapo-gu, Seoul, Korea

T 02-2001-5828, FX 02-2060-0108
isoobook@eduhansol.co.kr
http://blog.naver.com/hsoobook

사회과학, 문학, 아동, 청소년

한솔수북은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그룹 한솔교육의 단행본 출판사입니다. 빼어날 수(秀), 영어로 Book이 만나 만들어진 이름으로, 수북수북 좋은 책을 많이 쌓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동화, 지식정보서 등을 출간하는 브랜드로 한솔수북이 있고, 청소년 교양 및 인문 · 문학 브랜드로 책담, 어린이 학습도서 브랜드로 한솔스쿨이 있습니다. 대표 도서로 『밀어내라』, 『남극으로 가는 지하철』, 『오케스트라』, 『나』, 『책이 사라진 날』, 『들꽃이 핍니다』, 『지구사용설명서』,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 『빅보이』, 『하얀 깃털』 등이 있습니다.

Hansol Soobook publishes valuable books for the children and the youth with a strong commitment to provide future generations with healthy and sound sense of values and the view of the world. Hansol Soobook strives to become no just a big company, but a good company, focusing on quality rather than more growth. Hansol Soobook Publishing is subsidiary of Hansol Education, founded in 1991. Hansol Soobook Publishing Co. has made successes with several best-sellers more precious steady-sellers during that period.

한양대학교출판부 191

Hanyang University Press

김우승 KIM Woo-Seung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출판부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Korea

T 02-2220-1432,1434 FX 02-2220-1435
presshy@hanyang.ac.kr
http://presshy.hanyang.ac.kr

사회과학, 예술, 역사

1968년 3월에 설립된 한양대학교 출판부는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교양 및 전공 교재, 그리고 전문 학술 도서 및 일반 교양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수준 높은 저서를 편찬, 널리 보급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의욕을 조성, 진작시키며 학문과 사회 문화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stablished in March 1968, Hanyang University Press publishes textbooks for liberal arts and majors necessary for research and education at the university, as well as specialized academic books and general education books. Furthermore,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cademic and social culture by compiling and widely disseminating high-quality books that collect the research results of professors.

항해 192

Hanghae Publishers co.

박지석 Ji-seok Park

04079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167, 103-801
103-801 Tojeong-ro 167, Mapo-gu, Seoul, rep of Korea

T 070-4233-6884, FX 0505-333-6884
hhbooks@naver.com
http://blog.naver.com/hhbooks

사회과학, 에세이

새 시대의 지식 네비게이션. 도서출판 항해는 '삶은 항해다, 책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성의 항해다'를 모토로 2017년 1월에 설립된 출판사입니다. 주요 출판 분야는 인문학, 사회과학, 교육 등 논픽션 전반으로, 그중에서도 '사람'과 '사회'와 '사물'을 정선한 언어로 묘사한, 세상에 꼭 알려야 할 가치가 있는 책을 냅니다.

Hanghae is a publishing company founded in January 2017 under the motto of 'Life is a voyage, book is a voyage of intelligence for a better life.' Major publishing areas include non-fiction, including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and among them, they produce books that are worth making known to the world that depict "people"" and ""social""and ""things" in select languages.

헥사곤 193

HEXAGON

조동욱 DONGWOOK CHO

136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1, 270
#270, BUNDANG POSSVILLE, SEONGNAMDAERO 51,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T 070-7743-8000, FX 0303-3444-0089
joy@hexagonbook.com
www.hexagonbook.com

예술

한국 현대미술을 정직하게 기록하는 출판회사 헥사곤입니다. 헥사곤은 2010년 창업 이후 10여 년간 한국 시각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책을 만들어오고 있으며 예술과 대중을 잇는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 100여 종이 넘는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한국의 현대미술과 작가를 접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은, 무겁지 않은, 정직한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각예술 외에도 문학, 실용 분야의 서적 및 전자책 또한 출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콘텐츠의 저변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Hexagon is a publishing company based in Seoul, Korea founded in 2010. For the last 10 years, Hexagon has published over 100 books with a specialty in visual art. We consider connecting the public and art, artists as our duty as a publisher and investing our best effort to make simple and easy books for any readers. Also, Hexagon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as creating honest and objective records in Korean contemporary art.

현암사 194

Hyeonamsa

조미현 Cho mi hyun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2안길 35,04029, "35,
Donggyo-ro 12an-gil, Mapo-gu, Seoul, Korea

T 02-365-5051(111), FX 02-313-2729
pub@hyeonamsa.com
http://hyeonamsa.com

자연과학, 예술, 문학, 역사, 아동

(주) 현암사는 1945년 고(故) 현암(玄岩) 조상원 선생이 창업하여 75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온 출판사입니다. 광복 이후 혼란한 현실 속에서 우리말 우리글로 된 책의 보급이야말로 해방된 조국에 기여하는 뜻깊은 길임을 인식한 조상원 선생이《건국공론(建國公論)》을 창간한 이후 현암사는 오직 한길, 출판의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박목월, 조지훈, 이어령, 박경리 선생 등 수많은 문사들의 책을 출간해 우리 출판문화의 토양을 다져왔고, 그 토양 위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새롭고 다양한 책들을 출간하며 우리 시대의 고전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화·생태환경 시리즈를 비롯하여 새롭게 해석한 동서양의 고전, 음악과 미술 등을 아우르는 예술, 시대를 가로지르는 인문 사상, 교양 과학, 문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서를 출간하며 독자들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Hyeonamsa is a publishing company with a long evergreen tradition that was founded by the late Hyeonam(pen name) Jo Sangwon in 1945. Since publishing the nation's first statute book called the "Law Books", our company has made it a priority to publish "books that are good, books that are absolutely necessary, books that maintain our tradition" with expert craftsmanship. The leaves of first and the fruits of "new books", "collections of books", "complete collection", "library" and "series" are hanging on Hyeonamsa's history much like a zelkova tree of the publishing world in Korea.

홍성사 195

Hong Sung Sa Inc.

정애주 Jung Aejoo

04084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4길 3
3 Yangwhajin 4-Gil, Mapo-Gu, Seoul Korea

T 02-333-5161, FX 82-2-333-5165
eun@hongsungsa.com
https://blog.hongsungsa.com

철학, 종교, 문학

주식회사 홍성사는 1974년에 시작되었다. 시작은 출판이 아니었으나 1977년 출판등록(제 1-499)을 하여 초창기에는 일반 서적을 출판하였고, 1987년까지 총 13개 시리즈, 350종의 책을 펴냈다. 특히 홍성신서는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지성계에 큰 영향을 끼친 시리즈로,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 C. 라이트 밀즈의 사회학적 상상력, J.K. 갈브레이드의 불확실성의 시대, 김현의 현대 프랑스 문학을 찾아서, 김종욱 편 원본 소월전집 등 인문 사회계의 주요 서적들이 망라되어 있다. 기독교 출판은 1981년부터 낮은 데로 임하소서(이청준)를 첫 권으로 하는 믿음의 글들 시리즈로 시작하였으며, 1987년 일반 서적 320종을 정리하고 기독교 출판에 주력한 이후 지금까지 820여 종(2018년 3월 기준)의 기독교 서적을 출판했다.

Hongsungsa was founded in 1974 and registered in 1977, and established as the first corporation in publishing field for the books in Korea at that time. Hongsungsa has published 'Living Books' that exist forever beyond time and space. These are the books Hongsungsa published as the best series of the division of Humanity and Social Sciences in general culture. 〈Writings of the Faith>, as the most representative series in 1981, represents 'of the true believers, for the true believers, and the writings of true faith'.

후즈갓마이테일 196

Who's Got My Tail

황정혜 Junghye Hwang

03661 서울시 서대문구 가좌로 20, 1층
1F, 20 Gajwa-Ro, Seodaemun-gu, Seoul

T 070-8958-6498, FX 02-6280-6498
whosgotmytail@gmail.com
www.whosgotmytail.com
인스타그램 @whosgotmytail

아동

출판사 후즈갓마이테일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들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책을 만듭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존중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Who's Got My Tail is a publisher based in Seoul, South Korea that works with talented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We respect children and promote culture diversity through children's picture book.

(주) 휴먼큐브 197

Human Cube Publishing Co., Ltd.

황상욱 Hwang sangwook

03997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4길 61, 2층
61, World Cup-ro 14-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2039-9463, FX 02-2039-9460
forviya@munhak.com
https://facebook.com/humancube44

사회과학, 역사, 아동

휴먼큐브 출판사는 따뜻한 '감성'과 냉철한 '지성'의 융합을 지향합니다. 인문, 역사, 기획, 언론 등 각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와 함께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 〈기획은 2형식이다〉 〈생각하는 늑대 타스케〉 등의 주요 도서는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Human Cube Publishing is the publisher of talented authors and beloved books. We pursue books that combines warm sensibility with accurate intelligence.

흐름출판

198

NEXT WAVE MEDIA

유정연 you jeong yeon

0400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48-9, 1층,2층(서교동)
48-9, Would Cup buk-ro 5-gil, Mapo-gu, Seoul, Korea

T 02-325-4944, FX 02-325-4945
book@hbooks.co.kr
http://nwmedia.co.kr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역사

흐름출판은 "물은 흐름으로써 나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내일의 비전과 함께 삶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책을 출간해온 젊은 출판사입니다. 독특한 콘셉트의 책과 새로운 마케팅 시도로 독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으며, 주력 분야였던 경제경영에서 에세이와 인문으로 분야를 확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국종 교수의 『골든아워』(1,2권),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인 한동일 교수의 『라틴어 수업』, 시한부 판정을 받은 36세 의사의 마지막 기록을 담은 『숨결이 바람 될 때』 등을 출간해 호평을 받았고, 『헐빌리의 노래』『대량살상 수학무기』『만들어진 진실』『뷰티풀 퀘스천』 등 사회정치와 과학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언론으로부터 "자기계발서부터 르포르타주까지, 품위를 지키는 법"을 알려준 출판사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도서 선정, 한국과학기술도서 번역상 수상, APCTP 선정 올해의 과학도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도서 등에 꾸준히 선정되면서, 분야를 망라해 묵직한 지식과 읽는 즐거움,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좋은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식은 물론 지혜와 문화가 담긴 책을 출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ext Wave Media' is publishing interesting and informative books under the slogan "A Book that gives strength to life." Since its founding in 2003, the company has published many books recommended by established economic research institutes and reading societies.

3

책도시산책 참여서점

BOOKSTORES PARTICIPATING IN "BOOK-CITY-STROLL"

〈책도시산책〉은 독자들이 서울 내 서점과 문화공간을 여행하듯 다니며 '책'을 매개로 전시, 강연, 작가와의 만남,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As readers take a stroll through bookstores and cultural spaces in Seoul, they can encounter the various book-oriented events prepared for "Book-City-Stroll," including exhibitions, lectures, author meetups, and workshops.

가가77페이지 1

gaga77page

04049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5길 50
50, Wausan-ro 15-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gaga77page@naver.com
https://instagram.com/gaga77page

상수와 합정, 홍대 사이에 있는 동네 책방입니다. 베스트셀러는 없어도 당신과 나의 취향이 있습니다.

책도시산책 참여서점

그래서 2

Glaeso

04546 서울시 중구 동호로37길 20 A동 2층 132호
A-2F 132 / 20, Dongho-ro 37-Gil, Jung-Gu, Seoul

T 010-6224-5321
glaesobooks@gmail.com
https://instagram.com/glaeso_book

을지로와 청계천 사이 방산시장에 있는 작은 책방입니다. 평범의 가치를 책으로 기록하는 책방으로 매일 책소개 #그래서오늘은 / 책방 체험 #그래서목요일 / 책전시 #그래서책이빛나는방에 / 소중한 책 어나더 커버 #그래서너에게닿기를 / 소소한 클래스 #그래서쓸모를찾아 / 독자 기고 #그래서천명의독자에게 / 도서 큐레이션 #그래서책방의책이야기 / 도서 신청 #그래서한사람을위한마음 / #그래서온라인책방 등. 더 많은 독자들과 '독서'라는 경험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궁리를 합니다.

It is a small bookstore in Bangsan Market between Euljiro and Cheonggyecheon Stream. And a bookstore that records ordinary values in books. Everyday book introduction #So_today / Bookstore experience #So_Thursday / Book exhibition #So_in_a_room_with_a_bright_book / Another cover for precious book #So_may_it_reach_you / Small handmade class #So_in_search_of_use / Series for readers #So_to_a_thousand_readers / Book curation #So_bookstory_of_GLAESO / book application #So_a_heart_for_one_person / and #So_online_bookshop, etc. We are thinking about enjoying the experience of 'reading' with more readers.

데어이즈북스

3

there is books

0417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2길 27, 도화아파트먼트 3층
3F 27 Dohwa 2-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713-0227
info@thereisbooks.co.kr
https://instagram.com/thereisbooks

로스터리와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하는 도화아파트먼트 3,4층에 위치한 큐레이션 책방 데어이즈북스입니다. 바늘에 실을 꿰는 신중함으로 도시생활자들의 안목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인사이트를 큐레이션하고 아이와 어른 모두가 즐거운 팝업북, 플립북, 빅북 등 다양한 판형의 국내외 그림책까지 만나볼 수 있는 책방. 매일이 있는 그곳, 데어이즈북스입니다.

A Curation Bookstore 'there is books', located on the 3rd and 4th floors of a 'dohwa apartment' with roastery, bakery and cafe. with Prudence in threading the needle, we are curate insights for the discerning lifestyle of urban dwellers and A bookstore where children and adults can meet a variet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icture books such as pop-up books, flip books, and big books.

라이너노트

4

Linernote

040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안길 6
6, Yanghwa-ro 15an-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337-9966
contact@pageturner.kr
www.linernote.kr

음악·서점 라이너노트에서는 음악가가 쓴 책, 음악가에 대한 평전, 혹은 음악을 주제로 하는 산문과 소설 등의 책들과 뮤지션의 음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이너노트란 음반에 따라 나오는 음악, 혹은 연주자에 대한 해설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음악에 관련된 서적과 음반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 작가와 그 작가가 작품에 대해 함께 나누려 했던 이야기를 권하는 공간입니다. 라이너노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그 음악에 대한 해석과 의견, 혹은 감상이 담긴 책을 소개하고, 또 연주할 수 있는 음악 사랑방입니다.

A “Liner Note" is the commentary included inside of the musician’s or band’s album. At Liner Note, we sell artist publications, their biographies, and other books such as prose and novels and of course, music records. We encourage artists to share their stories and pieces beyond just selling the music merchandise. At Liner Note, we play and perform music, introduce books, and share ideas and our appreciation of all things music. It is a place full of love and auditory alchemy.

레드북스 5

REDBOOKS

03180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150-1 2층
2nd floor, 150-1, Tongil-ro, Jongno-gu, Seoul

T 070-4156-4600
redbooks21@gmail.com
https://facebook.com/redbooks21

레드북스는 종로구 서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인문사회과학서점입니다. 2010년 8월에 문을 열어 2020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 책방입니다. 2018년도부터 새로운 운영진이 맡아 "평화살롱"이라는 이름을 달고 리뉴얼오픈을 했습니다. 평화와 사회변화를 꿈꾸는 책방이자 살롱으로, 평화, 노동, 페미니즘, 동물권 등 다양한 사회 이슈 주제별로 구성된 새책 서가와 헌책 서가를 갖추고 있고 북카페를 겸하고 있습니다. 책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리는 활동을 하고 다양한 행사도 진행 합니다.

<Red Books> is a small neighborhood bookstore located in Jongno-gu, Seoul, and mainly deals with humanities and social books. Opened in August 2010, it has functioned as a shared cultural space that social movement groups and communities can comfortably use. Anyone can come, have coffee and drinks, read a book or hold a meeting. Since 2018, peace activists had reopende <Red Books> as "Peace Salon + Peace Bookstore", which has been operating in a new and creative way.

미스터리 유니온 6

MYSTERY UNION

0659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88-11
88-11,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T 02-6080-7040
mysteryunionbook@gmail.com
http://instagram.com/mysteryunionbook

미스터리 유니온은 신촌 기차역 부근에 위치한 추리소설 전문서점입니다. 다양한 추리소설이 재발견되기를, 그리고 책 추천과 책 모임을 통해 더 많은 독자들이 추리소설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작은 동네서점입니다.

MYSTERY UNION is a mystery book store which is located near Sinchon Railroad Station. We hope that the readers rediscover vrious mystery novels and more readers become intimate with them by our event - book recommendation, book meeting and book talk.

번역가의 서재 7

Translator's library bookshop

03998 서울 마포구 동교로17길 67 1층
67 First Floor, Donggyo-ro 17-gil, Mapo-gu, Seoul

T 010-8922-7421
tlbseoul@gmail.com
https://instagram.com/tlbseoul

번역가의 서재는 번역가가 엄선한 양질의 번역서를 발견할 수 있는, 오로지 번역서로만 비치된 서가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서점이다. 서재와 같은 편안한 공간에서 외국어 원서 읽기 스터디 프로그램, 동네 주민을 중심으로 음악, 영화 문화 프로그램과 직장인 중심의 독서모임을 다수 운영하면서 책을 매개로 애서가들이 모여 서로의 취향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는 아지트 책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Translator's Library bookshop" is the only bookstore in Korea that boasts a curated collection of high-quality translations carefully selected by translators. In a comfortable space such as a study, the company has been operating a number of study programs for reading foreign language and culture programs centered on local residents, and book clubs centered on office workers, and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where young people gather to share their tastes and promote friendship.

별책부록 8

byeolcheck

04339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16길 7, 1층
1F, 7, Sinheung-ro 16-gil,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70-4007-6690
byeolcheck@gmail.com
http://byeolcheck.kr

서울 용산에 위치한 서점입니다. 2014년 오픈하여 국내외 독립출판물, 디자인·예술·글쓰기 관련 단행본, 소규모 브랜드의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출판사로서 영화 리뷰 매거진 <CAST>와 두 명의 작가가 함께 만드는 <Poetic Paper>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It is a bookstore locat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It opened in 2014 and sells domestic and overseas independent publications, books on design, art, writing, and design products of small brand. Since 2016, we have been publishing a movie essay magazine, <CAST> and a book of poetry, <Poetic Paper>.

북티크 서교점 9

BOOKTIQUE

04033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07, 1층
Yangwharo 107, 1F, Mapogu, Seoul

T 02-6084-1123
master@booktique.kr
https://blog.naver.com/booktique

북티크는 다양한 독서모임, 북토크, 큐레이션을 통해 책과 사람을 연결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책과 사람을 위한 도심 속 아지트입니다.

Booktique is a downtown hideout for books and people that create values ??that connect books and people and share life through various reading groups, book talks, and curation.

사슴책방 10

Deer bookshop

03974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13길 110
110, Seongmisan-ro 13-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10-2727-8076
deerbookshop@gmail.com
https://instagram.com/deer_bookshop

감정을 빚어내고 시선을 은유하는 느린 호흡으로의 산책, 그림책 및 아트북 전문서점 사슴책방입니다

This is the 'Deer Bookshop', which specializes in picture books, and art books.

스페인책방 11

spainbookshop

0462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29 기남빌딩 5층 603호
603, 5F, 29, Toegye-ro 36-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507-1311-7694
spainbookshop@gmail.com
www.spainbookshop.com

국내 유일의 스페인, 중남미 전문 책방입니다. 스페인어 문화권의 문화, 예술, 여행 등 다양한 테마의 책과 스페인어 원서를 주로 다루며, 그 외 관심분야의 책들과 소량의 독립출판물을 함께 판매합니다. 스페인, 중남미와 관련된 모임과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하여 스페인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이들의 아지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글쓰기, 드로잉 등의 다양한 모임을 통해 책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Spainbookshop is the only bookshop in Korea which specializes in Spainish and Latin American culture. Mainly selling books that cover culture, art, travels etc. of Spanish-speaking world, we also sell books of our interest and a few independent publications. By frequently hosting social gathering and other events concerning Spain and Latin America from the start, we have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loved places by those who share love and longing for Spain and Lating America. On top of that, Spainbookshop never ceases to endeavor to be a place where people who love books and art find consolation in life with various gatherings like those about writing and drawing.

아인서점 12

ain bookstore

040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31-30 (합정동) 3층,
3F, 31-30, World Cup-ro 3-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70-8667-0033
ain-bookstore@naver.com
http://ainbooks.kr

아인서점은 2019년 10월 19일에 오픈한 뒤로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독립출판물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독립책방입니다. 2020년부터는 책 판매와 함께 북토크, 글쓰기 모임 등 오프라인 행사로 독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홈페이지도 구축해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함께 운영 중인 출판사 Ain Books에서는 디자인을 비롯한 예술 분야 서적을 발행하고 있으며, 여러 대외 행사에 꾸준히 참여 중입니다.

Established on October 19, 2019, <Ain Bookstore> has been selling various and unique independent publications. Since 2020, we have been carrying out some projects to communicate with our customers through offline events such as 'Book talk session' and 'Writing class'. And also, starting to sell books in online website as well. Together, Ain Books, a publishing company, publishes books on the arts including design, and continues to participate in various events.

아침달 북스토어 13

Achimdal Bookstore

0398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53-16 (연남동)
2F, 153-16, Seongmisan-ro,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3446-5208
achimdalbooks@gmail.com
http://instagram.com/achimdal.books

아침달은 시를 중심으로 한 문학 출판사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아침달 시집 시리즈를 시작으로 느리지만 꾸준하게 출간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일상의 빈자리에 문학이 놓이기를 꿈꿉니다. 독자의 서가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책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아침달 출판사는 연남동에서 아침달 북스토어라는 이름의 작은 문학 서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소설, 에세이를 비롯한 문학 예술 서적을 큐레이팅해 판매합니다.

Ah-Chim-Dal is a poetry-based publishing company that handles all literature genres. With the initiation of Ah-Chim-Dal Poetry Series in September of 2018, we have continued to pioneer slowly but steadily. We dream of placing literature in between the layers of everyday life. We desire to publish books that will lie on bookshelves of readers for a long time. Ah-Chim-Dal also runs a small bookstore under the same name: Ah-Chim-Dal Bookstore. Over 1,000 literature and art publications, primarily poetry, novel, and essay, are offered.

아크앤북 시청점 14

ARC.N.BOOK City Hall

04523 서울 중구 을지로 29 B1F,
29 B1F Eulji-ro, Jung-gu, Seoul

T 070-8822-4728
myoungjun.kim@otdcorp.co.kr
www.instagram.com/arc.n.book_official

아크앤북은 책과 라이프 스타일 샵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를 함께 즐기는 '리딩테인먼트(Reading+Entertainment)'를주도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인 아크앤북은 책을 통한 경험의 공유, 그리고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내며 감성과 지성 모두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The books for the people, and the spaces for the people and the books. It is a complex, cultural space in which the bookstore that creates the cultural contents and consumption and the lifestyle shop are combined. It provides the new vitality to the city which has lost the vigor. And, also, it makes the people visiting this place have an experience by spatially unraveling the knowledge and the experiences in the diverse genres which get obtained through the books.

아크앤북 신촌점

15

ARC.N.BOOK Sinchon

03789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3 현대 유플렉스 12F
Yonsei-ro 13 Hyundai U-plex 12F, Seodaemun-gu, Seoul

T 0507-1349-1702
myoungjun.kim@otdcorp.co.kr
http://instagram.com/arc.n.book_official

아크앤북은 책과 라이프 스타일 샵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를 함께 즐기는 '리딩테인먼트(Reading+Entertainment)'를주도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인 아크앤북은 책을 통한 경험의 공유, 그리고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내며 감성과 지성 모두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The books for the people, and the spaces for the people and the books. It is a complex, cultural space in which the bookstore that creates the cultural contents and consumption and the lifestyle shop are combined. It provides the new vitality to the city which has lost the vigor. And, also, it makes the people visiting this place have an experience by spatially unraveling the knowledge and the experiences in the diverse genres which get obtained through the books.

안도북스

16

ando books

0399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87, 201호
201, WORLD CUP BUK-RO 6GIL 87 MAPO-GU, SEOUL

T 010-9156-5437
ando78@naver.com
http://instagram.com/ando_books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것. '안도북스'는 2016년에 시작한 출판사 겸 작은 서점입니다. 서점공간에서는 도시와 공간에서 시작하는 〈도시 인문학〉과 건축 구조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건축 미학〉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독립 출판물을 제작하고 출판하는 방법으로, 국내의 출판 문화가 좀 더 가까이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그리고 도시의 재생을 위한 유용한 책을 발견하고 만드는 것으로 안도북스의 의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Living in a city. Ando Books is a publishing house and small bookstore that started in 2016. The bookstore space mainly deals with "urban humanities" that begin in cities and spaces and "architectural aesthetics" that introduce the beauty of architectural structures. It also strives to make Korean publishing culture feel closer by producing and publishing independent publications. In the future, I hope to add meaning to Ando Books by discovering and creating useful books for beautiful cities and for urban regeneration.

어쩌다 책방

17

uhjjuhdah bookshop

040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길 74
74, World Cup-ro 19-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70-5121-5629
uhjjuhdah.bookshop@gmail.com
http://instagram.com/uhjjuhdah.bookshop

2016년에 문을 연 어쩌다 책방은 한 달에 한 작가를 소개합니다. 그 달의 작가를 담은 커버를 만들어 책을 포장해드립니다.

Started in 2016, UHJJUHDAH BOOKSHOP introduces a writer every month. and makes a Bookcover for the writer of the month.

책도시산책 참여서점

여행책방 사이에

18

saiebook

03980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31길 2층
2F, 13, seongmisan-ro 31-gil, Mapo-gu, Seoul

T 02-325-6563
saiebook@naver.com
www.saie.co.kr

멀리 떠나지 않아도 책방의 문을 열면 바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책방입니다. 내가 여행지에 들고 가는 모든 책. 그 모든 여행 책을 판매합니다. 책방에서 제작한 독특한 여행 굿즈들도 만날 수 있어요. 여행과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한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사진으로, 음악으로, 음식으로 같이 여행을 느껴보세요. 매월 여행에 관한 북토크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숍에서 주인장이 추천하는 책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It's a bookstore where you can go on a trip if you open the bookstore door without having to go far away. Every book that takes you to your destination. I sell all the travel books. You can also find unique travel packages made in bookstores. It is also a community space where you can talk about travel and books. Meet writers who have traveled around the world to experience travel with photos, music and food. We have book stories and workshops about our trip every month. You can also purchase books recommended by the owner at online shops.

이루리북스

19

YRURYBOOKS

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지하 105호
B105, 320, Dongmak-ro,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70-7715-1027
fredericbooks@gmail.com
http://instagram.com/yrurybooks

〈이루리북스〉는 동화작가 이루리와 도서출판 북극곰 이순영 대표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어져, 프레드릭북스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8일 6주년을 맞아 '이루리북스'로 개명하고, 다시 한번 큰 도약을 꿈꿉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 자리잡은 〈이루리북스〉는 그림책 전문가들이 엄선한,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그림책부터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는 그림책들까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림책들로 서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별자리 심리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커피&티와 함께 까눌레, 뉴욕 르뱅 쿠키를 판매합니다.

YRURYBOOKS is one of the best bookstores and a fine caf? in Korea. It was first started under the name Frederic Books, which was created by Lee Rury(author & editor) and Lee Soon-young(CEO of BOOKGOODCOME) in 2014. On June 18, 2020, to celebrate the 6th anniversary, its name has been changed to YRURYBOOKS. It is located at Gongdeok Station in Mapo-gu, Seoul. YRURYBOOKS has filled the bookshelf with soulful picture books, ranging from the jewel-like picture books carefully selected by picture book experts to the picture books that are still widely read. And also various programs related to picture books and horoscope psychology programs are under way in this beautiful bookstore. And for the convenience of readers, the cafe sells Cannele and New Yorker Bank cookies along with special coffee and tea.

제로헌드레드

20

ZEROHUNDRED

04007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2길 19 호강주택 상가 1층 3호
19, Mangwon-ro 2-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10-5651-1324
on.saturday.on@gmail.com
http://zerohundredbooks.com
Instagram : @_zerohundred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워크숍룸 & 작은 서점 'ZEROHUNDRED'는 '공간 비생산'과 출판사 '제로헌드레드북스'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작은 서점 겸 워크숍룸입니다. 'ZEROHUNDRED'를 찾아오는 분들이 이곳에서 자신에게 맞는 취향을 발견하고, 취미생활의 시작을 돕는 작업 공간이자 책방이 되고자 합니다. 서점에서는 예술 분야 및 개인 창작자들의 출판물과 인쇄물을 중심으로, 누구나 향유자인 동시에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창작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도서들을 소개하고 판매합니다.

The bookstore <ZEROHUNDRED> is located in Mangwon-dong, Mapo-gu, Seoul. <ZEROHUNDRED> is a small bookstore and workshop room created by the collaboration of space <UNPRODUCTIVE> and publisher <ZEROHUNDRED BOOKS>. It is a cultural space that helps visitors find their own tastes and supports them to start their hobbies. Display mainly publications and prints from the arts and independent creators. Introduce and sell creative inspirational books based on the idea that anyone can be both a user and a creator.

조은이책 21

chouni.chaeg

03947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7길 6, 1층
6, World Cup buk-ro 27-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70-7617-6949
chouni.chaeg@gmail.com
https://instagram.com/chouni.chaeg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오래된 동네 골목에 위치한 조은이책에서는 주인장이 오랜 출판 경력을 바탕으로 고른 책과 이 책들에서 튀어나온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에 기반한 동네책방답게 아이부터 2030 젊은 세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폭넓은 관심사를 담고 있습니다. 책방에 없는 책들은 어떤 책이라도 주문해주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거점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독자와 작가들이 만나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는 이 공간을 '백년 책방'으로 만들어 가려는 포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ocated in an old alley in Seongsan-dong, Mapo-gu, Seoul, chouni.chaeg has a wide range of books and characters from books chosen by the owner based on her long publishing career. We offer various books for children to senior citizens and also people can order books they want. Chouni.chaeg is used as a hub for local residents and writers, and it is connected to various people. We are trying to lead the space into a "hundred-year old bookstore" where local residents can find it for a long time.

진부책방스튜디오 22

Jinbu Book&Studio

04002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12 2층
112, Jandari-ro,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70-5142-1600
jinbubooks@gmail.com
https://instagram.com/jinbubooks

진부책방스튜디오는 문학·예술 책을 다루는 독립서점입니다. 정기적으로 #진부책방낭독회, 독서모임, 공연, 상영회 등을 열어왔고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독자와 작가들이 찾아오는 서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을 낸 작가들이 책방지기로 근무하여 큐레이션에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현재 약 2000종의 시집, 소설, 에세이 그리고 예술 관련 책을 갖췄습니다. 또한 최상급 음향기와 LP장비를 갖추고 선곡에도 신경을 씁니다. 20명 수용 규모의 카페도 겸하여 여유롭게 독서를 하며 커피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Jinbu Bookstore Studio is an independent bookstore dealing with literature and art books. We have held regular reading performances, reading meetings, music performances, and screenings. It is known as a bookstore frequented by writers as well as readers who love literature and art. The writers who published the book worked as bookstore managers, and have specialized in curation. Currently, it has about 2000 collections of poetry, novels, essays and art books. In addition, we are equipped with top-notch sounders and LP equipment, and we pay attention to selection. It also has a caf? that can accommodate 20 people, so you can relax and enjoy coffee while reading.

책방 사춘기

23

sachungibook

0399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9길 30
30, World Cup buk-ro 9-gil, Mapo-gu, Seoul

T 010-9844-9992
sachungibook@naver.com
https://instagram.com/sachungibook

어린이청소년문학서점. 그리고 여전히 어른이들의 책이 있습니다.

bookstore for children & young adults.

책방 연희

24

Chaegbang Yeonhui

04052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35길 3 B1F
3 B1F, Wausan-ro 35-gil, Mapo-gu, Seoul

T 0507-1429-5502
chaegbangyeonhui@naver.com
https://instagram.com/chaegbangyeonhui

"책방 연희"는 독립서점이자 도시인문학서점입니다. '책'만 판매하는 '책방'이 아니라,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책방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느슨한 연대가 되길 희망하는 "책방 연희"는 책을 중심으로 북토크, 전시, 작가와의 만남, 각종 클래스 등을 꾸준히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Chaegbang Yeonhui" is an independent bookstore and an urban humanities bookstore. It is not a 'bookstore' that sells only 'books', but a bookstore that produces and consumes the 'story' contained in the book. "Chaegbang Yeonhui" hopes to read books, write and become loosely connected, continuously plans and operates book talks, exhibitions, meetings with writers, and various classes around books.

책방서로

25

seorobooks

03974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11길 46 1층
46 Yeonnam-Ro 11-gil, Mapo-gu, Seoul

T 010-9032-1322
able0245@naver.com
http://instagram.com/seorobooks

한국소설 중심 동네책방입니다. 문학이 어렵고 지루한 것이 아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문학을 향유하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문학적 경험을 공감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Korean novels bookstore.

초콜릿책방

26

Chocolate Bookstore

037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5길 46-11
46-11, Yeonhui-ro 46-11 5-gil,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332-7573
chocobookstore@naver.com
https://instagram.com/chocobookcafe

국내외 소설 중심으로 큐레이션한 책방이며 인생의 맛을 담은 달콤쌉쌀한 초콜릿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책방을 통해서 비슷한 취향을 공유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읽고 나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hocolate Bookstore is a bookstore selling Korean and foreign novels and sweet and bitter chocolates with a taste of life. It is a place where people meet to read, watch films, and share their life stories.

페잇퍼

27

paperr

03702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5안길 32-7
32-7, Yeonhui-ro 15an-gil,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10-4619-9086
letsjakdang@gmail.com
http://paperr.kr

그림책 애호가의 비밀 책방 '페잇퍼(paperr)' 입니다. 방문 전에 미리 회원 가입을 하고, 책방 이용 시간을 구입한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4만권여권의 그림책, 만화책, 라이프스타일 책과 잡지를 책방 회원들과 공유합니다.

This is the secret bookstore 'paperr' for picture book lovers. This is a secret space that can only be used by members who have signed up for membership before visiting and have purchased bookstore usage time. We share over 40,000 picture books, comic books, lifestyle books and magazines with bookstore members.

풀무질

28

Poolmoojil

030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19 지하 1층
B1, 19, Seonggyungwan-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745-8891
poolmoojil@dooroomee.com
https://poolmoojil.com

폐업 위기에 처한 30년 전통의 성대 앞 책방 풀무질을 전범선, 홍성환이 인수해 새롭게 열었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거점이었던 인문사회과학 서점의 '시대정신'과 포용과 관용이라는 명맥을 유지하며 다양한 가치를 담고자 하는 것이 풀무질의 목표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독자가 모여 새로운 생각을 얻고, 서로의 사상에 불을 지피는 책방. 넘실대는 불꽃처럼 고요함 속에 잠재된 역동이 느껴지는 책방입니다.

Poolmoojil is the oldest radical bookshop in Seoul. Established in 1985, in front of Sungkyunkwan University, it was the vanguard of freethinking, and the unofficial base for student and labor movements in Korea. In 2019, Dooroomee Books, a young publisher focused on veganism, localism, and sustainability, acquired it to carry on its spirit of "change through books."

헬로인디북스

Hello-indiebooks

03982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27-16 1층 101호
33, Donggyo-ro 46-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10-4563-783
helloindiebooks@gmail.com
https://instagram.com/helloindiebooks

2013년 11월에 오픈한 독립출판물 전문책방. 독립출판물과 제작팀을 소개하는 활동과 독자와 제작팀간의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독립출판물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Open in November 2013, independent publishing house. Through activities introducing independent publications and producers, and communication between readers and producers, we will contribute to creating a sustainable independent publication culture.

4 협력공간

PARTNER SPACES

도서전 기간 동안 서울 내 복합 문화공간들과 협력하여 책나눔 캠페인, 전시, 세미나, 강연, 해외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We will be partnering with cultural spaces in Seoul during the SIBF for various programs including book sharing campaigns, exhibitions, seminars, lectures, and meetups with authors from overseas.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

1

PLATFORM-P

04051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2길19
Seoul-si, Mapo-gu, Shinchonro2gil 19

T 02-332-4626
info@platform-p.org
https://facebook.com/InfoPlatformP

플랫폼P는 출판생태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창작자와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포구청이 설립한 공기관입니다.

Platform P is a public institution established by Mapo-gu Office to support creators and publishers working in various areas of publishing ecosystem.

서스테인어블 해빗

2

Sustainable HABITs

043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2길 5 1층 서스테인어블 해빗
Sustainable HABITs, 1F, 5, Sowol-ro 2-gil,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588-0880
s.habits@koacompany.com
http://www.instagram.com/sustainable_habits

서스테인어블 해빗은 지속가능한 습관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입니다. 이 공간은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삶의 방식인 'Zero Waste'를 지향하는 카페와 일상에서 환경에 덜 해가 가고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품들을 소개하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서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을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지속가능함과 관련된 월별 캠페인을 진행하고 다양한 협업을 통해 워크숍,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스테인어블 해빗의 여러 활동을 통해 자연과 동물, 그리고 우리 이웃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Sustainable HABITs is a lifestyle platform for cultivating and cherishing collective and individual sustainable habits. A cafe in pursuit of 'Zero Waste' to leave less trace on Earth, and also a cultural lifestyle platform curating long-lasting, planet-friendly products, this unique space invites everyone to engage in small practices for sustainable living. Here at Sustainable HABITs, we would like to put forth our effort for coexistence. Inconvenience - the somewhat uncomfortable feeling may linger. But little by little, by pushing small shifts in our mindsets, we believe in enabling a resilient culture for the global community. We stand together as equal inhabitants of our Mother Earth.

주한독일문화원 3

Goethe-Institut Korea

043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132
132, Sowol-ro, Yongsan-gu, Seoul

T 02-2021-2800
info-seoul@goethe.de
http://goethe.de/korea

괴테 인스티튜트는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삼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문화기관으로 해외에서 독일어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 국제 문화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인 독일상을 제시하고 독일의 문화/사회/정치적 상황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68년 설립된 주한독일문화원(괴테 인스티투트 코리아)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과 독일의 문화교류를 위해 힘써왔으며, 독일과 독일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접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The Goethe-Institut is the cultural institute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ith a global reach. We promote knowledge of the German language abroad and foster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We convey a comprehensive image of Germany by providing information about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life in our nation. The Goethe-Institut Korea was founded in 1968 and has been committed since then to mediating between Korean and German culture and serves as a contact point for everyone who is interested in Germany and the German language.

협력공간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4

Community House Masil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6
1-6, Myeongdong 1ga,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70-4242-8702
community@wdh.kr
https://pageproject.kr/masil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공간,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입니다.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은 다채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한 문화 플랫폼으로서 전시, 촬영, 쇼케이스, 파티, 공연 및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공간입니다. 아트 전시가 가능한 2층 갤러리, 프라이빗한 모임에 적합한 3층 살롱과 대규모 컨퍼런스가 가능한 3층 라이브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심 속 잊혀져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This is Community House Masil, a place to discover new culture. Community House Masil is a cultural platform that can utilize various spaces. It is a space where various programs such as exhibitions, showcases, performances, and other events are held. It consists of a gallery with an exhibition on the 2nd floor, a ‘Salon’ for private gatherings and a ‘Live hall’ with a large conference on the 3rd floor. We strive to become a platform that revives the value of community in the city.

통의동 보안여관 5

BOAN1942

03044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33
33 Hyojaro Jongrogu Seoul

T 02-720-8409
boan1942@gmail.com
www.boan1942.com

'통의동 보안여관'은 1936년에 지어진 목조여관 건물을 보존하고 그 모습을 간직한 문화예술공간이다. 2004년까지 일반 여관으로 운영되던 이곳은 2009년 이후 문화숙박업 '통의동 보안여관'으로 활동하며, 관계지향적 예술, 사회와 개인의 삶, 예술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행위, 예술과 비예술을 넘나드는 생활밀착형 예술을 지향하는 문화생산 플랫폼이 되었다. 현재까지 전시, 무용, 연극, 워크숍, 동네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150여 차례 진행해왔다. 2017년부터 'Boan1942'를 신설하여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Boan Inn was built in 1936 as a wooden structured traveler's inn and today is a cultural centre 'Boan1942'. We have pursued a variety of activities such as dance, theater, workshops, and community art projects. We support artists' new work, research, development and collaborations in hope of providing a platform for artists to pursue their contemporary art practices. Boan1942 aims to find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through relationship-oriented art and community-based art.

5 협력기관

PARTNER ORGANIZA-TIONS

와디즈

1

협력기관

wadiz

T 1661-9056
info@wadiz.kr
www.wadiz.kr

2020 서울국제도서전은 와디즈와 함께 〈굿즈 대전〉을 기획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참여 출판사들이 굿즈를 제작하여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The SIBF is partnering with crowdfunding website Wadiz for a program that will enable participating publishers to produce merchandise for their readers.

2012년 설립된 와디즈는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을 돕는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입니다. 2013년 리워드형(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시작으로 2016년 금융위로부터 국내 1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되어 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디즈는 현재까지 약 21,000건의 프로젝트를 오픈시키며 누적 3,800억원 규모의 중개를 성사시켰습니다.

wadiz is the largest crowdfunding platform in Korea since launching in 2012. It is for the company in need of funding such as entrepreneurs or start-ups. wadiz started the reward-based crowdfunding in 2013. After the legislation of equity-based crowdfunding, wadiz got the 1st license of online small investment intermediary from FSC(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total amount of funding raised is USD 320 million and the total projects that opened at wadiz exceeded 21,000 recently.

서울환경영화제

2

Seoul Eco Film Festival

T 02-2011-4336
seff.program@gmail.com
http://seff.kr

2020 서울국제도서전은 서울환경영화제와 함께 주제 〈얽힘〉과 관련 깊은 영화를 선정해 독자들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생각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The SIBF will be collaborating with the Seoul Eco Film Festival to select film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fair's theme of "entanglement" to bring readers a program of thought-provoking films.

서울환경영화제는 세계 3대 환경영화제 중 하나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환경영화제입니다. 2004년에 시작된 서울환경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과 실천을 논의하는 축제로, 전 세계의 시급한 환경 문제를 다룬 국내외 우수 작품들을 소개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20년 열린 17회 서울환경영화제는 디지털 기반의 온택트 행사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탄소배출을 절감하고 더욱 많은 시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널리 확대했습니다.

Launched in 2004, The Seoul Eco Film Festival(SEFF) as a festival that seeks the co-existence of the nature and humans, and discuss future alternatives and its practice, we have been showcasing outstanding Korean and international works dealing with pending global environmental issues. Furthermore, SEFF has made a major contribution in raising the public's environmental sensibilities through the unique and entertaining hands-on events and educational programs it offers. The 17th SEFF, held in 2020, successfully turned into a digital-based 'Ontact' festival, reducing carbon emissions and expanding opportunities for more citizens to participate.

KAIST 인류세연구센터

Center for Anthropocene Studies, KAIST

T 042-350-8411
cas.kaist@gmail.com
anthropocenestudies.com

2020 서울국제도서전은 KAIST 인류세연구센터와 함께 인류세 강연 3부작을 기획하여 인간과 비인간의 새로운 공존 방식을 논의합니다.

This year, SIBF will be planning three lectures about the Anthropocene in concert with the KAIST Center for Anthropocene Studies. These lectures will discuss new forms of coexistence between the human and the nonhuman.

인류세연구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융합분야에 선정되어 2018년 6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인류세의 물질적 · 사회적 증거를 탐구하고 초학제적인 관점으로 인류세의 다양한 의미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인류세(Anthropocene)는 '인간의 시대'를 의미하는 과학적 개념으로, 인간이 지구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이 제안된 지질시대의 이름입니다. 인류세연구센터는 이러한 인류세를 감지(Sensing)하고, 적응해서 살아가며(Inhabiting), 대안적인 상상(Imagining)을 시도하기 위한 세 개의 연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세라는 용어가 함축하는 절박한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전파할 방법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Established in June 2018 at KAIST with funding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the Center for Anthropocene Studies (CAS) conducts transdisciplinary research on the Anthropocene. As a scientific concept meaning "human epoch," the Anthropocene has been proposed for the current geological time to denote profound human impacts on our planet. CAS consists of three main research groups, each focusing on "sensing," "inhabiting," and "imagining" the Anthropocene. In addition to these academic endeavors, CAS also struggles to socially share and disseminate the urgent message embedded in the Anthropocene concept.

SIBF 2020